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공학석사 학위논문

‘이용자 중심 공공도서관’을 위한  
「공공도서관 건립·운영 매뉴얼」 내  
통합디자인 개선 방안

- 전주시 공공도서관 정책과 사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Integrated  
Design in the 「Manual for Construction and  
Management of Public Libraries」 for  
‘User-Oriented Public Libraries’ -A Focus on  
Policy and Case Studies of Public Libraries in  
Jeonju City-

2023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최혜조

‘이용자 중심 공공도서관’을 위한  
「공공도서관 건립·운영 매뉴얼」 내  
통합디자인 개선 방안

- 전주시 공공도서관 정책과 사례를 바탕으로 -

지도교수 백 진

이 논문을 공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3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최 혜 조

최혜조의 석사 학위论문을 인준함

2023년 8월

위 원 장           조 항 만           (인)

부위원장           백 진           (인)

위 원           최 춘 응           (인)

## 국 문 초 록

공공도서관은 시대적 변화를 거치며 기존에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던 시설에서 벗어나, 지역주민과 도시의 이용자를 위해 다양한 역할을 하는 시설로 변모하였다. 이는 공공도서관이 이용자들에게 일반적인 도서관 역할뿐만 아니라 전시와 공연 같은 문화 프로그램이나 강연과 교육 활동을 제공하기도 하고, 동아리나 취미 개발을 위한 지역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지원하기도 하며 점차 확대되었음을 의미한다. 즉, 도서관 패러다임은 자료만을 중요시하던 것에서 이용자의 다양한 사용과 경험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변화했다. 오늘날 이러한 현상에 대해 신승수는 공공도서관이 개인과 커뮤니티 그리고 도시를 이어주는 기반 시설이자 ‘도시의 거실’이 된 것이라 정의하고 있다.<sup>1)</sup>

이러한 시대적 흐름과 요구에 대응해 국내 도서관 관련 최상위계획인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서도 2019년에 발간한 3차 계획부터는 정보에서 사람 중심으로 변화하는 도서관 역할 재고를 비전으로 삼으며, 이용자를 도서관의 중요 개념으로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공공도서관 현황을 살펴보면 양적 성장에만 관심을 두고 있어, 이러한 이용자를 중요시하는 방향과 비전이 실제 건립에 반영되어 공공도서관 건축이 이루어지고 있

---

1) 신승수는 영국의 도서관을 선례로 들며, 영국의 건축건조환경위원회(CABE)에서 공공도서관의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해 디자인 조건을 도출하고, 공공도서관의 미래상을 ‘도시의 거실’로 규정하였음을 언급한다. 신승수 외 2인. (2009). 영국 공공도서관 프로젝트의 커뮤니티 기반 공공성 구현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5(12). 262. 또한 21세기 공공도서관의 기능과 역할의 다양화에 따른 구조적 변화를 다루며 현대 공공도서관을 공간들의 네트워크로서의 공간, 도시-건축으로서의 공간, 삶과 문화 사회를 연결하는 기반 시설로 설명한다. , 신승수 외 2인. (2014). *슈퍼라이브러리*. 사람의무늬. 서울:성균대학교 출판부. 30.

는지 재고할 필요가 있다.<sup>2)</sup> 따라서 본 연구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질적인 공공도서관 건립을 위해 발간하여 현재 적용하고 있는 「2022 공공도서관 건립·운영 매뉴얼」 내 건축 관련 지침에 해당하는 4장 공공도서관 통합디자인을 분석하여 이용자 중심 디자인이 반영되고 있는지 검토한다. 이후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응하는 전주시 공공도서관을 선례로 설정하여 해당 지자체의 정책적 사례와 이를 구현한 건축물을 분석한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매뉴얼의 향후 개정 방향과 개선안을 제시한다.

전주시의 공공도서관은 전국 도서관들의 벤치마킹 대상으로 꼽히며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곳으로<sup>3)</sup> 전국의 지자체나 공공도서관 관련 기관들의 전주시 공공도서관 연수가 지속되고 있다. 무엇보다 전주시는 일반적인 공공건축이 정해진 예산과 관리를 강조하기 때문에 이용자의 수요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는 아쉬움을 언급하며, 이와 다르게 전주시는 전문가와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최대한 반영한다고 명시한다. 따라서 이용자 관점으로 공공도서관을 바라봄에

2) 최근 10년간의 공공도서관의 수를 살펴보면, 2011년부터 꾸준히 도서관 수가 증가하여, 2016년에는 1,000개 관을 돌파하였고, 2021년엔 총 1,208개 관이 건립되었다. 이는 10년간 총 53.6%가 증가한 것이며, 기타 문화시설들의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2.7%인 것에 비해 공공도서관은 4.6%나 상대적으로 증가했다. 이때 해당 증가율이 2014년에서 2019년까지의 5년간 평균을 측정한 것이므로 공공도서관도 동일한 연도의 증가율을 확인하여 기재하였다. 건축공간연구원. (2019). 숫자로 보는 공공건축 2019.

3) 2019년 이후 549개 기관, 6,582명이 답사했으며, 시립도서관과 시 직영 작은도서관 이용자 만족도가 9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낙현. 2022년 10월 30일. “책의 도시’ 전주에 가면 ‘특별한 도서관’이 있다”. 전북광장. 3개의 시립도서관 이용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약 92%가 도서관 이용전반에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김장천. 2022년 06월 07일. “‘개방형 창의도서관 변신’... 전주 금암·송천·인후 도서관 “만족””. 전라일보. 그 외에도 다가여행자도서관 97%, 2022년 04월 18일. 김낙현. “전주 다가여행자도서관 만족도 높아”. 전북중앙.

있어, 전주시 내 도서관과 해당 지자체의 관련 지침을 고찰해 보는 것은 공공도서관 발전 도모를 위한 중요한 과정 중 하나이나, 전주시의 공공도서관은 이러한 성과에 비해 학계에서 연구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주시 공공도서관 정책인 「책 중심 도시 조성 정책 수립 연구」와 전주시 내 6개 공공도서관을 사범으로 삼아 분석하였다.

2장에서는 전반적인 공공도서관 제도의 역사를 통해 공공도서관의 흐름을 살펴보고 오늘날 국내 공공도서관 내 이용자 중심 디자인의 중요성을 파악하였다. 이후 이용자 중심 디자인에 관한 다양한 연구자의 해석을 고찰하고 이를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분석의 틀을 구축하였으며, 이는 1) 이용자 중심 공간구성과 요소 적용, 2) 이용자의 직·간접적인 참여 반영, 3) 지역 커뮤니티 및 도시와의 연계 고려이다.

3장에서는 「2022 공공도서관 건립·운영 매뉴얼」 내 건축 지침에 해당하는 공공도서관 통합디자인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용자 중심 디자인 방향성이 공공도서관의 비전뿐만 아니라 실제 건립과정을 통해 구현되고 있는지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공공도서관 통합디자인을 2장에서 도출한 3가지 이용자 중심 디자인 유형으로 분석하고 반영 여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연구자가 설정한 통합디자인의 총 9가지 항목 중 3가지는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5가지는 일부만 반영하고 있었으며, 1가지만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반적으로 건축 전문가를 중심으로 지침이 제시되고 있었다. 따라서 공공도서관의 비전과 실제 건립 지침이 다소 서로 상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한 보완을 통해 차이를 줄여야 한다는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4장에서는 도출된 보완점들을 위한 선례로 전주시를 설정하여 해당 지자체가 정책적으로 어떻게 대응했는지 3가지 이용자 중심 디자인 유

형을 기준으로 확인하였다. 그 결과 전주시는 1) 기능 중심 공간구성보다 이용자 중심 공간구성을 지향하고 있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공간구성 체계의 기준을 이용자 유형에 따르는 예시를 들고 있었다. 2) 전문가의 업무지침에만 치중하고 일률적인 특정 공간만을 지향해 강행하지 않고, 전문가 의견과 함께 실제 이용자 또는 비 이용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공간을 조성하고자 했다. 3) 개별 도서관 활성화와 내부 공간에 집중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공도서관의 내외부를 같이 활용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었으며 개개인을 넘어 집단 또는 지역공동체를 위한 시설로 확장할 수 있도록 정책을 구체화하고 있었다.

5장에서는 이러한 정책을 기반으로 실제 구현된 6개 관의 전주시 공공도서관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분석해보며 어떤 이용자가 주체가 되어, 어떻게 이용자 중심 디자인 요소들을 반영해 공간을 조성했는지 각각 살펴보았다. 그 결과 건축 전문가를 포함한 일반 시민, 행정 및 운영관계자, 기타 전문가의 의견을 다양하게 반영하여 공간을 조성했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이러한 정책과 사례를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이용자 중심 디자인 관점에서 「2022 공공도서관 건립·운영 매뉴얼」 내 통합디자인이 보완해야 할 점들의 개선 가능성을 확인했다.

결론에서 공공도서관 통합디자인이 추구해야 할 개정 방향을 1) 기능 중심에서 벗어나 새로운 이용자 중심 공간구성 유형을 도입해 시대적 흐름에 맞는 공간을 방문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 2) 이용자의 다양한 참여와 의견을 전문가들이 수렴할 수 있도록 하여 특정 집단 외의 여러 관계자가 참가하는 공공도서관이 되도록 하는 것, 3) 지역 상생과 도시의 연계를 고려한 공간 방향을 설정해 공공도서관이 일상 속 기반 시설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이에 대해 기존 안에 대응하는 구체적인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2022 공공도서관 건립·운영 매뉴얼」의 공공도서관 통합디자인의 특징을 이용자 중심 디자인 관점에서 고찰하고 보완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현재 이에 대응하고 있는 전주시 정책을 구체적으로 비교하고 나아가 이를 실제 건축으로 구현한 사례들을 분석하였다. 최종적으로는 앞으로의 공공도서관 통합디자인이 개선되어야 할 방향을 제언하였다. 즉, 본 연구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매뉴얼의 지침을 분석해 도출된 보완점에 대응하는 구체적인 모범 사례를 토대로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여, 추후 진행될 「공공도서관 건립·운영 매뉴얼」 개발에 기초 자료가 될 수 있다는데에 그 의의가 있다.

주요어 : 공공도서관, 통합디자인, 이용자 중심 디자인, 공공도서관 건립·운영 매뉴얼, 전주시 공공도서관, 매뉴얼 개선

학 번 : 2021-28188



# 목 차

제 1 장 서 론 .....	01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	01
1.2 선행연구 분석 .....	04
1.3 연구의 대상과 방법 .....	08
1.4 연구흐름도 .....	10
제 2 장 「공공도서관 건립·운영 매뉴얼」과 이용자 중심 디자인 .....	12
2.1 「공공도서관 건립·운영 매뉴얼」의 배경 .....	12
2.1.1 공공도서관 제도의 역사 .....	12
2.1.2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목표 .....	18
2.2 이용자 중심 디자인의 이론적 고찰 .....	20
2.2.1 이용자와 이용자 중심 디자인의 개념 고찰 .....	20
2.2.2 이용자 중심 디자인의 중요성 .....	22
2.3 이용자 중심 디자인 유형 도출과 분석의 틀 설정 .....	23
2.3.1 이용자 중심 공간구성과 요소 적용 .....	24
2.3.2 이용자의 직·간접적인 참여 반영 .....	25
2.3.3 지역 커뮤니티 및 도시와의 연계 고려 .....	26
제 3 장 이용자 중심 디자인으로 본 「공공도서관 건립·운영 매뉴얼」 내 ‘공공도서관 통합디자인’ .....	29
3.1 「공공도서관 건립·운영 매뉴얼」내 ‘공공도서관 통합디자인’ .....	29
3.1.1 「공공도서관 건립·운영 매뉴얼」의 현황 .....	29
3.1.2 연도별 공공도서관 통합디자인 변화 .....	31

3.1.3 ‘공공도서관 통합디자인’ 키워드 도출 .....	33
<b>3.2 ‘공공도서관 통합디자인’ 내 이용자 중심 디자인 반영 분석</b>	<b>34</b>
3.2.1 ‘공공도서관 통합디자인’ 재구성 .....	34
3.2.2 ‘공공도서관 통합디자인’ 반영 분석 .....	39
<b>3.3 소결: 이용자 중심 디자인 관점으로 본</b>	
<b>‘공공도서관 통합디자인’의 보완점 .....</b>	<b>47</b>
<b>제 4 장 전주시 공공도서관 정책으로 보는</b>	
<b>이용자 중심 디자인 .....</b>	<b>49</b>
4.1 전주시 「책 중심 도시 조성 정책 수립 연구」 .....	49
4.2 전주시 공공도서관의 정책적 대응 방안 .....	51
4.3 전주시 이용자 중심 디자인 공공도서관 정책종합 비교분석	60
<b>제 5 장 전주시 공공도서관 사례 분석으로 보는</b>	
<b>건축적 대응 .....</b>	<b>63</b>
5.1 분석 대상 및 현황 .....	63
5.1.1 분석 대상 선정 .....	63
5.1.2 분석 대상 현황 .....	64
5.2 분석 결과 .....	71
5.2.1 전주시 공공도서관의 이용자 중심 공간구성과 요소 .....	71
5.2.2 전주시 공공도서관 내 이용자의 직·간접적인 참여 .....	75
5.2.3 전주시 공공도서관의 지역 커뮤니티 및 도시와의 연계	79
5.3 소결: 전주시 공공도서관 사례 종합 분석 .....	83
<b>제 6 장 결 론 .....</b>	<b>86</b>
6.1 연구의 요약과 결론 .....	86
6.2 ‘공공도서관 통합디자인’의 개정 방향과	

구체적인 개선안 제시 .....	89
6.2.1 이용자와 공공도서관의 관계 정립 .....	89
6.2.2 공공도서관 통합디자인의 개정 방향 제안 .....	91
6.2.3 공공도서관 통합디자인의 구체적인 개선안 제시 .....	93
6.3 시사점 및 향후 연구 .....	96
References .....	97
Appendices .....	103
Appendix A 관계자 인터뷰 .....	103
Appendix B 「2022 공공도서관 건립·운영 매뉴얼」의 목차 .....	120
Appendix C 연도별 공공도서관 통합디자인 비교 .....	121
Abstract .....	129

## 표 목 차

[표 1-1] 공공도서관 매뉴얼 관련 선행연구 종합 .....	5
[표 1-2] 전주시 공공도서관 관련 선행연구 종합 .....	6
[표 2-1] 연도별 공공도서관 제도의 역사 종합 .....	17
[표 2-2] 이용자 유형 및 유형별 상세 도서관 관련 이용자	21
[표 2-3] 이용자 중심 디자인 또는 공공도서관 관련 연구 분류 .....	24
[표 2-4] 이용자 중심 공공도서관의 공간구성과 요소 특징	25
[표 2-5] 이용자 중심 공공도서관의 이용자 의견 반영 특징	26
[표 2-6] 이용자 중심 공공도서관의 지역, 도시와의 연계 고려 특징 .....	27
[표 2-7] 이용자 중심 공공도서관 유형과 각 유형별 특징 ..	28
[표 3-1] 통합디자인 세부 항목 종합 정리표 .....	38
[표 3-2] 공공도서관의 필요기능 재분류 .....	39
[표 3-3] 이용자 중심의 공간구성과 요소 반영 결과 .....	41
[표 3-4] 이용자 직·간접적인 참여 반영 결과 .....	44
[표 3-5] 지역 커뮤니티, 도시와의 연계 반영 여부 .....	46
[표 3-6] 통합디자인 내 이용자 중심 디자인 반영 분석 종합 결과 .....	48
[표 4-1] 이용자 중심 요소에 따른 공공도서관 통합디자인의 반영 분석과 「책 중심 도시 조성 정책 수립 연구」의 대응 비교 ·	51
[표 4-2] 이용자 기준에 의하여 분류된 공간구성 요소 .....	57
[표 4-3] 이용자 중심 디자인 공공도서관 정책의 종합 비교분석 .....	62
[표 5-1] 분석 대상 공공도서관 .....	64
[표 5-2] 분석 대상 공공도서관의 현황 .....	64

[표 5-3] 전주시 공공도서관 사례별 관련 이용자 유형 .....	84
[표 6-1] 전주시 공공도서관 사례 및 참여 이용자 .....	87
[표 6-2] 공공도서관 통합디자인과 전주시 공공도서관의 이용자 참여 비교 .....	88
[표 6-3] 이용자 중심 디자인 공공도서관을 위한 ‘공공도서관 통합디자인’ 개선 방향과 개선안 제시 .....	95

## 그림 목 차

[그림 2-1] 도서관법좌담회 회의록 .....	13
[그림 2-2] 기적의 도서관 1호, 순천시 기적의 도서관 현장 모습 .....	15
[그림 2-3] 공공도서관의 단계별 지침과 주체 .....	18
[그림 3-1] 「공공도서관 건립·운영 매뉴얼」의 구성 .....	31
[그림 3-2] 통합디자인의 주요 변화 추이와 키워드 도출 .....	33
[그림 3-3] 통합디자인 세부 항목 재구성 과정 .....	35
[그림 3-4] 도서관 건립추진 조직 .....	37
[그림 3-5] 건립추진 조직 구성원 변화 .....	43
[그림 3-6] 공공도서관 통합디자인의 변화 .....	45
[그림 4-1] 전주시 도서관 비 이용자 설문조사 결과 .....	58
[그림 4-2] 전주시에서 제공하는 동네 서점 지도 .....	59
[그림 5-1] 금암도서관 모습 .....	65
[그림 5-2] 다가여행자 도서관 모습 .....	66
[그림 5-3] 우주로 1216 모습 .....	67
[그림 5-4] 서학예술마을 도서관 모습 .....	68
[그림 5-5] 학산 숲속 시집도서관 모습 .....	69
[그림 5-6] 책 기둥 도서관 모습 .....	70
[그림 5-7] 리모델링 이전 금암도서관 공간구성도 .....	72
[그림 5-8] 다양하게 조성된 공유공간 모습들 .....	72
[그림 5-9] 지하실과 옥상의 프라이빗 공간 .....	74
[그림 5-10] 자료 공간과 합쳐진 업무 공간 .....	74
[그림 5-11] 사서들의 워크샵과 트윈세대들의 워크샵 .....	76
[그림 5-12] 브릿지와 곡선 마루 작업 이미지 .....	78

[그림 5-13] 도서관 주변 현황 .....	80
[그림 5-14] 전주책방 네트워크 발대식, 책 기증 도서관에서 강연하는 모습 .....	78

# 제 1 장 서 론

##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기적의 도서관’ 설립을 주도하고 ‘책 읽는 사회문화재단’ 대표를 맡은 도정일은 한 칼럼에서 공공도서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돈 없이도 책은 얼마든지 볼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도서관은 정보격차를 줄이는 위대한 민주기구다. 아이디어를 만나고 기회를 창출하게 한다는 점에서 도서관은 수동적 문화향수를 넘어 가치가 창조되는 생산기지, 평생학습의 장, 시민의 대학, 주민의 서재다. 과거, 현재, 미래가 만나고 기억과 상상력이 융접되는 곳, 지적 모험의 땅, 돈도 비자도 필요 없는 여행지, 국경과 인종과 계급이 영원히 퇴각한 코스모폴리탄의 세계, 거기가 도서관이다. 실용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서관은 지식의 사냥터이고 혼의 춤이 그리운 사람들에게 도서관은 영혼의 즐거운 무도회장이다. 도서관은 만남의 장소다.”<sup>1)</sup>

이처럼 공공도서관은 단순한 책의 수장고가 아니라 개인 간의 관계에 영향을 주고, 공동체의 가치도 창출하며, 도시의 정체성을 반영하기도 하는 기반 시설이다. 그러나 오늘날 국내 공공도서관은 우리의 일상에서 실제로 이러한 역할을 해내고 있을까? 시대적 패러다임에 따라 변화된 공공도서관의 역할에 상응하는 공공도서관 건축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공공도서관은 정보를 제공하고 축적하던 공간에서, 이용자들의 여러 가지 요구사항에 맞는 프로그램, 행위, 또는 경험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역할을 확장하고 있다.<sup>2)</sup> 즉, 자료 중심에서 이용자 중심으로 방향성이 변화하고 있다. 이

1) 도정일. 2006년 01월 20일. “보르헤스의 ‘천국’과 도서관”. 한겨레.

2) 배동식은 “이러한 다양한 공공도서관의 역할은 사회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이용자들의 생활양식을 반영한 문화, 교육, 휴식, 전시, 소통에 대한 의무이기도 하다.”



에 대응하여 도서관의 비전과 방향을 설정하는 국가적 차원의 정책도 같이 발전하고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도서관 중장기 발전계획인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은 사람 소통이 강화된 도서관 역할의 재고를 언급하고 있다.<sup>3)</sup> 이처럼 시대적 추세와 흐름에 따라 달라지는 이용자의 요구와 관점을 고려한 이용자 중심 디자인이 점차 중요시되고 있다. 그러나 공공도서관 실제 건립과정에도 이러한 변화가 적용되고 있는지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공공도서관의 확연한 양적 증가에 비해 공공도서관 방문자 수는 매년 줄어들어 반비례하고 있다.<sup>4)</sup> 또한 최근에는 공공도서관 예산 삭감이나<sup>5)</sup> 폐관에 대한 논의도 많이 제기되고 있다.<sup>6)</sup> 이러한 문제들로 도서관 이용자, 운영자, 그리고 시 또는 구 사이에 마찰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오늘날 공공도서관이 추구

---

라며 이용자의 영향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변화를 언급한다. 배동식. 공공도서관의 사회적 역할 변화에 따른 공간구성에 관한 연구: 대구광역시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한국공간디자인학회 논문집. 17(3). 2022. 4, p.307.

- 3) 추진 배경에서 “정보 소통의 장으로서 도서관의 역할을 재고하여 정보와 사람, 사람과 사람의 소통을 강화하고 사회적 갈등을 극복하여 사회적 통합의 기틀 마련”이라고 밝히고 있다.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 대통령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2019, p.10.
- 4) 2023년 5월 기준으로 2021년까지 집계되어 이를 참고하였다.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https://www.libsta.go.kr/statistics/public/main>
- 5) 특히 공공도서관 중 작은 도서관 같은 경우 지속적인 지원에도 사업이 전체적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최근 서울시에서는 지원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발표했으나, 관련 논란이 거세지자 하루 만에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반복했다. 이성희. 2023년 01월 20일. ‘작은도서관’ 예산 전액 삭감 논란 거세지자...서울시 “계속 추진”. 경향신문.
- 6) 마포구에서는 2022년 11월, 2025년까지 운영하기로 한 작은도서관 9곳을 폐관하고 독서실로 바꾼다는 의혹이 있었으며 이는 사실상 관내 구립 작은도서관을 모두 폐관하는 것과 동일하였다. 이에 곧바로 500건 이상의 주민 반발이 이어지자 구는 작은도서관을 유지하며 스터디카페 공간을 추가하는 것이라 해명하였다. 실제로 도서관이 폐관되진 않았으나 폐관이나 축소에 대한 우려에 마포구 주민 200여명이 마포구립 작은도서관을 지키는 사람들 이란 모임을 꾸리게 되었다. 2022년 11월 08일. 임인택. “책 읽지 말고 공부해라?...마포구, 작은도서관 9곳 없앤다.” 한겨레., 2022년 11월 27일. 김송이. “책, 사람, 세상과 연결되는 곳”...마포 작은도서관을 지키는 이유. 경향신문.

하는 방향과 실제 건립되고 있는 도서관이 서로 상응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단순히 도서관을 많이 건립하는 것에만 치중하여, 어떤 도서관을 건립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려가 결여된 것은 아닌지를 고찰하기 위해서는 그 건립의 기반이 되는 매뉴얼을 분석해야 한다. 따라서 연구자는 현재 도서관 건립을 위한 지침으로 제공되는 「공공도서관 건립·운영 매뉴얼」<sup>7)</sup>내 건축 지침에 해당하는 4장 공공도서관 통합디자인 항목을 이용자 중심 디자인의 관점으로 재고하는 연구를 통해 매뉴얼을 분석하고 보완점을 도출한다. 이후, 이에 대응하는 정책적, 건축적 사례를 통해 개선안을 제시하여 향후 공공도서관 발전의 기초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연구를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사례로는 오늘날 많은 공공도서관의 존재가 논해지는 것과 달리, 전국 도서관들의 벤치마킹 대상으로 꼽히며 입지를 단단히 하는 전주시로 선정한다. 대한민국에서 인구 대비 도서관 비율이 높은 도서관 도시인<sup>8)</sup> 전주시는 도서관 사업의 여러 긍정적인 결과를 토대로 도서관 여행 관광상품까지 등장하여 해당 지자체의 공공도서관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전주시 공공도서관 사례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공공도서관 건립·운영 매뉴얼」의 통합디자인을 보완한 개정 방향과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7) 2010년부터 3년 단위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간하고 있는 공공도서관 건립 지침이다. 현재는 2023년도에 발간한 「2022 공공도서관 건립·운영 매뉴얼」을 사용한다.

8) 백도인. 2021년 10월 25일. “여기 도서관 맞아요?”...놀이터로 변신하는 전주도서관. 연합뉴스

## 1.2 선행연구 분석

선행연구는 크게 1) 「공공도서관 건립·운영 매뉴얼」 관련 연구와 2) 전주시 공공도서관 관련 연구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먼저 「공공도서관 건립·운영 매뉴얼」과 관련된 연구는 대부분 문헌정보학에서 사서 제도나 운영, 컨설팅, 서비스 활동을 대상으로 다룬 것이다. 이는 매뉴얼 내 일부 서비스나 제도 개선을 위해 중요하지만 본 연구와의 연관성은 크지 않아 이 중 건축적으로 접근한 8개 연구를 선정해 선행연구를 진행했다. 전주시 공공도서관 관련 연구도 마찬가지로 문헌정보학에서 다룬 연구가 대부분이나 그중 전주시 공공도서관의 현황 파악이 가능한 연구도 선행연구에 포함하여 총 7개를 다루었다.

### 1) 「공공도서관 건립·운영 매뉴얼」 관련 연구

		년도	저자	제목	출처
매 뉴 얼 연 구	매 뉴 얼 고 찰	2012	고재민, 임호균	공공도서관의 복합화 경향에 관한 연구	디자인융복합연구 . 11(5). 43-56.
		2013	류태현, 고재민, 임채진	공공도서관의 복합화 유형별 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9(11). 141-149.
		2014	서동훈, 임호균	국내 공공도서관 복합화 경향에 대한 연구 -지역별 특성을 중심으로-	한국문화공간건축학회논문집. 47. 112-119.
		2017	고흥권	공공도서관 열람실 서가면적비율에 관한 연구 -2000년 이후 국내 및 런던 공공도서관 일반자료열람실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문화공간건축학회논문집. 59. 31-38.
		2017	조우리	도서관 기능변화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공간구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석논
		2019	김현오	공공도서관 공간구성의 변화에 관한 연구: 국내 도서관정책 고찰을 바탕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석논

매뉴얼 개선	2012	임호균, 고흥권	공공도서관 세부소요공간 규모기준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21(5). 390-398.
	2017	이철재, 윤지원, 이민	공공도서관의 지위별 규모와 지역적 특성에 따른 공간 면적 기준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26(2). 92-100.

〈표 1-1〉 공공도서관 매뉴얼 관련 선행연구 종합

매뉴얼 관련 연구는 크게 매뉴얼의 일부 내용을 고찰하거나 분석의 틀로 삼는 연구, 매뉴얼의 보완과 개선 연구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고재민(2012), 류태현(2013), 서동훈(2014)은 매뉴얼의 공간구성 요소를 고찰하여 공공도서관의 복합화 경향을 파악하였고, 고흥권(2017)은 매뉴얼의 내용을 기준으로 삼아 국내 공공도서관의 일반자료열람실 서가 면적 비율을 조사하며 해외 사례와 비교분석을 진행했다. 조우리(2017)는 매뉴얼을 토대로 공공도서관의 기능과 역할 및 공간구성에 대한 기초 분석을 진행하여 사회적 요구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공간구성 변화를 비교하였다. 김현오(2019)는 2013년도와 2016년도에 발간된 매뉴얼의 면적과 공간계획의 비교 결과를 분석의 틀로 도출하고, 실제 도서관 공간에 정책적 변화가 반영된 여부를 분석해 공공도서관 공간구성 변화와 경향을 파악하였다. 이처럼 「공공도서관 건립·운영 매뉴얼」을 연구에서 많이 다뤘으나 이를 연구의 대상으로 삼아 개선하거나 변화시키는 게 아닌 공간을 분석하기 위한 기준으로 삼는 정도에 머물렀다.

두 번째 매뉴얼 보완 및 개선 연구로 임호균(2012)은 매뉴얼 내 도서관의 소요 공간 분류기준과 면적 비율을 파악한 후, 이를 분석의 틀로 삼아 도서관 사례들을 조사해 매뉴얼의 실효성 파악과 재정립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이철재(2017)는 2013년도에 발간된 「공공도서관 건립·운영 매뉴얼」 내 공간 규모 내용이 지역적 특성에 따라 구체적으로 구성되어있지 않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유형에 따른 면적 비율을 제안하였다. 이처럼 선행연구에서 「공공도서관 건립·운영매뉴얼」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으나, 건축 지침에 해당하는 통합디자인을 그 대상으로 선정하거나 이용자 중심 디자인을 중요한 개선 방향으로 다루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본 연구와 관점이 다르다.

2) 전주시 공공도서관 관련 연구

		년도	저자	제목	출처
전주시 공공도서관 연구	개선 대상	2005	최흥식	도시개발변화에 따른 공공도서관 신축부지선정에 관한 연구 -전주시를 중심으로-	정보관리학회지. 22(1). 145-166.
		2006	김홍렬	공공도서관 상호협력망 구성에 관한 연구	전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사회과학논총. 21. 25-40.
		2006	최흥식	유사지역공공도서관 비교분석을 통한 전주시립도서관 발전 방안 모색	전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사회과학논총. 21. 166-178.
		2009	임준범	공공도서관 지역분관의 공간계획방향에 관한 연구-전주시 도서관 이용자요구를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연합 논문집. 11(4). 75-82.
		2010	이승채	미국 RCPL과 전주시립도서관의 비교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 회지. 41(2). 5-25.
		2020	고재민	공공도서관 리모델링 공간 계획에 관한 실증적 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박사논문
	비교 대상	2012	장엄규, 최흥식	소규모 지역공공도서관의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전주대학교 사회과학종합연구 소. 사회과학논총. 28(1). 87-110.

〈표 1-2〉 전주시 공공도서관 관련 선행연구 종합

먼저 최홍식(2005)과 김홍렬(2005)은 전주시 공공도서관의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실험 모델로 삼아 향후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또, 최홍식(2006), 이승채(2010), 고재민(2020)은 다른 지역 혹은 해외 사례와 비교 분석하여 전주시 공공도서관의 현황을 파악하고 보완점을 도출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임준범(2009) 같은 경우에는 전주시민들의 설문을 통해 이용자 요구를 조사하여 이를 반영한 공공도서관 공간계획 방향을 제안하는 연구를 진행하기도 하였다. 해당 연구들은 대부분 2000년대 중 후반에 진행되었으며 모두 전주시 공공도서관을 개선의 대상으로 놓고, 선진사례로는 보고 있지 않다.

유일하게 장엄규(2012) 같은 경우 남원시립도서관 발전을 위해 전주시립도서관을 비교군으로 두고 있으나 연구 내용이 공간적인 측면보다는 규모와 서비스 측면에서만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모두 2019년 이후에 신축 또는 재개관한 전주시 공공도서관을 다루며 전주시 공공도서관들을 건축적인 선례로 다룬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들과 큰 차별점이 있다.

### 1.3 연구의 대상과 방법

본 연구는 1차 자료로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기획단에서 201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주기로 발간한 「공공도서관 건립·운영매뉴얼」 5권을 선정한다. 또한 국내 도서관의 비전과 방향을 파악하기 위해 대통령소속 도서관정보정책 위원회에서 2019년도에 발간한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을 함께 선정한다.

「2022 공공도서관 건립·운영 매뉴얼」내 4장에 해당하는 ‘공공도서관 통합디자인’은 특히 공간의 구성, 방향, 배치, 계획뿐만 아니라 내부 인테리어와 공공도서관의 이미지 개발까지 총체적인 지침을 제시한다. 이를 토대로 기본계획안들의 성격과 방향이 결정되므로 이는 바로 다음 단계인 건축설계의 기초가 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공공도서관 공간과 건축 분야를 중점으로 분석하기 위해 ‘공공도서관 통합디자인’을 대상으로 선정한다.

비교 대상으로는 전주시에서 발간한 「책 중심 도시조성 정책 수립연구」를 1차 자료로 선정하여 지침상의 분석을 진행할 수 있게 한다. 본래 「공공도서관 건립·운영 매뉴얼」이 전국의 지자체 공공도서관 건립을 위해 공급되고, 이를 기반으로 각 지자체에서 개별 매뉴얼 또는 연구를 진행하기 때문에 비교를 진행하는 두 문헌의 위계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러므로 오히려 하위 단계에 있는 지자체 매뉴얼에서 상위 단계의 문제점을 자체적으로 적시하고 이에 대한 보완을 시도 했다는 점에서 전주시의 정책 연구는 더욱 연구 대상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보았다.

그 외에도 연구자가 직접 답사를 통해 작성한 자료들과 진행한 관계자 인터뷰 및 이미지 등을 1차 자료로 선정한다. 2차 자료로는 공공도서관 또는 이용자 중심 디자인과 관련된 단행본, 학술 간행본, 연구보고서, 일부 공공도서관 공간과 사례 분석을 위해 참고한 기사 및 자료들을 선정한다.

연구의 절차로는 먼저 2장에서 국내 공공도서관 제도의 변화와 그에 따른 도서관 패러다임을 고찰하기 위해 제도의 역사를 통한 발전과정과 현재의 도서관 비전을 고찰하며 전반적인 국내 공공도서관의 흐름과 「공공도서관 건립·운영 매뉴얼」의 배경을 살펴본다. 다음으로는 본 연구에서의 이용자를 정의하

고 이용자 중심 디자인 개념의 이해를 위한 이론적 고찰을 진행한다. 공공도서관에서 이용자 중심 디자인을 대하는 태도가 다양하므로 이를 유형별로 분류해 분석의 틀을 도출한다.

3장에서는 「공공도서관 건립·운영 매뉴얼」의 현황을 간략히 살펴본 후, 2010년부터 진행된 모든 「공공도서관 건립·운영 매뉴얼」내 건축 관련 지침들<sup>9)</sup>을 살펴봄으로써 주요 키워드를 도출한다. 이를 토대로 현재 적용되고 있는 「2022 공공도서관 건립·운영 매뉴얼」내 ‘공공도서관 통합디자인’의 특징을 재구성하여 분석하고, 이에 대해 2장에서 도출한 분석의 틀을 기반으로 이용자 중심 디자인 반영 여부를 확인하여 보완점을 도출한다.

4장에서는 3장에서 도출된 통합디자인의 보완점들에 대응하고 있는 전주시 공공도서관 정책을 상세히 분석한 후 비교하며 전주시 공공도서관 정책이 지향하는 점들을 확인한다.

5장에서는 정책을 반영해 실제로 구현된 전주시 공공도서관 사례들을 2장에서 도출한 분석의 틀대로 살펴봄으로써 구체적인 이용자 중심 디자인 공간과 해당 공간 디자인의 참여한 이용자를 확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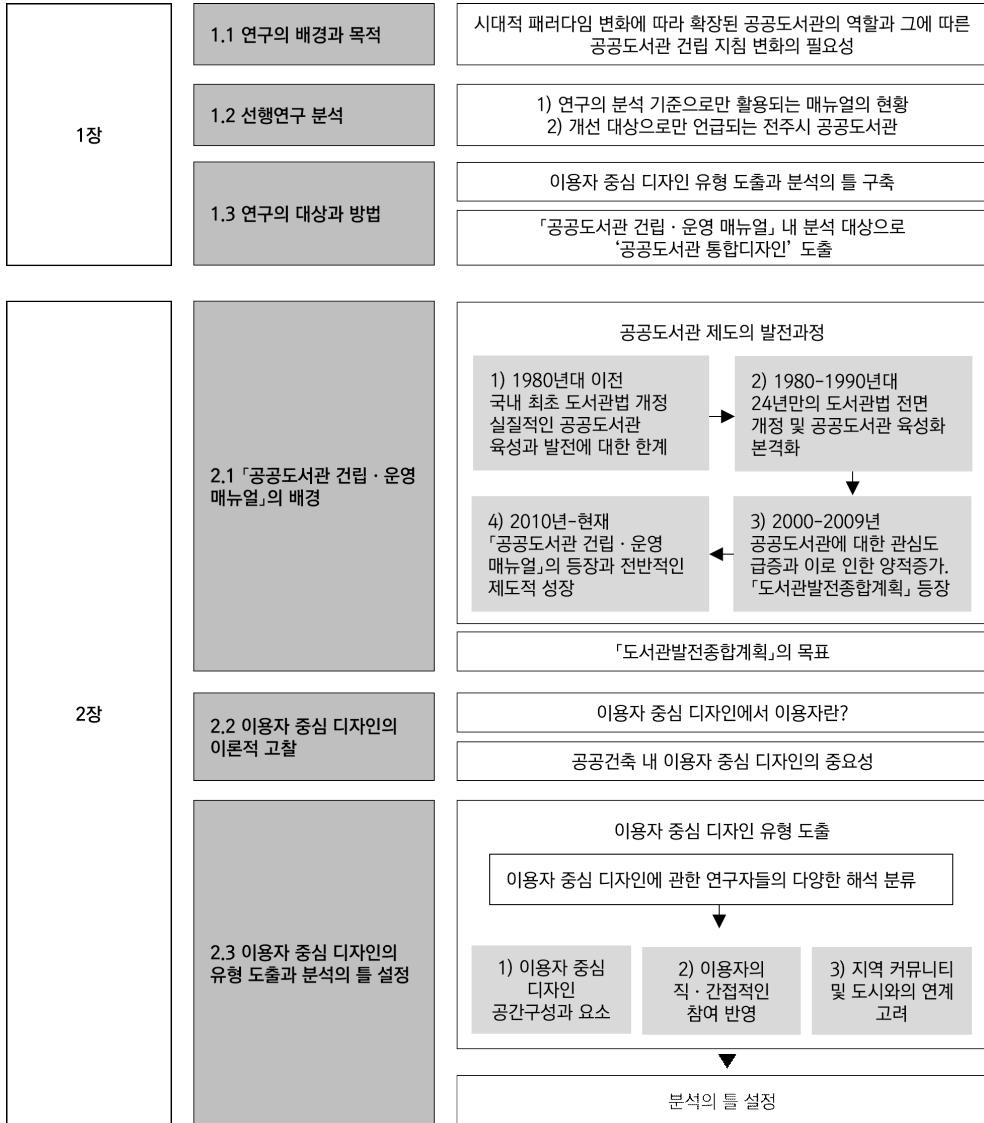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3장의 「공공도서관 건립·운영 매뉴얼」내 ‘통합디자인’에서 발견한 보완점들에 대응하기 위해 4장의 전주시 공공도서관의 정책적 대응과 5장의 전주시 공공도서관 건축적 대응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이후 시대적 패러다임에 적합한 이용자 중심 공공도서관 건립을 구현하기 위해 이용자와 공공도서관의 관계를 정립하고 ‘공공도서관 통합디자인’의 개선 방향을 종합하여 구체적인 개선안을 제시한다.

---

9) 사실상 ‘공공도서관 통합디자인’을 의미하는 것이나 해당 명칭이 2016년 이후로 등장했으므로 2010년부터 모두 포괄하는 의미에서 건축 관련 지침이라고 기재한다.



## 1.4 연구흐름도



3장	3.1 「공공도서관 건립·운영 매뉴얼」내 ‘공공도서관 통합디자인’	<p>「공공도서관 건립·운영 매뉴얼」의 현황</p> <p>「공공도서관 건립·운영 매뉴얼」의 연도별 변화 (2010-2022)</p> <p>↓</p> <p>키워드 도출</p> <p>1) 공간구성과 기능    2) 과업 수행계획    3) 공간배치 및 계획    4) 통합이미지 개발</p> <p>↓</p> <p>‘공공도서관 통합디자인’ 재구성</p> <p>‘공공도서관 통합디자인’ 반영 분석</p>
	3.2 ‘공공도서관 통합디자인’ 내 이용자 중심 디자인 반영 분석	
	3.3 소결	<p>이용자 중심 디자인 관점으로 본 ‘공공도서관 통합디자인’의 보완점</p> <p>1) 기능 중심의 공간구성 및 요소 2) 결여된 이용자의 직·간접적인 참여 3) 지역 공동체와 도시와의 연계 미비</p>
4장	4.1 전주시 「책 중심 도시 조성 정책 수립 연구」	<p>전주시 자체적인 이용자 중심 디자인 공공도서관 정책</p> <p>공공도서관 통합디자인 ↔ 전주시 「책 중심 도시 조성 정책 수립 연구」</p>
	4.2 전주시 공공도서관의 정책적 대응 비교 분석	<p>두 공공도서관 매뉴얼 비교분석</p> <p>공공도서관 통합디자인 ← 이용자 중심 디자인 유형 → 전주시 「책 중심 도시 조성 정책 수립 연구」</p>
	4.3 전주시 이용자 중심 디자인 공공도서관 정책 종합비교분석	<p>두 공공도서관 매뉴얼 종합비교분석</p> <p>1) 이용자 중심 공간구성 지향 2) 실제 이용계층 의견을 반영한 공간 3) 지역공동체와 도시와의 연계로 확장</p>
5장	5.1 분석 대상 및 현황	<p>2019년도 이후 개관한 전주시 직영 공공도서관 6개관 선정</p> <p>대상의 일반 현황 파악</p>
	5.2 분석 결과	<p>전주시 공공도서관 사례를 통한 결과</p> <p>1) 이용자 중심 디자인 공간구성과 요소    2) 이용자의 직·간접적인 참여 반영    3) 지역 커뮤니티 및 도시와의 연계 고려</p>
	5.3 소결: 전주시 공공도서관 사례 종합 분석	
6장	6.1 연구의 요약과 결론	
	6.2 ‘공공도서관 통합디자인’의 개정방향과 구체적인 개선안 제시	
	6.3 시사점 및 향후 연구	

## 제 2 장 「공공도서관 건립·운영 매뉴얼」과 이용자 중심 디자인

### 2.1 「공공도서관 건립·운영 매뉴얼」의 배경

#### 2.1.1 공공도서관 제도의 역사

먼저 근현대 공공도서관의 전반적인 역사와 과정을 고찰하며 공공도서관 관련 제도의 등장과 변화를 통해 현재 상황에 대한 배경의 이해를 높이고 흐름을 살펴본다. 국내 공공도서관 제도는 크게 1980년대 이전, 1980-1990년대, 2000-2009년, 2010년-현재로 구분할 수 있다.

##### 1) 공공도서관과 도서관법의 등장 (1980년대 이전)

일제강점기 시절, 서구의 신식 문물이 입수되며 인쇄발간자료가 증가하고<sup>10)</sup> 이것이 국내 도서관 출현의 초석이 된다. 1906년 ‘도서관’이라는 용어가 사용되며<sup>11)</sup> 민간이 설립한 최초의 국립도서관인 대한도서관이 등장하지만, 시대적 난관으로 인해 폐관된다<sup>12)</sup>. 비슷한 시기에 개개인들이 기금을 모아 최초의 공

---

10) 1883년 한성순보를 시작으로 1896년 독립신문을 비롯한 신문들이 대거 등장하며 일반 시민을 위한 인쇄물들이 증가했다. 송승섭. (2019). 한국도서관사. 한국도서관협회. 207-210.

11) 실제 현대에서 사용하는 “도서관”이라는 용어는 1884년 3월 27일 한성순보의 “이태리가 날로 강해지다”라는 기사에서 처음으로 등장했으나 실제로 구체적인 대상을 지칭하는 용어로서 ‘도서관’이 사용된 것은 1906년 대한도서관 건립을 추진하면서 부터이다. Ibid.

12) 조선시대의 도서와 사적이 특정 지배계층만 열람할 수 있던 것과 달리 민중들이 쉽게 접근하고 깨우칠 수 있도록 당대 한국의 지식인들이 자발적으로 설립했다. 그러나 한일합병조약 이후 장서 10만여 권이 몰수되고 대중을 위한 도서관으로 공개

공도서관 성격인 대동서관이 등장하지만, 이를 도서관이라 지칭하기엔 논란의 여지가 있었다.<sup>13)</sup> 당시 일본인에 의해 설립된 사, 공립 공공도서관은 많았으나<sup>14)</sup> 사실상 한국 대중을 위한 공공도서관은 해방 전까지 등장하지 않았다.



〈그림 2-1〉 도서관법좌담회 회의록 (출처: 한국도서관협회, 1963.10.31. 발간)

해방 이후 일제의 도서관을 이관하고 새로운 국가를 위한 지식의 보급과 확산을 위해 도서관 운동을 진행했으나 한국 전쟁으로 좌절된다. 전쟁 이후 6, 70년대에 도서관 운동은 다시 본격화 되어 민간 도서관인 마을문고<sup>15)</sup>가 활성화되고, 1963년도에 도서관법이 제정된다. 하지만 마을문고는 80년대에 농촌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며 마을이 붕괴하고, 기타 사회 여건이 변하며 관심과 지원이 줄어들자 결국 사라진다.<sup>16)</sup> 또한 도서관법도 그 내용을 보면, 공공도서관의 단순한 양적 증가에만 취지를 두고 있으며, 그마저도 국가 실정에 따라 온전한 지원은 어렵다는 견해를 취하였다.<sup>17)</sup> 즉, 도서관을 위한 국가

- 되지 못한 채 왕실 소속으로 존재하다 폐관된다. Ibid. 212-216.
- 13) 대동서관은 사실상 서적종랍소로 출판업을 겸한 서점이면서 동시에 그들이 소장한 서적들을 일반 대중에게 공개하는 공공도서관이기도 했다. 이는 당시 공공도서관 출현의 과도기적 성향으로 인한 발전과정으로 보인다. Ibid. 217-218.
  - 14) 해방 이전까지 설립된 사립, 공립 도서관은 모두 총 54개 관이며 이 중 46개 관이 1919년부터 1937년까지 문화정치의 수단으로 설립되었다. Ibid. 225.
  - 15) 엄대섭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1961년부터 전개된 도서관 운동에 의해 설립된 농촌도서관이며 농어촌 주민들이 책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공공도서관이었다. 1974년 말에는 35,011개의 마을문고가 설립되기도 하였다. 최진욱. (2021). 공공도서관 엄대섭이 꿈꾼 지식나눔터. 현복스. 33.
  - 16) 이연옥. (2002). 한국 공공도서관 운동사. 서울:한국도서관협회. 90-93.
  - 17) “우리가 도서관법을 만든다고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하면 우리나라에 한 개라도 많은 도서관을 만들 수 있느냐 이것이 도서관법의 주요취지가 아니겠습니까.”라는 김강현의 언술을 통해 당시 도서관법이 양적 성장을 중요시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예산의 범위내에서 공공도서관의 설치, 육성에 노력해야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원래 저이가 목적인 것은 업무조항으로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정책과 교육상황의 여건이 마땅치 않아<sup>18)</sup> 실질적인 도서관 육성과 발전으로 끌고 오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 2) 도서관법 개정과 공공도서관 운동 (1980-1990년대)

80년대 초에는 군사정권에 의한 당시 정책으로 스포츠나 레저와 같은 소비 문화와 향락주의가 만연하였다. 이후 80년대 중반이 되어서야 사회 민주화가 어느 정도 진전되며 문화적인 부분에 대한 육성이 본격화되었다. 이에 6월 민주화운동이 있었던 1987년, 24년간 방치되었던 도서관법 전면 개정이 그해 말에 공포된다. 특히 해당 내용을 살펴보면 도서관발전위원회 설립과 도서관진흥기금 설치 등 구체적인 도서관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항목들이 명시되어있다. 이후 1991년, 1994년 두 번에 걸쳐 ‘도서관진흥법’과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이 제정되고, 도서관 입관료가 법적으로 폐지되었으며, 전문사서직을 공공도서관 관장으로 임명해 전문성을 보장하였다. 또한 공공도서관 정책소관부처를 행정 담당부서인 문교부에서 신설된 문화부로 일부 이관하게 된다. 즉, 이 시기부터 공공도서관을 하나의 문화시설로 인식하던 상황을 보여준다. 그 외에도 독서 교실과 같은 도서관 서비스들이 등장하며 점차 자리를 잡는 모습을 보여준다. 하지만 90년대 말까지 도서관계가 다양한 시도를 했으나 이에 대해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저조해 결과적으로 공공도서관의 활성화를 끌어내지 못하였다. 또한, 도서관계 내에서도 정책적 운동과 민간 도서관 운동이 개개별로 진행되어 시너지를 내 하나의 큰 도서관 운동으로 발전하지 못한 점을 한계로 언급한다.<sup>19)</sup> 그러나 도서관 연구자들은 이를 대한민국의 성장 과정이 압축적이고,

---

도서관을 만들 것을 원했드랬습니다.”라는 박희영 언술을 통해 도서관법 7조에 단순히 노력해야 한다고 실효성 없는 언급으로 마무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도서관법좌담회회의록.

18) 당시 전란 이후 국가 재건에 치중하며 경제성장과 안보에 국력을 기울였으며, 입시만을 위한 전근대적 교육상황과 교육열로 당시 공공도서관을 독서와 정보의 공간이 아니라 학생들의 공부방이란 형태로 내몰았다. 이연옥. (2002). 한국 공공도서관 운동사. 서울:한국도서관협회. 57-60.

19) 보다 구체적으로는 각 공공도서관 운동 간의 연계도 미비했으며, 이는 이를 주도하는 주체와 이를 축적하고 전달하는 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Ibid. 179-183.

문화적 역량보다는 경제성장에 치우치거나, 이후 민주화, IMF와 같은 시대적 상황이 급변함에 따라 기반을 다지기 어려웠던 것으로 판단한다.

### 3) 공공도서관의 부각과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등장 (2000-2009년)



〈그림 2-2〉 기적의 도서관 1호 순천시 기적의 도서관 현장 모습.  
(출처: ©순천시청. 2003.06.17.)

2003년 공공도서관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급속도로 상향시킨 MBC ‘느낌표’ 프로그램의 ‘기적의 도서관’ 프로젝트가 등장한다. 유명 연예인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에서 공개적으로 어린이 공공도서관을 지어준다는 것에 많은 신청이 접수되었고, 이 중 선정된 몇몇 동네에 도서관을 만드는 과정은 방송을 통해 전 국민에게 전달되었다. 이는 경제성장에 치우쳐있던 사회의 관심을 문화 발전으로 환기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이에 대한 영향으로 공공도서관 건립량이 여러 지자체에서 급증했으며, 갑작스러운 양적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의 도서관 계획이 필요시 되었다. 하여 2007년 5월, 도서관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수립, 심의, 조정하는 대통령소속 국가도서관위원회가 설립되

었고, 2008년 12월에 도서관의 발전을 위해 5년마다 수립되는 법정 기본계획인 「1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을 발간하였다<sup>20)</sup>. 그러나 이는 정책 수립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많은 공공도서관 증설이 제안되며<sup>21)</sup> 도서관 건립이 이처럼 주요 사항으로 여겨지자 보다 실질적인 건립 지침이 필요시 되었다. 따라서 2008년부터 건립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공공도서관 건립·운영 컨설팅을 시행하게 된다.

#### 4) 공공도서관과 제도의 활성화와 새로운 과제 (2010년-현재)

2010년, 공공도서관 건립·운영 컨설팅에 관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3년 주기로 발행되는 「공공도서관 건립·운영 매뉴얼」이 등장한다. 2013년도에 「제2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이 발간되고 「2013, 2016 공공도서관 건립·운영 매뉴얼」이 차례대로 발간되며 공공도서관 수, 장서, 서비스 확대에 점점 중점을 두게 된다. 공공도서관은 점차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여 2017년도에는 공공도서관 예산 1조 원 시대에 도입해, 국내 공공도서관의 수가 급증하고 접근성이 향상된다. 2019년에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과 「2019 공공도서관 건립·운영 매뉴얼」이 발간되며 이용자 맞춤과 공동체 역할 재정립과 같은 공공도서관의 사회적 역할 강화라는 방향이 설정되고, 생활 SOC에 해당하는 기반 시설로 공공도서관이 선정된다. 이처럼 달라진 오늘날 도서관의 역할에 맞춰 2021년 12월, 도서관법이 전면 개정되었고 최근에는 「2022 공공도서관 건립·운영 매뉴얼」이 발행되었다.

종합적으로, 공공도서관 제도가 많이 발전하였으나 전반적인 국내 공공도서관과 그 제도의 역사를 돌아보았을 때, 이는 정착한 지 오래되지 않았다. 또한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방문자 수 감소, 예산 감축, 도서관 폐지 등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건립의 기반이 되는 매뉴얼을 고찰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

---

20) 대통령소속 국가도서관위원회 연혁 및 개요를 참고하였다.

21) 출판 관련 업계에서 2001년도에 2012년까지 1000여개로 공공도서관을 늘려야 한다는 정부 정책이 제안되었으며, 대한출판문화협회에서는 2017년엔 무려 10년 이내 3000개로 증설해야 한다는 출판 진흥정책 제안서를 내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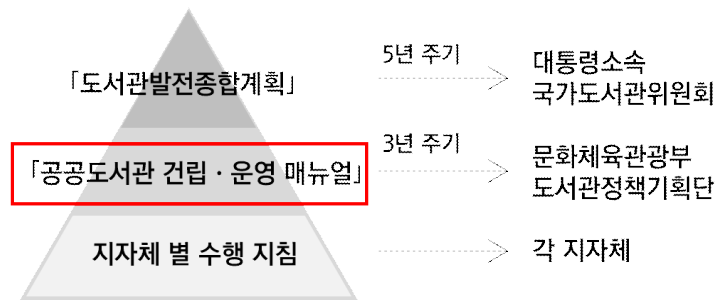
시기 구분	년도	내용
1980년대 이전	1906	‘도서관’ 용어가 등장하며 건립이 추진되나 무산됨. 해방 전까진 일제에 의해 여러 시도가 무산되고, 해방 이후로는 전쟁으로 인해 진행되지 못함.
	1963	국내 최초의 도서관법 개정.
	1960~1980	경제성과 국가 안보를 중시.
1980-1990년대	1980~1987	군사정권 시기에 스포츠와 향락주의가 만연.
	1987	24년 만에 도서관법 전면 개정.
	1991, 1994	도서관법이 구체적으로 추가 개정되며 공공도서관 육성화 본격화.
2000-2009년	2003	‘기적의 도서관’이 등장하며 관심도 급증.
	2006	도서관법 전면 개정하며 조직 개편 및 구성.
	2007	대통령소속 국가도서관위원회 설립.
	2008	1차「도서관발전종합계획」발간. 공공도서관 건립·운영 컨설팅 시행.
2010년-현재	2010	「2010공공도서관 건립·운영 매뉴얼」발간.
	2013	「2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 「2013 공공도서관 건립·운영 매뉴얼」발간.
	2016	「2016 공공도서관 건립·운영 매뉴얼」발간.
	2017	공공도서관 예산 1조 원 시대 도입.
	2019	「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 「2019 공공도서관 건립·운영 매뉴얼」발간.
	2021	도서관법 전면 개정.
	2023	「2022 공공도서관 건립·운영 매뉴얼」발간.

〈표 2-1〉 연도별 공공도서관 제도의 역사 종합



### 2.1.2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목표

우선 국내 도서관 분야 최상위계획인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을 고찰하여, 현재 도서관의 비전과 목표를 확인한다.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은 모든 관종을 아우르는 국가계획으로 강제력은 없으나 법에 준하는 효력이 있다고 한다.<sup>22)</sup> 지속 가능한 도서관으로 발전하기 위해 2019년부터 현재까지 시행 중인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은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과 호응하는 도서관 재구조화의 당위성을 언급하며, 이를 위한 ‘사람 중심’ 개념에 주목한다.<sup>23)</sup> 그뿐만 아니라 다양화되는 이용자의 욕구와 과도한 개인화에서 비롯된 공동체와 지역의 붕괴를 오늘날 도서관의 환경으로 언급하며,<sup>24)</sup> 이와 관련된 정책적 과제들을 두 가지 차원에서 제시한다. 먼저 개인적 차원으로 전반적인 시민의 정보, 문화 서비스를 확대하고, 이용자들을 조사, 연구하여 생애주기 맞춤형 도서관을 제공하며, 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한다.<sup>25)</sup> 공동체적 차원으로는 공공도서관의 공간을 통해 지역사회 공동체 형성과 사회적 연대강화가 가능하도록 노력해야 함을 피력한다.<sup>26)</sup> 종합적으로,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은 기존에 도서관의 서비스나 장서 또는 시설의 확장을 중요시하던 관점에서 이용자, 즉 도서관을 이용하는 개인과 공동체를 중심으로 두는 것으로 발전했다.



〈그림 2-3〉 공공도서관의 단계별 지침과 주체  
(출처: 최혜조&백진.(2023).)

22) 계획의 성격에서 이를 설명한다.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2019). 제3차 도서관발전 종합계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11.

23) 계획의 추진 배경에서 이를 언급하고 있다. Ibid. 10.

이처럼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은 도서관 정책의 방향과 비전을 제안하며 전반적인 체계를 구축하기 때문에 도서관 건립에 영향을 준다. 실제로 건립 지침인 「공공도서관 건립·운영 매뉴얼」은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을 근간으로 두어 건립의 법적 근거와 당위성을 명확히 한다고 말한다. 또한 「공공도서관 건립·운영매뉴얼」은 다시 이보다 하위 단계에 해당하는 지자체 공공도서관들 실행 계획의 기반이 된다(그림2-5). 이러한 삼각형 체계를 형성하고 있으므로 가장 상위 단계에 해당하는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이용자 중심 도서관 방향성은 하위 모든 도서관의 방향과 틀로서 작용하게 된다.

---

24) 특히 국가가 직면한 문제를 진단하며 공동체와 지역의 붕괴를 언급하고 있다. Ibid. d. 24, 26-27.

25)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Ibid. 37-53

26) 공공도서관에 대해 “지역주민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통합과 연대를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지역사회의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라고 말한다. Ibid. 38-53, 61-62.

## 2.2 이용자 중심 디자인의 이론적 고찰

### 2.2.1 이용자와 이용자 중심 디자인의 개념 고찰

이용자 중심 디자인 이전에, ‘이용자’가 누구인지 먼저 정의하고자 한다. 본래 이용자란 어떤 물건이나 시설,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을 의미한다.<sup>27)</sup> 일반적으로 공공도서관의 이용자는 공공도서관의 최종적인 사용자로서 개관 이후 방문하는 사람들을 말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더 넓은 의미의 ‘이용자’ 범위를 선정하고자 한다. 신승수(2014)는 사용자들의 요구를 도서관의 디자인 과정, 특히 기획과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하며, 이 때 사용자란 공간을 사용하는 인근 주민이나 거주자 외에도 “개발업자, 주변 지역 학교 관계자, 각종 커뮤니티 운영자, 지방정부 및 중앙정부, 건축가, 도시 설계자, 조정가, 실내 건축가, 민간 파트너십의 이해관계자 등 해당 공공건축 혹은 공공 공간과 관계되는 포괄적 의미의 사용자 모두를 의미”<sup>28)</sup>한다고 말한다.

이러한 관점을 참고하여 본 연구에서도 이용자의 유형을 크게는 직접적인 이용자와 간접적인 이용자로 나누고, 이를 다시 세부적으로 구분하였다. 직접적인 이용자는 일반 시민과 행정 및 운영관계자로 이들은 도서관 건립과정에 참여하며 동시에 사용하기도 하는 이용자이다. 간접적인 이용자는 건축 관련 전문가와 기타 전문가로 이들은 기존에 본래 이용자로서 가지고 있던 지식 또는 경험을 전문적인 관점에서 건립과정에 반영한다. 간접적 이용자들은 이 과정에서 직접적인 이용자와 소통하며 협의하기도 한다(표2-2). 본 연구는 이처럼 건축과 공간 디자인을 위한 과정에 참여하는 모든 관계자를 포함하여 ‘이용자’라고 정의한다.

---

27) 표준국어대사전 참고.

28) 신승수 외 2인. (2014). *슈퍼라이브러리*. 사람의무늬. 서울:성균대학교 출판부. 285.

	구분	유형별 상세 이용자 목록
직접적	일반 시민	도서관 방문자, 인근 거주자, 지역 예술가, 지역 생활권 관련 업종 관계자 등
	행정 및 운영 관계자	도서관 사서, 민간 운영자, 지역 내 도서관 부서 행정 직원, 시장 등
간접적	건축 관련 전문가	건축가, 실내 건축가, 조경가, 개발 및 시공사 등
	기타 전문가	도서관 전문가, 자문위원, 도서관 관련 단체 등

〈표 2-2〉 이용자 유형 및 유형별 상세 도서관 관련 이용자

그렇다면 이용자 중심이 오늘날 공공건축의 주요 사항이 된 이유는 무엇일까? 그 배경은 변화한 이용자의 역할과 특성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이용자는 과거에 소극적이었던 것에 비해 현재는 적극적으로 전환되었다. 건축 이론가 힐(Jonathan Hill)의 연구<sup>29)</sup>를 인용한 김세영(2013)은 사용자의 개념을 세 단계의 시기별로 나누어 설명한다. 공간의 의미나 용도를 변경할 수 없는 공간의 수동적 주체였던 사용자가 시간이 지나며 제한된 범주 내에서 공간의 물리적 성격을 수정할 수 있는 주체자가 되어 공간을 재해석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오늘날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모습으로 변화했다고 말한다.<sup>30)</sup> 이용자가 공간의 주체가 되며, 자연스럽게 공공건축에서 가장 고려해야 할 요소 중 하나가 ‘이용자 중심 디자인’이 되었다.

29) Jonathan Hill. (2003). Actions of Architecture. Routledge.

30) 김세영. (2013). 사용자 중심의 공공성 실현을 위한 공공도서관의 공간 계획 및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22(3), 53.

## 2.2.2 이용자 중심 디자인의 중요성

공공건축에서 ‘이용자 중심’ 디자인을 중요시하는 흐름은 선행연구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백선경(2022)은 이용자 중심의 중요성을 미국의 사례를 통해 언급하며 “Good Places를 위한 주요 조건은 이용자가 서성거리는 불확정적 공간이 아닌 이용자 수요에 맞는 적절한 공간구성, 운영, 안전, 편의성과 커뮤니티를 고려하는 계획을 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유사하게, 임유경(2021)은 “공공건축이 지향해야 하는 목표는 공간과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최적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공공건축 품질 향상을 위해서는 최종 수요자인 이용자 관점에서 공공건축 문제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한다.

이러한 패러다임이 지속되자 오늘날 공공공간 또는 공공건축은 공급 주체보다 사용 주체인 이용자를 더 중요시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정부 차원에서도 이용자 중심이라는 개념에 중점을 두게 되었다. 변기동(2021)은 공공공간의 넓은 의미를 “사용 주체를 중심으로, 공적으로 일상생활에서 이용하는 공간을 지칭한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경연(2022)은 공급 주체의 일방적인 공공건축 계획으로 인한 한계를 언급하며 “지역과 주민 주도로 생활과 밀접한 공간을 중심으로 공공성 회복을 유도하는 다양한 사업이 시도되고 있다”라고 국토교통부의 추진 전략을 인용한다.

종합하자면, 과거 공간에 수동적이며 소극적이었던 이용자가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개념으로 변화하였다. 그에 따라 공간의 주체로 자리 잡은 이용자는 공공건축이 주목해야 할 요소가 되었고, 오늘날 이용자 중심 디자인이 공공건축의 주안점 중 하나가 되었다. 그러므로 이는 특정 정책 혹은 집단에서 비롯된 현상이 아닌 시간이 흐르며 시민들의 문화를 대하는 태도와 생활양식이 변화했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즉, 자연스러운 시대적 흐름에 따른 요구라고 볼 수 있으며, 공공건축 중 하나인 공공도서관도 이에 맞춰 함께 발전해야 한다.

## 2.3 이용자 중심 디자인 유형 도출과 분석의 틀 설정

현재 이용자 중심에 대해 다루거나 공공도서관을 다루며 이용자를 중요시해야 한다고 언급하는 연구들은 다수 있었으나 연구자마다 해석하는 관점이 달라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이용자 중심 디자인 유형을 도출하였다.

이용자 중심 디자인 유형	저자	년도	제목
이용자 중심 디자인 공간 구성과 요소	강재중	2019	공공도서관의 기능변화에 따른 건축공간구성에 관한 연구
	고재민	2012	공공도서관의 복합화 경향에 관한 연구
	고흥권	2017	공공도서관 열람실 서가면적비율에 관한 연구
	김승연	2023	지역대표도서관의 공간구성 및 특성에 관한 연구
	김미선	2019	시민참여와 공공디자인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도시 재생 사업을 중심으로-
	송승연	2011	공공도서관 복합화에 따른 공간의 구조적 변화에 관한 연구
	김현오	2020	최근 국내공공도서관의 공간구성 변화에 관한 연구
	류태현	2013	공공도서관의 복합화 유형별 특성에 관한 연구
	정태권	2022	공공도서관 내 열람공간의 개방성 연구 - 서울특별시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
	최은희	2022	공공도서관 시대별 공간구성변화와 특성에 관한 연구
이용자의 직·간접적인 참여 반영	김세영	2013	사용자 중심의 공공성 실현을 위한 공공도서관의 공간 계획 및 특성에 관한 연구
	김주성	2022	공공도서관의 새로운 역할에 따른 공간계획 특성에 관한 연구
	백선경	2022	이용자 관점에서 본 공공건축 기획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서동진	2016	장소 정체성을 위한 도시 공공공간 유형 연구
	신남희	2022	다 함께 행복한 공공도서관
	이화성	2022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공공도서관 공간특성에 따른 이용자행태에 관한 연구
	임유경	2021	이용자 관점에서 본 공공건축 연구: 국민체육센터

	임은영	2022	이용자 관점에서의 공공도서관 디지털자료실 실내디자인에 대한 선호도 연구
	임준범	2009	지역공공도서관 이용자 요구에 따른 공간구성방향에 관한 연구
지역 커뮤니티 및 도시와의 연계 고려	변기동	2021	문헌고찰을 통한 공공공간디자인의 연구 경향 분석
	반자연	2020	공공도서관의 사회적 인프라기능을 위한 공간계획 요소 연구: 국내외 주요 공공도서관 시설계획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배동식	2022	공공도서관의 사회적 역할 변화에 따른 공간구성에 관한 연구 -대구광역시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신승수	2009	영국 공공 도서관 프로젝트의 커뮤니티 기반 공공성 구현에 관한 연구
	신승수	2014	슈퍼라이브리리
	이경연	2022	도시 공공공간의 공공성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계획요인에 관한 연구
	정구현	2021	건축이 지닌 공공성에 대한 연구

〈표 2-3〉 이용자 중심 디자인 또는 공공도서관 관련 연구 분류

### 2.3.1 이용자 중심 디자인 공간구성과 요소 적용

먼저 공간구성이나 요소 또는 프로그램의 변동으로 이용자 중심 디자인의 공공도서관을 해석하는 연구를 살펴보았다. 송승언(2011)은 한정된 공간 내에서 운영프로그램이 증가함에 따라 공공도서관의 변화가 발생했고, 공간을 주프로그램과 부프로그램에 따라 나누며 복합화 개념이 등장하게 되었다고 한다. 연구자는 이를 방문자, 관리자, 공용이라는 사용자 기준으로 공간구성 요소를 분류하고 분석의 틀로 설정해 연구를 진행한다. 그 결과 “공공도서관 사용자의 중심은 관리자, 방문자, 공용 순위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공용, 방문자, 관리자 순위로 일관적으로 바뀌었다”라고 말한다. 강제중(2019)은 시애틀중앙도서관과 국내 지역대표도서관의 비교를 통해 공공도서관의 건축 공간구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국내 공공도서관들은 “공공도서관의 공간구성을 위한 새로운 프로그래밍이 제대로 시도되지 못하고 단순히 각각의 기능별 독립공간을 조합하는 형태로 계획”이라며, “이용자 중심의 다양한 기능들을 복합화 시킬 수 있는

공간연출...”을 필요로 한다고 말한다. 정태권(2022)은 공간의 깊이와 접근도로 공공도서관 열람 공간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공공도서관의 열람 공간은 입구로부터 가까운 곳에 배치되고 관리자와 방문객의 영역이 통합된 사용자 중심 공간이 되고 있음”이라 한다. 연구자는 이러한 변화가 다양한 열람방식과 공간구성을 나타나게 할 것이라 말한다. 종합하자면, 기존에 자료나 기능 중심이었던 공공도서관 공간의 구성과 요소들을 이용자 중심으로 전환해 공공도서관 공간 복합화와 도서관의 다양한 역할 부여를 가능하게 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이용자 중심 디자인의 공공도서관 공간구성 구현은 공용공간을 중요시하는 것, 기능 중심에서 벗어나는 것, 구분된 영역들이 통합되며 공간을 다양하게 생성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즉, 복합화와 개방성과 같은 새로운 요소들을 도서관 건축에 반영하여 시대의 흐름과 변화에 따른 이용자의 요구와 특징들을 수용하는 공공도서관 공간구성이 되어야 한다<표2-2>.

세부 요소	종합적 특징
-이용자 기준의 공간구성과 복합화	자료나 기능 중심에서 이용자 중심으로 공간구성과 요소 변화
-공용공간의 중요성	
-기능별 독립공간의 조합 형태 지양	
-관리자와 이용자 영역의 통합	
-다양한 열람방식과 공간구성	

<표 2-4> 이용자 중심 공공도서관의 공간구성과 요소 특징

### 2.3.2 이용자의 직·간접적인 참여 반영

다음은 실질적인 이용자의 다양한 참여를 반영한 공공도서관을 이용자 중심 디자인이라 해석하는 연구와 자료를 살펴보았다. 이화성은(2022) 이용자의 요구가 공공도서관 공간에 반영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먼저 이용자의 계층과 행태를 분류하고 실제 공공도서관에서 관찰하며 이용자의 선호도를 도출하였다. 그는 “도서관의 프로그램과 경영방침은 사회적 역할에 발맞춰 발전하는 반면에, ...다양한 이용자행태와 사회적 요구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한다.



신남희(2022)는 저서에서 건립과정에 이용자가 직접 참여한 구산동 도서관 마을 사례를 묘사하며 “시민의 힘으로 도서관을 만들면 지역공동체에 대한 자부심이 높아지고 애향심이 생기며, 시민들이 도서관의 고객이 아니라 주인이 될 수 있다. 시민이 도서관의 주인이 될 때, 도서관은 마을의 중심이 되고 공동체의 자산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한다. 임은영(2022)은 이용자 특성에 맞는 공공도서관 내 디지털 자료실을 위해 이용자를 연령별 분류하고 설문지로 선호도 조사를 실행하여 이에 대응하는 공간계획방안을 제시한다. 연구자는 선행연구에서 이용자와 비 이용자의 도서관 이용 목적의 조사 결과가 다름을 언급하며, 이들을 대상으로 공간계획 선호도를 조사해 이용을 촉진하는 공간구성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밝힌다. 종합하자면, 이용자 중심 디자인의 공공도서관은 이용자의 수요 조사와 참여를 반영하여 구현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전문가가 이용자의 요구나 선호도를 조사하거나 공간에서 발생하는 행태를 관찰하여 공간에 반영하는 것, 또는 적극적으로 이용자가 직접 건립에 참여하는 방향을 통해 진행될 수 있다. 즉, 이용자들의 직·간접적인 참여를 공간에 반영하여 오늘날 이용자 중심 공공도서관을 조성할 수 있다(표2-3).

세부 요소	종합적 특징
-이용자 행태 공간에 반영	실제 이용자의 요구와 선호도를 반영
-이용자의 건립과정 내 직접적인 참여	
-이용자의 요구나 선호도 조사	

〈표 2-5〉 이용자 중심 공공도서관의 이용자 의견 반영 특징

### 2.3.3 지역 커뮤니티 및 도시와의 연계 고려

이용자 중심의 공공도서관을 개인에서 집단이나 도시로 확장하여 설명하는 연구와 저서를 살펴보았다. 신승수(2014)는 도서관이 단순히 정보를 대하는 공간이 아니라 도시의 거실이라고 말하며 “개별적인 건축물의 디자인에 앞서, 우리 삶에 있어서 도서관이라는 문화공간의 의미와 가치는 무엇이며, 우리 도시의 어디에 위치해야 하며, 또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사회적 질문과 고민이 없다면...”이라고 말하며 오늘날의 공공도서관은 개별 도서관을 넘어

다른 시설이나 도시와의 네트워크에 관한 고려가 필요함을 말한다. 반자연(2020)은 도서관이 사회적 인프라가 되어야 사회적 기능을 수용하며 오늘날 이용자의 삶의 기반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말한다. 연구자는 “공공도서관의 물리적 시설이 지원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 시설로서 기능을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지역 정체성 확립 및 강조, 친환경 기능의 활용, 새로운 기술의 적용 및 교육”이라 설명한다. 배동식(2022)은 이용자들의 생활양식에 따라 공공도서관의 역할이 변화했으며 이에 공간구성과 면적구성도 다양해져야 함을 언급한다. 이때 공공도서관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건축적 구성 중 하나로 도시와의 관계를 말한다. 연구자는 “도시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계획적 요소는 접근성, 개방성, 연계성으로 정의된다. 접근성은 이용자들이 물리적·시각적으로 사용 공간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도이다. 개방성은 입체적 공간 내부의 개방도와 공간의 시각적 투명성에 의한 심리적 개방의 정도이다. 연계성은 복합화된 공공도서관의 다양한 기능 및 공간 간의 연계를 나타낸다.”라며 강재중(2014)의 연구를 인용해 세 가지 요소를 언급한다. 종합하자면, 공공도서관의 이용자를 개인의 범주를 넘어 공동체로 확장해 도시와 연계하여 이용자 중심 디자인의 공공도서관을 조성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도시의 맥락과 구조에 대응하는 공공도서관의 사회적 역할을 고려하고, 그에 상응하는 건축적 요소를 구축하여 건립하는 것이다. 즉, 공공도서관이 지역 주민들과의 커뮤니티나 주변 상업, 문화 시설과의 네트워크를 고려하는 공간으로 발전하는 게 점차 필요시 된다(표 2-4).

세부 요소	종합적 특징
-개별 한 개관이 아닌 도시 구조와 연계 고려	지역 커뮤니티나 도시와의 네트워크 고려
-공공도서관의 사회적 인프라 역할	
-접근성·개방성·연계성과 같은 건축적 구성 설정	

〈표 2-6〉 이용자 중심 공공도서관의 지역, 도시와의 연계 고려 특징

본 연구는 이용자 중심 디자인 공공도서관의 유형을 이렇게 세 가지로 설정한다. 이렇게 파악한 유형을 분석의 틀로 적용하여, 실질적인 공공도서관 건립 내 이용자 중심 디자인의 반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공공도서관 건립·운영 매뉴얼」 내 공공도서관 통합디자인 항목을 분석해 본다.

이용자 중심 디자인 공공도서관의 유형	이용자 중심 디자인 공공도서관의 세부 특징
㉠ 이용자 중심으로 공간구성과 요소 변화	-이용자 중심 공간구성 -공용공간 중시 -기능 중심 지양 -공간 영역의 통합을 통한 다양한 열람방식
㉢ 이용자의 직·간접적인 참여 반영	-이용자 행태 수용 -이용자 요구와 선호도 조사 -이용자의 직접 참여
㉡ 지역 커뮤니티나 도시와의 연계 고려	-도시 구조와 연계 고려 -사회적 인프라 역할 -접근성·개방성·연계성과 같은 건축적 설정 제시

〈표 2-7〉 이용자 중심 공공도서관 유형과 각 유형별 특징

(출처: 최혜조&백진. (2023).)

## 제 3 장 이용자 중심 디자인으로 본 「공공도서관 건립·운영 매뉴얼」 내 ‘공공도서관 통합디자인’

### 3.1 「공공도서관 건립·운영 매뉴얼」 내 ‘공공도서관 통합디자인’

#### 3.1.1 「공공도서관 건립·운영 매뉴얼」의 현황

본 연구의 대상인 「공공도서관 건립·운영 매뉴얼」은 현재 2022년도 매뉴얼을 따르고 있으며, 실질적인 건립을 위한 기준을 제시하는 지침이다. 도서관법과 한국도서관기준이<sup>31)</sup> 본래 공공도서관 건립의 기본이라 언급되지만, 현실적으로 적합하지 않아 「공공도서관 건립·운영 매뉴얼」에서 지자체의 공공도서관 건립과정을 위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sup>32)</sup> 「공공도서관 건립·운영 매뉴얼」은 공공도서관의 건립과정뿐만 아니라 운영시스템을 포함한 총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도서관의 운영자부터 건축설계 및 인테리어 업체와 지자체들과 같은 모든 건립 관계자들이 참고하는 도서이다. 해당 매뉴얼은 현재 법적 필수 참고도서로 지정되지 않고, 건축설계 공모 시 참고사항으로 제공되고 있다. 하지만 매뉴얼 내 일부 내용이 도서관법상 필수 항목으로 지정되고, 건립·운영 컨설팅을 일부 내용에서 다루며 컨설팅을 신청한 도서관 건립 관계자들이 중요시 고려하는 등<sup>33)</sup> 그 위상이 점차 상승하고 있다. 이처럼 점차 도서관 제도나 법이 개선됨에 따라 점진적으로 비중이 높아질 수 있어, 현시점에서 이를 분석하고 파악해 개선을 도모하는 연구가 필요시 된다.

31) 한국도서관협회에서 2013년에 발간한 기준으로 현재까지 이를 적용하고 있다.

32) 도서관정책기획단. 2022 공공도서관 건립·운영 매뉴얼. 문화체육관광부. 2023, p.3

33) 본 연구 주제인 4장 공공도서관 통합디자인에서 다루지는 않지만 2장 공공도서관 건립체계에서 ‘타당성 사전평가’에 대한 안내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2022년도 도서관법 전면 개정에 따라 공공도서관 건립 시 필수 단계로 지정되었다.

매뉴얼의 구성은 총 4개의 장으로 되어 있으며, 1장 공공도서관 건립기준, 2장 공공도서관 건립체계, 3장 공공도서관 운영계획, 4장 공공도서관 통합디자인으로 구성되어있다. 본 연구는 이 중 공공도서관 통합디자인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공공도서관 건립·운영 매뉴얼」의 제작에 참여한 관계자<sup>34)</sup>에 따르면 본래 의미하고자 하는 ‘통합디자인’이란, 도서관 운영프로그램과 그에 따른 이용자 분석과 장서 계획, 건축과 인테리어 디자인 그리고 LI(Library Identity) 디자인 및 사인(Sign) 계획까지 모두 개별적으로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적으로 계획하여 하나의 공공도서관을 완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한다.<sup>35)</sup> 실제 매뉴얼의 장 구성상에서 운영과 서비스에 관한 부분은 3장 운영계획에서 따로 다루고 있으므로 이를 제외한 모든 건축 관련 지침은 4장 공공도서관 통합디자인에서 다루고 있다. 따라서 공공도서관의 건축설계 단계 이전, 계획 단계에서 먼저 설정되는 이러한 지침들을 확인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매뉴얼로서 잘 작동할 수 있게 하며 이것이 본 연구의 목적에 해당한다.

공공도서관 통합디자인의 이해와 배경을 위해서는 먼저 2장의 공공도서관 건립체계 내용을 간략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는 통합디자인이 건립체계인 1) 준비 및 기획 단계, 2) 기본계획 단계, 3) 공모 및 통합설계 단계, 4) 건설 및 구축 단계, 5) 개관 준비 단계 중 두 번째인 기본계획 단계 내에 본래 속해 있기 때문이다(그림3-1).

기본계획단계란 프로젝트의 실질적인 착수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이다. 기본계획단계 이후 공모 및 통합 설계가 진행되기 때문에 사실상 계획안들의 방향과 성격을 정하고 결과적으로 최종 프로그램 영향을 미친다. 즉, 도서관 건립과 설계 공모의 중요 자료로 활용된다.<sup>36)</sup> 다시 말해, 기본계획단계는 바로 다음에 진행되는 통합설계<sup>37)</sup> 단계에 큰 영향을 주는, 설계 이전 건축

34) 본래 2023년 2월 22일에 대면으로 인터뷰했으나, 해당 내용은 4월 19일에 간략하게 추가 질의를 하여 받은 답변을 토대로 기재하였다.

35) 이는 「공공도서관 건립·운영 매뉴얼」에서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해당 매뉴얼 개발 관계자를 통해 확인한 부분이다.

36) 도서관정책기획단. 2023. p.54

37) 통합설계란 건축설계업체와 인테리어 업체 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건축분야, 인테리어 분야 간 공동도급방식으로 응모하는 것을 말한다. 즉, 이는 일반적인 건축설

계획이라고 유추할 수 있다. 연구의 대상인 4장 공공도서관 통합디자인 항목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러한 기본계획단계 일부이므로, 통합디자인을 자세히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공공도서관의 건축 계획을 파악할 수 있다.



〈그림 3-1〉 「공공도서관 건립·운영 매뉴얼」의 구성  
(출처: 최혜조&백진.(2023).)

### 3.1.2 연도별 공공도서관 통합디자인 변화

「2022 공공도서관 건립·운영 매뉴얼」의 통합디자인을 고찰하기 전, 먼저 2010부터 2019까지 발간된 4권의 매뉴얼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통합디자인의 주요 변화 추이를 파악하였다.<sup>38)</sup>

먼저 2010년은 매뉴얼이 처음 발간되었기 때문에 규모와 면적, 좌석과 같은 건립기준에 관한 사항들과 건축 지침들이 다소 섞여 있는 모습을 보인다. 또한 건축 지침 외에도 시공과 설비, 조경에 관한 사항이 함께 묶여 3장 공공도서관의 시설계획이라는 항목으로 제시되고 있다. 도서관의 9가지 역할과 이를 반영한 기능별 공간구성을 제시하고 있었으며, 부가적으로 사인 계획을 명시한다. 전반적으로 공간별 디자인적 측면 보다는 좌석과 규모 그리고 이에 따른 면적 비율과 같은 양적인 측면에서 서술된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2013년은 2010년과 거의 유사한 양상이었지만 일부 순서나 사용하는 용어를 변경하거나, 면적의 비율의 근소한 차이들을 보이고 있었다. 공간구성 분류

계 단계와 같다고 볼 수 있다. 도서관정책기획단. 2023. p.58.  
38) 각 매뉴얼별로 상세하게 비교 분석한 사항은 Appendix C에 정리하였다.

기준은 2010년과 동일하며 세부적으로는 일부 공간들이 서로 합쳐지고 분류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기존의 면적, 장서 그리고 좌석의 산출되는 방식을 구체화하는 등 전반적으로 과도기적 성향을 보였으나, 기본적인 매뉴얼이 취하고 있는 방향성은 2010년과 동일하였다.

2016년은 전체 매뉴얼의 과정 중 가장 많은 것이 변경된 연도이다. 우선 현재 사용하는 통합디자인이란 용어가 매뉴얼 상에 처음 등장하며 건축과 인테리어를 포함한 내부 공간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에 따라 기존에 합쳐져 있던 시공과 설비 관련 사항들이 모두 개별 장으로 분류된다. 또한 공공도서관 공간의 방향성이나 각 구성 별 세부 공간들에 관한 건축적 제안들이 대거 추가되었다. 기존까지 동적인 공간을 지향하는 것에서 개방형 공간을 지향하는 것으로 변경되며 오픈플랜이 처음으로 등장하기도 한다. 또한 처음으로 LI 개발이 등장하며 매뉴얼에서 공공도서관의 정체성에 관해 고려하는 모습을 보인다. 전반적으로 기술과 양적 기반의 매뉴얼을 제시하던 것에서 계획과 질적 기반의 매뉴얼로 바뀌며 많은 변화와 추가 사항들이 등장했다.

마지막으로 2019년은 무엇보다 같은 해에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이 발간되고, 공공도서관이 생활 SOC로 선정되는 등 공공도서관 관련 정책들의 변화가 있어, 이에 맞춰 매뉴얼도 개정되었다. 또한 2016년도에는 인테리어가 등장한 정도였다면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이를 부각하며 건축과 인테리어의 컨소시엄과 통합을 강조한다. 운영, 건축, 인테리어의 통합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하나의 아이덴티티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해 통합디자인의 의미를 담아내고자 한다. 하지만 이처럼 공간 내부 디자인에 집중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외부와 시공 및 설비가 소외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그 외에도 공간의 편의성과 개방감을 전체적으로 지향한다. 전반적으로 2016년도의 내용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고 이를 기반으로 당시 정책에 맞춰 구체화하였다.

### 3.1.3 소결: 통합디자인의 키워드 도출

이처럼 2010년부터 2019년도까지 발간된 4권의 분석을 통해 현재 공공도서관 통합디자인에 해당하는 항목을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크게 4가지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었다.

먼저 공공도서관의 필요기능은 도서관의 역할에서 기능으로 틀이 바뀌었으나, 사실상 이에 해당하는 내용은 2010년부터 변하지 않고 유지되고 있다. 또한 이를 기준으로 하는 공간구성도 약 10년간 변함없이 지속되는 양상이었다. 매뉴얼의 과업 방향 같은 경우 초반에는 시공과 설비를 중시했으나, 2016년을 기준으로 비중이 현저하게 감소하다 결국 삭제되었다. 대신 인테리어가 새로 등장하고 부각되는 양상을 띠게 된다. 이러한 과업을 수행하는 구성원 중 하나 이던 장래 이용자도 2016년도에 삭제되며 전문가 구성원으로 변경되었다. 또한 공간계획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장서 수, 좌석 수, 면적 비율과 같은 양적인 기준에서, 영역을 설정하고 해당 범주 내 공간들의 융합과 연계에 중점을 두게 되었다. 공간의 배치는 동적인 공간에서 2016년부터 오픈플랜이 등장하며 개방형 공간을 지향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도서관의 마감재나 색채와 같은 위계였던 사인 계획이 발전해 2016년부터 통합이미지가 등장했다. 이러한 주요 사항들을 종합해 공간구성과 기능, 과업 수행 계획, 공간 배치 및 계획, 통합이미지 개발, 네 가지를 통합디자인의 키워드로 도출하였다(그림 3-2).



〈그림 3-2〉 통합디자인의 주요 변화 추이와 키워드 도출

(출처: 최혜조&백진.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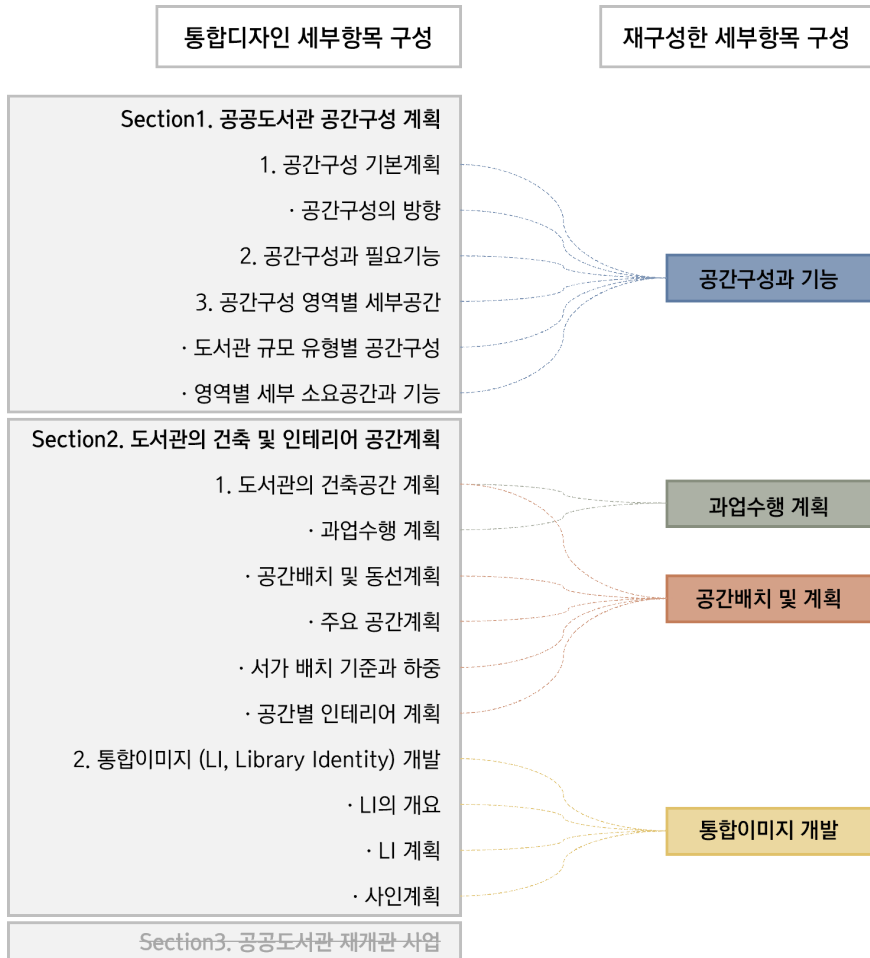


## 3.2 ‘공공도서관 통합디자인’ 내 이용자 중심 디자인 반영 분석

### 3.2.1 2022 공공도서관 통합디자인 재구성

「2022 공공도서관 건립·운영 매뉴얼」의 4장 ‘공공도서관 통합디자인’은 크게 1. 공간구성 계획, 2. 건축 및 인테리어 공간계획 그리고 3. 공공도서관 재개관 사업 세 가지를 다루고 있다. 세 가지 중 마지막 공공도서관 재개관 사업은 건축 계획적인 측면을 다루는 다른 두 가지와 내용의 위계가 다르고, 연구 주제와 연관성도 없다고 판단되어 본 연구에서 다루지 않는다. 공간구성 계획과 건축 및 인테리어 계획에서 다루고 있는 세부 항목들은 통합디자인의 연도별 변화 양상을 통해 도출한 네 가지 키워드로 재구성하였다(그림3-3). 항목의 키워드와 내용들을 통해 통합디자인에서 사실상 건축공간 계획에 해당하는 단계들을 대부분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통합디자인이라는 명칭의 연혁을 통해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통합디자인의 명칭은 본래 2013년도까지 공공도서관 시설계획이었다. 공공도서관 시설계획은 현재 통합디자인에서 다루는 항목에 환경설비까지 더해 매뉴얼 내 건축, 시공과 관련된 모든 부분을 담고 있었다. 2016년도에 많은 변동이 생기며, 에너지, 시공, 설비계획 항목들이 시설계획이라는 장 내에 따로 분리되었고, 남은 내용들은 공공도서관 통합공간디자인계획이라는 현재와 유사한 명칭을 가진 장이 등장하며 해당 장의 하위 항목으로 포함된다. 2019년부터 현재와 같은 공공도서관 통합디자인이 되었고, 따라서 현재 통합디자인은 시공과 설비를 제외한 건축공간의 계획과 관련된 부분들을 담고 있으며, 이를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그림 3-3〉 통합디자인 세부 항목 재구성 과정  
(출처: 최혜조&백진. (2023).)

### ① 공간구성과 기능

공간구성과 기능은 먼저 공간구성의 방향성부터 간략하게 언급하고 있다. 공공도서관 공간구성의 방향성은 창의적인, 경계없는, 전문적인, 지속적인, 능동적인으로 다섯 가지이며 이는 “도서관 이용자 개개인의 필요와 목적에 도서관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도서관 공간계획 방향에 대한 기본틀”이라고 말한다.<sup>39)</sup> 따라서 공간구성은 이용자를 위한 공간계획을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후 필요기능에서는 자료의 이용, 자료의 보관, 자료의 대출,

자료 참고 및 정보서비스, 전시 및 집회, 장애인·노인·임산부 편의, 이용자 편의, 유아·어린이 고려, 직원 업무 및 기타 기능으로 총 아홉 가지를 언급한다. 이러한 기능을 중심으로 조합하여 공간구성도 자료이용공간, 문화교육공간, 업무관리공간, 공용공간, 기타로 나누고 있으며 각각 세부 소요 공간과 공간별 기능을 명시하고 있다.

## ② 과업 수행 계획

과업 수행 계획은 건축공간 계획의 수행 주체와 이들이 고려해야 할 사항들에 관해 설명한다. 내부 공간계획 시 건축과 인테리어 업체가 컨소시엄을 이루어 수행 주체가 된다. 여기에 건립추진조직 내 총괄계획가, 건축담당자, 사서담당자를 더해 협의와 회의를 진행하여 주요 내용을 결정한다.<sup>40)</sup> 매뉴얼에 따르면 건립추진조직이란 “공공도서관 건립을 위한 추진업무나 일정의 진행, 건립 사업의 자문을 위한 시행 부처의 담당 공무원을 포함한 전문가 조직”이다.<sup>41)</sup> 통합디자인을 포괄하는 기본계획단계에서 해당 조직을 구성하며, 도서관 건립 총괄계획가<sup>42)</sup>, 지자체 도서관 건립 TF팀, 도서관 건립 전문가 자문위원회, 입지선정위원회, 자료선정위원회로 구성된다(그림5). 건축공간 계획은 이러한 전문가 조직의 회의를 통해 결정된다. 이때, 이용자의 목적에 따른 복합적인 행위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용자들이 신속, 정확하게 필요한 영역으로 이동해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통합적인 차원에서 운영, 건축, 인테리어의 공간구성을 추진하는 것을 고려한다. 또한 해당 공공도서관이 하나의 아이덴티티를 갖도록 가구와 실내 요소도 공간과 전체적인 통일성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sup>43)</sup>

39) 도서관정책기획단. 2023. 148.

40) Ibid. 1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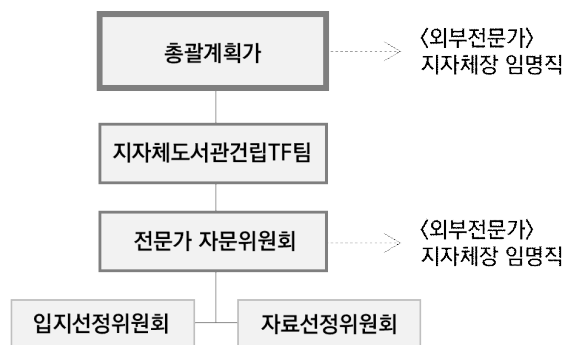
41) 기본계획단계의 세부 계획으로 건립추진조직 결성이 있다. 도서관정책기획단. 2023. p.55.

42) 총괄계획가란 건축을 중시하는 공공 건축가와 다르게 도서관 건립을 위한 총괄계획가로, 건축과 도서관 모두를 다루는 전문가이다.

43) 사실상 이것이 통합디자인의 의미라고도 볼 수 있다. 도서관정책기획단. 2023. p.157.

### ③ 공간 배치 및 계획

공간 배치 및 계획에서 먼저 공간 배치는 오픈플랜으로 구성하며, 단독 개인학습실은 배제하고 학습공간을 열람 공간에 포함한다고 말한다. 또한 열람 좌석과 자료 서가를 연계해 계획하고, 여러 가지 열람 행태를 권장하며, 내부 공간의 파악이 용이하도록 시야를 가리지 않는 등 개방성을 전반적으로 강조한다. 구체적으로 주요 공간계획을 살펴보면, 일반자료공간에서 “수평적, 수직적으로 개방감 있는 공간을 구성한다”라고 하며, 연속 간행물 공간에서는 카페와 같은 공간과 융합해 확장할 수 있다고 말한다. 문화교육 공간에서는 “집단 활동하는 하나의 영역을 실로 이해하여 개방형 공간을 조성한다”라는 내용이 있고, 다목적실은 “로비와 홀을 활용해 최대한 열린 공간으로 계획한다”라고 언급한다. 공용공간 중 북카페는 “북카페를 곳곳에 배치하여 자유로운 개방형 공간을 조성”한다는 내용 등등이 있다.<sup>44)</sup> 전반적으로 융합과 연계를 통한 개방성을 중시하는 모습이다. 인테리어 계획은 가구가 개별적으로 조성되는 게 아닌 공간과 조화를 이루며 통합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것을 중요시한다. 따라서 개방적인 공간계획에 맞춰 전체적으로 자유로운 열람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대신, 분리형의 1인용 좌석도 조성하여 개인의 활동도 지원할 수 있게 한다. 가구의 배치는 과거에 서가와 좌석의 영역을 명확히 구분하였으나 최근에는 혼합하는 양상을 보인다고 말한다. 따라서 여러 유형의 가구로 지원하거나 자유롭고 창의적인 배치를 제안하여 다양한 열람방식에 대응한다.



〈그림 3-4〉 도서관 건립추진 조직

(출처: 최혜조&백진, (2023).)

44) 일반자료공간부터 북카페까지 공간별로 페이지를 표시하였다. 도서관정책기획단.

#### ④ 통합이미지 개발

통합이미지 LI(Library Identity) 개발은 2016년 매뉴얼부터 등장한 것으로 “지역을 대표하는 공공도서관의 입지를 구축하기 위해 전문적인 시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한다.<sup>45)</sup> 통합이미지의 기능은 공공도서관이 도시의 랜드마크 역할을 하는 데 필요한 디자인 요소이다. 이를 통해 “도서관의 이용자 동선 체계에 대한 안전성, 층별 공간 구조와 구성에 대한 인지성, 공간의 이미지 및 디자인의 조화성, 이용자의 편리성”과 같은 네 가지 기능을 확보한다.<sup>46)</sup> 구체적인 구현 방법은 도서관의 슬로건, 실별 네이밍, 심볼 이미지, 사인 계획 등을 디자인하는 것이다. 통합이미지는 이러한 작업을 통해 도서관의 디자인적 정체성을 확보하여 지역의 랜드마크 로컬 브랜드 개발을 구현한다(표1).

번호	통합디자인 세부 항목	세부 항목별 내용
①	공간구성과 기능	-이용자를 위한 공간계획 방향 -자료, 노약자, 이용자, 업무, 문화에 따른 9가지 필요기능 분류 -기능에 따라 자료이용공간, 문화교육공간, 업무관리공간, 공용공간, 기타로 나뉘는 공간구성과 세부 소요 공간
②	과업수행 계획	-건축공간 계획 시 건축과 인테리어의 컨소시엄과 전문가로 이루어진 건립추진조직의 협의와 회의를 통해 결정 -효율적으로 공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 건축, 인테리어의 통합적인 차원에서 공간구성추진
③	공간배치 및 계획	-오픈플랜을 강조하는 공간 배치 -마찬가지로 융합과 연계를 통한 개방을 중시하는 주요 공간계획 -공간과의 조화를 중시하되, 자유로운 배치로 다양한 열람을 지원하는 가구 배치
④	통합이미지 개발	-전문적인 시각 서비스로 공공도서관의 이미지를 구축해 도서관의 정체성을 확보하여 궁극적으로 도시의 랜드마크 역할을 수행

〈표 3-1〉 통합디자인 세부 항목 종합 정리표

2023, pp.162~163, 168, 174.

45) 도서관정책기획단. 2023. p.191.

46) 도서관정책기획단. 2023. p.192.

### 3.2.2 공공도서관 통합디자인 반영 분석

#### 1) 공간구성과 요소에 영향을 주는 이용자 중심

①이용자 중심의 공간구성과 요소를 기준으로 먼저 통합디자인의 ①공간구성과 기능을 살펴본다. 우선 그 중 공간구성의 방향성을 살펴보았을 때, 이용자 개개인에게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목표와 달리 필요기능에서는 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었다. 필요기능 아홉 가지를 다시 분류해보면, 자료의 이용, 보관, 대출, 참고 및 정보서비스 네 가지는 고전적인 기능이고, 나머지 중 장애인·노인·임산부 편의, 유아·어린이 고려는 노약자를 위한 필수 기능이다. 일반적인 업무를 위한 직원 업무 및 기타 기능을 제외하면 전시 및 집회, 이용자 편의, 두 가지 기능이 남는다. 이 중 특정 목적 없이 이용자의 공용공간을 위해 고려하는 것은 이용자 편의시설에 준하는 공간을 확보하는 기능뿐이라 할 수 있다. 즉,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필요기능은 공용공간 보다는 자료를 중요시하는 양상으로 보이며, 이는 이용자 중심 디자인과는 거리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편의 기능	분류
자료이용 및 학습, 연구 기능	자료를 위한 고전적인 기능
자료보관 기능	
대출 및 반납기능	
참고 및 정보서비스를 위한 기능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를 위한 기능	필수적인 노약자를 위한 기능
유아 및 어린이를 위한 기능	
직원의 업무 및 기타 기능	업무 관련 기능
전시 및 각종 집회 기능	프로그램 지원 기능
이용자 편의 기능	공용공간 확보 기능

〈표 3-2〉 공공도서관의 필요기능 재분류

또한 공공도서관의 공간구성은 자료 이용, 문화교육, 관리업무, 공용, 기타라는 기능 중심의 공간구성 현황을 보인다. 2010년도의 공공도서관 공간구성도 자료열람부문, 문화교육부문, 업무관리 부문, 공용부문으로 나뉘어 있었다.<sup>47)</sup> 물론 현재는 이 중 업무관리부분 내 전기실, 기계실, 창고 등과 같은 부분이 기타 공간으로 분리되어있으나 기능 중심이 여전히 공간을 구성하는 틀이라는 사실은 크게 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② 과업 수행계획의 내용을 분석하면 건축공간 계획 시 전문가 집단인 건립추진 조직을 구성해 건축, 인테리어 업체와 협의를 진행해 계획을 결정한다. 특히 건립추진 조직 내 총괄계획가는 “기존의 도서관 건립과정에 풍부한 지식과 충분한 경험이 있는 전문 컨설턴트”<sup>48)</sup>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는 건축 위주의 자문만 단순히 진행하던 과거와 달리, 건축과 도서관 두 분야에 해당하는 전문적인 지식을 자문한다는 차별성이 있다. 즉, 건축의 규모와 면적의 관점으로만 기존 매뉴얼들이 도서관을 보던 것과 달리<sup>49)</sup> 도서관의 운영자와 이용자 중심으로 보는 관점을 시도한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도서관 건립 관련 전문가 조직을 구성한 것은 결과적으로 이용자를 위한 공간계획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명시하고 있는 공간계획에 따르면, 공간의 복합화나 다양화 보다는 이용자의 요구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효율성에 초점을 두고 있어 아쉬움이 있다.

③ 공간 배치 및 계획에서는 다양한 이용자 중심의 공간구성을 개별 공간들의 인테리어와 계획을 통해 나타낸다. 예를 들어 주요 공간계획 내 문화교육 공간의 다목적실 같은 경우, 홀과 로비와 같은 공공공간을 활용하기도 하며 별

47) 도서관정책기획단. 2010 공공도서관 건립·운영 매뉴얼. 문화체육관광부. 2010, p.55

48) 도서관 건립 추진 조직 선정 내용 중 도서관 건립 총괄계획가에 관한 부분이다. 도서관정책기획단. 2023. p.56.

49) 2016년도 매뉴얼은 “기본적으로 기술기반의 도서관 매뉴얼로 하드웨어(건축) 중심의 도서관 건립에 집중되어 있다.”를 2013년도의 문제점으로 삼고 있으며, 이는 건축 중심의 매뉴얼임을 언급한다. 도서관정책기획단. 2016 공공도서관 건립·운영 매뉴얼. 문화체육관광부. 2016, p.2.

도의 실로 구분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고 있다. 이러한 다목적실에 대해 매뉴얼에서는 “단순히 1층에서의 접근성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상층에서도 활동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중정 방식을 활용하여 공간의 개방감을 확보할 수 있고, 적어도 2층 높이를 활용하여 계단형 공간을 제안하는 등...”<sup>50)</sup>이라며 독창적인 공간을 제시한다. 과거 다목적실과 문화교육실에 해당하는 공간들이 각각 강당과 교실, 학습실로 구성되어있었다면,<sup>51)</sup> 현재는 이용자의 상황과 행태에 따라 개선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공용공간의 북카페의 경우, “자연과 연계하는 등 외부와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공간 배치를 할 수 있으며...”<sup>52)</sup>라며 다양한 배치를 통해 외부와의 연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한 편, 개별 공간 명칭의 변화에서도 이용자 중심 디자인으로 전환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공간들이 모두 ‘00실(室)’로 명명되던 것에서 ‘00공간’으로 변경되며, 구분되고 독립적이던 개별 방과 같은 틀에서 벗어난 모습이 되었다. ‘열람’이라는 용어도 ‘이용’으로 변경되며 단순히 이용자의 행위가 서적과 자료를 보던 것에서 확대되었다고 유추할 수 있다. 이런 사항은 이용자 중심의 관점에서 분명 큰 가치가 있는 변화들이라고 볼 수 있다.

	① 공간구성과 기능	② 과업 수행 계획	③ 공간 배치 및 계획	④ 통합이미지 개발
③이용자 중심의 공간구성과 요소	X	△	○	

\*○: 충분히 반영, △: 일부 반영, X: 반영되지 못함

〈표 3-3〉 이용자 중심의 공간구성과 요소 반영 결과

50) 도서관정책기획단. 2023. p.168

51) 도서관정책기획단. 2013 공공도서관 건립·운영 매뉴얼. 문화체육관광부. 2013, pp. 88~90.

52) 도서관정책기획단. 2023. p.174.



## 2) 이용자의 참여를 중시하는 이용자 중심

⑥이용자의 참여나 선호도 반영을 기준으로 ① 공간구성과 기능을 살펴보면, 먼저 현재의 필요기능을 2010년과 비교해볼 수 있다. 2010년도에는 자료에 관한 기능이 우선으로 명시되고 있었으나, 현재는 여러 기능이 섞이는 것으로 순서가 변경되었다는 차이점이 있다. 하지만 실질적인 이용자의 참여가 대두되는 내용적 변화는 부재한 채 단순한 순서상의 변경 정도다. 따라서 이를 이용자의 참여 또는 행태를 기능과 공간에 반영했다고는 볼 수 없다. 이와 다르게 공간구성의 세부 소요 공간 항목에서는 일부 이용자 중심 디자인을 보이는 양상이다. 예를 들어, 문화교육공간 내 특화 공간은 개인 열람존, 그룹스터디, 메이커스페이스, 과제 수행 공간 등을 조성하며 이용자의 행태에 따라 세분된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용자 중심 디자인 공간이 공공도서관의 공간 구성 기능 항목 내 기능 관련 사항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으나 세부 공간에는 반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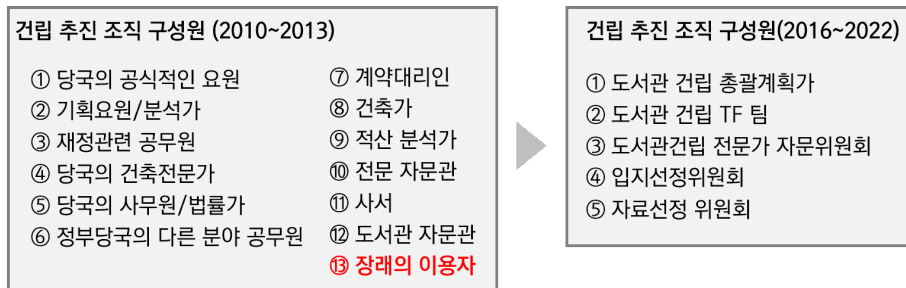
② 과업 수행계획을 수행하는 건립추진 조직을 살펴보면 구성원 내에 직접적으로 이용자가 포함되어 있지는 않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는 조직의 구성원 중 하나로 장래 이용자가 매뉴얼에 명시되고 있었으나, 2016년도부터 해당 내용이 삭제되었다(그림6).<sup>53)</sup> 백선경(2022)은 이러한 양상에 대해 현행법 제도가 전문가 업무나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 초점을 두고 있음을 언급하고, 이로 인한 공공건축의 공공적 가치 실현을 우려한다.<sup>54)</sup> 신남희(2022)는 하승우의 저서를 일부 인용하며 “공공성은 어떤 사람이나 조직이 전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한다. 이처럼 전문가에 편중된 지침이나 제도는 오늘날 공공

---

53) 2016년도 건립추진 조직원 중 자문위원회에 시민대표가 남아있긴 했으나 2019년도부터는 사라지고 ‘전문가’자문위원회로 변경되었다.

54) “공공건축의 공공적 가치가 추진·소유 주체가 국가 또는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라고 해서 구현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현행법 제도는 주로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와 전문가의 업무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사실...” 백선경·임유경. 이용자 관점에서 본 공공건축 기획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국민체육센터를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논문집. 38(11). 2022. 11, p.130.

도서관과 공공건축이 전반적으로 수반하는 문제 중 하나이다. 또한, 이용자의 의견이나 행태보다는 공간과 인테리어의 총체적인 구성을 공간계획의 우선 사항으로 고려하는 모습을 보인다. 따라서 과업 수행계획에서는 이용자의 참여나 선호도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



〈그림 3-5〉 건립추진 조직 구성원 변화

(출처: 최혜조&백진. (2023).)

③ 공간 배치 및 계획에서는 먼저 개방형 공간의 강조에 대해 재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공간계획의 특징이 오늘날 이용자들의 크고 작은 문제점들과 마찰을 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군포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 2016 년도에 시민들이 반발하자 폐쇄하려던 열람실을 다시 존치하기로 약속했으나, 결국 폐쇄를 강행하며 이용자와 지자체 사이의 마찰이 있었다.<sup>55)</sup> 그 외에도 “공부하러 온 이들이 독서용 좌석을 차지하는 바람에 정작 책 읽는 사람은 자리를 찾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sup>56)</sup>라며 한 기사에서 이와 같은 새로운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므로 일률적으로 강행한 공간이 이용자 중심의 관점에서 실제로 공공적 가치를 실현하는 방향인지에 대해 심도 있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공간계획과 달리 일부 가구 계획에서는 이와 다른 방향성을 보인다. 일반자료공간의 인테리어 계획 중 자료 이용 책상의 경우, 분리된 1인용 좌석을 통해 개인 활동을 지원한다. 그러나 이는 개방된 공간 내에 분리된 좌

55) 김기원. '말 많은' 군포 중앙도서관 재개관...시의회 '불통 도서관'. 뉴시스 2016.11.10. [https://mobile.newsis.com/view.html?ar\\_id=NISX20161110\\_0014509161](https://mobile.newsis.com/view.html?ar_id=NISX20161110_0014509161)

56) 신심범. 열람실 없는 도서관 대세...“공부는 어디서 하나요”. 국제신문 2022.02.13.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220213.99099002646>

석일 뿐, 실질적으로 사적인 공간을 형성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sup>57)</sup>

	① 공간구성과 기능	② 과업 수행 계획	③ 공간 배치 및 계획	④ 통합이미지 개발
⑥ 이용자의 직·간접적인 참여	△	X	△	

\*○: 충분히 반영, △: 일부 반영, X: 반영되지 못함

〈표 3-4〉 이용자의 직·간접적인 참여 반영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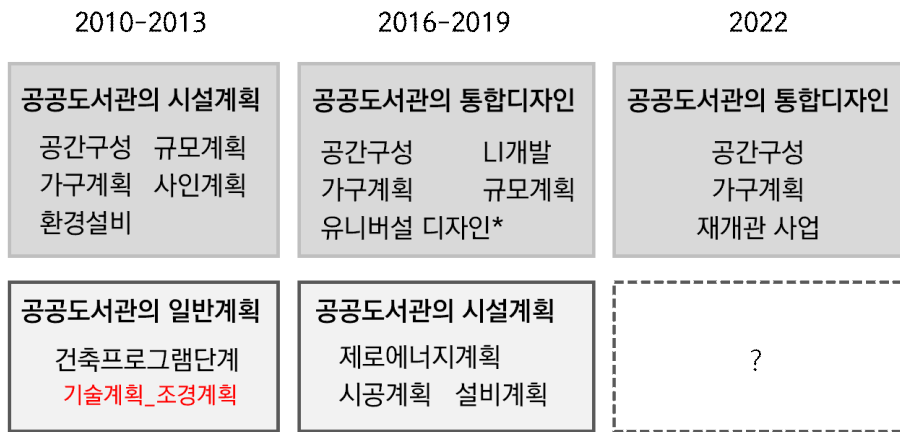
### 3) 공공도서관 통합디자인 내 이용자, 지역 그리고 도시와의 연계

②지역 커뮤니티, 도시와의 연계를 기준으로 ① 공간구성과 기능을 보았을 때 눈에 띄는 부분은 전시 및 각종 집회의 기능이다. 이는 지역의 특화된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계획해 융합적으로 활용되어 오늘날 시민들의 중심 기능으로 자리 잡는 추세이다. 그러나 세부 소요 공간이나 공간구성에서는 이러한 특징을 보이지 않는다. 해당 사항들은 기능의 융합을 통해 공간의 복합화를 실현 하진 못했다는 한계가 있으나, 공공도서관과 지역 커뮤니티와의 연계를 지향했다는 데에 가치가 있다.

③ 공간 배치 및 계획을 통해 개인과 지역공동체 그리고 도시와 공간적으로 관계를 맺는 데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특히 공공도서관의 외부공간을 통해 접근성, 개방성, 연계성을 찾을 수 있는 계획 없이 내부 공간에만 온전히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 외부공간에 대해 공용공간 내 북카페에서 “자연과 연계하는 등 외부와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공간 배치를 할 수 있으며…”라고 언급하지만, 이와 같은 하나의 예시가 아닌 전체 과정 내 계획으로 외부공간에 대해 다루는 사항은 없었다. 2장에서 언급한 연도별 공공도서관 통합디자인 변화를 기반으로 외부공간에 관해 재확인하면, 2013년도까지는 시설계획이

57) 공간계획 내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공간구성 세부 공간의 특화 공간 내에 개인열람실에 관한 내용이 있다. 그러나 이는 별도 예약제로 운영된다고 명시되어 있어 이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한다고 보기 어렵다. 도서관정책기획단. 2023. p.153.

아닌, 공공도서관 일반계획 내 기술 계획이라는 하위 항목 내에 조경을 일부 명시하고 있었다.<sup>58)</sup> 도시와의 관계에 대한 이해나 고려 없이 조경을 활용하는 방안으로만 접근하고 있다는 아쉬움이 있으나,<sup>59)</sup> 직접적인 외부공간 계획이었다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 하지만 2016년도에 시설계획과 기술 계획이 통합되며 조경에 관한 내용이 삭제되었으며, 현재는 시설계획에 해당하던 내용들도 모두 사라진 상태이다(그림7).



\*유니버설 디자인은 2016년도에만 존재

〈그림 3-6〉 공공도서관 통합디자인의 변화  
(출처: 최혜조&백진. (2023).)

가구와 공간이 개별적으로 계획되던 것에서 실내 요소와의 조화를 위해 건축과 인테리어의 통합설계가 진행되며 자연스러운 흐름에 의해 이러한 변화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용자 중심 디자인 관점에서, 공공도서관의 도시와의 관계 형성은 개인에서 지역공동체까지 이어지기 위한 필수 요인 중 하나이므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58) 2013년도에는 당시 기술계획이 매뉴얼 2장인 공공도서관 일반계획 내 건축프로그램단계라는 항목의 하위 항목이었다. 도서관정책기획단. 2013. p.41.

59) 조경계획에 관하여 토지이용계획으로서의 접근방법, 지원접근방법, 경제접근방법, 행태접근법이라 나눠 설명하고 있다. 도서관정책기획단. 2010. 45~46.

④ 2016년도에 통합이미지(LI, Library Identity) 개발이 등장하며, 도시와 지역 내 공공도서관의 역할과 이미지를 고려하게 되었다. 2013년까지는 본래 운영계획 항목에서 일부 방향을 설정해 언급하거나,<sup>60)</sup> 단순히 내부의 실을 효율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사인 계획 정도였지만, 현재는 도시의 정체성을 반영하는 이미지 구축으로 발전했다. LI개발을 통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계획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데에 의의가 있으며, 나아가 도시 내 공공도서관의 정체성을 구축하기 위한 시도를 통해 이용자 중심 디자인을 일부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아직은 한 기관의 도서관에만 집중하고 있으므로, 지역 내 여러 도서관 간의 연계나 비슷한 역할의 시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신승수(2014)는 “개별적인 도서관의 웅장함이나 수려한 미관에 앞서 도시의 공간 구조와 어떻게 연계되는지, 다양하고 복합적인 사용을 가능하게 하면서 어떻게 공공성을 구현할 것인지…”라며 넓은 범위에서 도서관을 대하는 태도의 필요성을 알게 한다. 지금의 LI는 랜드마크를 지향하며 개별 도서관에 집중하고 있다. 이수인(2016)은 과거 중세, 근세 시대의 랜드마크가 시민들의 커뮤니티와 일상을 중요시하던 것에서 오늘날엔 이미지 형상만이 목적이 되었다고 언급하며, “현대의 랜드마크가 추구하는 표상의 의미가 달라졌다”라고 말한다. 매뉴얼 내 LI 개발 내용도 아직은 이용자와 지역공동체들의 생활권별 접근 보다는 이미지 구축에 더욱 집중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에 국한하지 않고 주변 도서관, 기타시설,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생활과 연계한다면 공공도서관이 더욱 도시와 결부될 발전 가능성이 있다.

	① 공간구성과 기능	② 과업 수행 계획	③ 공간 배치 및 계획	④ 통합이미지 개발
㉔ 지역 커뮤니티, 도시와의 연계	△		X	△

\*○: 충분히 반영, △: 일부 반영, X: 반영되지 못함

〈표 3-5〉 지역 커뮤니티, 도시와의 연계 반영 여부

60) 현재의 매뉴얼 운영 방향에서도 “...기존의 공공도서관 및 다른 문화·교육기관들과의 협력과 조화 속에서 결정되어야...”라고 말한다. 도서관정책기획단. 2023. 77.

### 3.3 소결: 이용자 중심 디자인 관점으로 본 ‘공공도서관 통합디자인’의 보완점

공공도서관의 시대적 흐름이 자료 중심에서 이용자 중심으로 변하며 이에 대응하는 공간이 같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2022 공공도서관 건립·운영 매뉴얼」 내 4장을 구성하는 공공도서관 통합디자인을 고찰하며 이를 ① 공간구성과 기능, ② 과업 수행계획, ③ 공간 배치 계획, ④ 통합이미지 개발로 재구성하였다. 이후 이용자 중심 디자인의 개념과 공공도서관에서 나타나는 양상들을 문헌 고찰을 토대로 파악하고 분석하여 ㉠ 이용자 중심의 공간구성과 요소, ㉡ 이용자의 참여나 선호도 반영, ㉢ 지역 커뮤니티, 도시와의 관계와 같은 세 가지 유형을 도출했다. 이를 분석의 틀로 삼아 통합디자인 세부 항목에 대응해 보며 공공도서관에 이용자 중심 디자인 개념의 반영 여부를 확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용자 중심의 공간구성과 요소가 공공도서관 공간의 배치나 계획을 통해 잘 드러나고 있었으나 과업 수행계획에서는 일부만 나타났으며, 공간구성과 기능에서는 적용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무엇보다 기능이 아닌 이용자를 중심으로 고려한 새로운 공간구성이 필요하다.

둘째, 이용자의 직·간접적인 참여가 공공도서관 공간구성과 기능, 공간 배치 및 계획에서 일부 나타나고 있었으나 과업 수행계획에서는 전혀 반영되고 있지 않았다. 공공도서관 공간을 계획하는 과정에서 이용자의 참여가 배제되었기 때문에 진정한 공공의 가치구현에 대한 고려가 필요시 된다. 이에 상황에 따라 일부 수용할 수 있는 절차에서는 이용자의 의견 또는 행태를 반영해야 한다.

셋째, 도시와 공공도서관의 관계가 공간구성에서 일부 나타나고, 이미지 구축을 위한 LI 개발이 등장했으나, 아직 개별 도서관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보완할 필요성이 보였다. 또한 공간 배치 및 계획에서 외부공간 계획이 미흡하고 내부에만 집중하고 있었다. 이에 타 기관 및 지역공동체와의 연계로 통합이미지가 확장되어야 하며, 내부와 외부공간을 통합적으로 계획하는 방향성이 필요하다 <표 6>.

	① 공간구성과 기능	② 과업 수행 계획	③ 공간 배치 및 계획	④ 통합이미지 개발
㉠ 이용자 중심의 공간구성과 요소	X	△	○	
㉡ 이용자의 직·간접적인 참여	△	X	△	
㉢ 지역 커뮤니티, 도시와의 연계	△		X	△

\*○: 충분히 반영, △: 일부 반영, X: 반영되지 못함

〈표 3-6〉 통합디자인 내 이용자 중심 디자인 반영 분석 종합 결과

총 아홉 가지 항목에서 공공도서관 통합디자인 항목에 이용자 중심 디자인의 적용 여부를 분석한 결과, 충분히 반영 한 가지, 일부 반영 다섯 가지, 반영되지 못함 세 가지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실제 지침과 오늘날 도서관의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내용이 일부 상응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해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본래 매뉴얼에서 뜻하고자 하는 통합디자인과 달리 실제로는 특정 몇몇 전문가 집단을 위한 지침에 머물러있어 통합디자인의 명칭만 사용되는 듯한 아쉬움이 있었다. 현재 지침의 내용들은 2장에서 연구자가 정의한 네 가지 이용자 유형 중 건축 관련 전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따라서 매뉴얼에서 일반 시민이나 행정 및 운영관계자와 같은 직접적 이용자를 포괄한 개발 방향을 재고한 후 지침을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결과적으로 통합디자인<sup>61)</sup>의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보았다.

61) 통합디자인이 오늘날 공공디자인에 필요한 이유로 이영한은 “한 전문영역에 의하여 디자인이 독점되지 않고, 국토계획, 도시계획, 도시설계, 건축, 인테리어, 조경, 공공예술 등 다양한 전문영역이 각자 제 몫을 하면서 서로 오픈하여 하나로 통합되어 디자인할 때에 고도로 성숙된 도시가 창조될 것이다.”라고 말한다. 이처럼 통합디자인은 다양한 분야에서 각자의 몫을 하는 이용자들을 포괄해야 한다. 이영한. (2010). 공공디자인과 통합디자인. 대한건축학회특집. 1005. 18-19.

## 제 4 장 전주시 공공도서관 정책으로 보는 이용자 중심 디자인

앞서 3장에서는 이용자 중심 디자인 관점에서 공공도서관 통합디자인을 분석하여, 이용자 중심 디자인의 요소가 상위계획인 「도서관발전종합계획」과 달리 하위계획인 건립 지침에 미비하게 반영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런데 「공공도서관 건립·운영 매뉴얼」의 공공도서관 통합디자인보다 더 하위 단계인 전주시의 지자체 연구에서 이에 대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전주 시도 큰 틀에서는 「공공도서관 건립·운영 매뉴얼」을 따르고 있으나 매뉴얼이 놓친 이용자 중심 디자인을 자체적으로 보완하여 전주시 정책인 「책 중심 도시 조성 정책 수립 연구」에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전주시의 공공도서관 관련 정책이 어떻게 자체적으로 문제점들에 대응하여 이용자 중심의 공공도서관을 건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분석한다. 먼저 「책 중심 도시 조성 정책 수립 연구」의 배경을 확인한 후, 이용자 중심 디자인의 유형에 따라 전주시의 정책을 살펴보고 앞서 분석한 공공도서관 통합디자인과 비교분석을 진행한다.

### 4.1 전주시 「책 중심 도시 조성 정책 수립 연구」

전주시는 2019년도 핵심 시설로서 미술관이나 박물관과 같은 문화 시설이 아닌 도서관을 선정하였다. 이는 다른 문화시설들이 특정 연령층과 계층이 찾는 전문적인 시설인 것에 비해 도서관은 남녀노소 누구나 방문할 수 있는, 모든 시민이 형평성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sup>62)</sup> 공식적으로 전주시에서 도서관의 중요성을 인식한 것은 2016년 말부터인 것으로 보인다. 당시 전주시의회 회의 내용에 따르면, 전주시에서는 도서관의 양적 성장에 비해 정채된 질적 성장에 대해 문제점을 느끼고 자체적인 도서관 계획

62) 230626. 도서관 정책과 직원과의 전화로 확인했으며, 이는 부록에 첨부하였다.



수립을 필요시 하였다.<sup>63)</sup> 당시 전주시는 지자체의 도서관 계획 또는 지침과 관련하여 2004년 8월 용역을 진행했으나, 이후 연구의 결과 보고가 없었으며<sup>64)</sup>, 중장기 도서관 계획 또는 관련 정책이 부재하던 상황이라 이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대두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2019년 도서관정책위원회에서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을 발간하자 그에 맞춰 전주 시도 내실 있는 도서관 발전계획을 추진하게 된다.<sup>65)</sup>

이러한 배경으로 전주시는 2019년 4월에 연구를 시작하여 2019년 11월에 「책 중심 도시 조성 정책 수립 연구」를 발간하였다. 해당 연구는 급변하는 사회와 상황 속에서 이용자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도서관 역할의 재정립과 체계적인 발전계획을 위한 방향 정립이 필요시 되었다고 언급한다.<sup>66)</sup> 당시 전주시의 시정 목표를 살펴보면, ‘성장위주, 개발중심’의 패러다임을 ‘사람우선, 인간중심’<sup>67)</sup>으로 바뀌야 함을 언급하고 있다. 전주시 연구에서도 이러한 시의 비전을 언급하고 있으며, 이에 맞춰 도서관의 비전도 “책과 소통하고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도서관”이라고 말한다. 즉, 시정 목표부터 도서관의 비전까지 모두 사람 혹은 시민을 우선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63) 2016년 10월 20일 진행된 전주시의회 제335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아1·2동·인후3동 문화경제위원회 오정화 의원은 “우리 전주시는 도서관의 숫자는 많으나 도서관의 역할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제는 도서관의 외형적 확장보다는 전문성을 가지고 내실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할 때입니다.”라고 발언하였다.

64) 오정화 의원은 “전주시는 2004년 8월 전주시립도서관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연구 용역을 했지만 이에 대한 중간평가 또는 결과 보고가 없었으며, 이후 1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도서관 발전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라고 말하며, 제대로 된 도서관 운영을 위해 일관성 있는 계획과 비전이 설정된 도서관 정책의 필요성을 논하였다.

65) 「책 중심 도시 조성 정책 수립 연구」 내 과업의 배경과 목적에서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이 배경에 있음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66) 전주시. (2019). 「책 중심 도시 조성 정책 수립 연구」. p.3

67) Ibid. p.67

## 4.2 전주시 공공도서관의 정책적 대응 방안

이용자 중심 디자인 요소	공공도서관 통합디자인의 반영 분석 결과	「책 중심 도시 조성 정책 수립 연구」의 대응
<p>이용자 중심의 공간구성과 요소</p>	<p>① 공간구성과 기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도서관의 필요기능은 아직 자료 중심에 초점을 두고 있다.</li> <li>· 공공도서관의 공간구성은 기능을 중심으로 분류되고 있다. 해당 사항은 2010년부터 2022년도까지 변함없이 지속되는 양상이다.</li> </ul>	<p>「책 중심 도시 조성 정책 수립 연구」의 대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도서관의 내부 공간은 자료 공간, 이용자 공간, 직원 공간, 공유공간으로 구분하여 계획한다. (p.90)</li> <li>· 지역의 특성에 맞는 조사를 근거로 현재 운영 중인 도서관 공간의 구성 운영과 문제점을 도출하여 해결 대안이 될 수 있는 공간 요소의 효율적인 재구성을 통해 도서관 운영의 가장 이상적인 공간구성 체계를 구축한다. (p.113)</li> <li>· 공공도서관이 자료 중심에서 이용자 중심의 공간으로 변모하면서, 도서관의 역할을 소통의 공간에서 공동체의 중심 역할로 그리고 지역 사회의 문화 콘텐츠를 수용하는 것으로 한다. (p.113)</li> </ul>
	<p>② 과업 수행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서관 건립과정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인 총괄계획가가 건립추진 조직의 구성원이 되며, 단순히 건축 중심 자문만 진행하던 것에서, 건축과 도서관 두 분야 모두를 고려하는 계획이 가능해졌다.</li> <li>· 실제 공간계획은 공간의 효율성과 인테리어와의 총체적인 디자인을 추구하는 것을 중점으로 두고 있다.</li> </ul>	
	<p>③ 공간 배치 및 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방성을 중시하며 한 층 안에서 충분한 가시성과 공간감을 확보한다.</li> </ul>	

	<p>· 실(室)이라는 용어가 공간으로 변하며 하나의 실로 구분되던 것에서 더 자유로운 영역으로 전환되었고, 열람이라는 용어가 이용으로 바뀌며 도서관에서의 행위가 단순 독서 외 다양한 활동으로 확장되었음을 나타낸다.</p>	
<p>이용자의 직·간접적인 참여</p>	<p>① 공간구성과 기능</p> <p>· 공공도서관의 기능과 공간구성에서 <b>이용자의 의견이 반영되거나 참여가 진행된 부분은 없었다.</b></p> <p>· 그러나 세부 소요 공간들을 확인 한 결과 일부 이용자의 행태에 따라 세분화되어 있음을 확인했다. 예를 들어 문화교육공간 같은 경우 그룹 스터디, 과제 수행, 개인 열람, 메이커스페이스와 같은 공간들을 조성하여 이용자들의 다양한 행태를 지원한다.</p>	<p>· 도서관은 <b>다양한 이용계층과 이용의 목적</b>이 있으며 자료의 열람 외 자율적인 학습을 원하는 계층에게 학습실의 축소는 매우 불만족스러운 리모델링이 될 수 있다. (p.49)</p> <p>· 대부분 도서관은 편익만 우선하여 일부 소외되는 소규모 집단의 계층에 대한 배려가 미흡한 실정으로 분석된다. (p.49)</p> <p>· 공간의 변화 방향으로 개인 프라이버시 공간 확보를 언급한다. (p.47)</p> <p>· 설문조사 결과 전주시 도서관 비이용자가 공간 측면에서 가장 원하는 점 1~3위는 독서와 사색의 공간(1위), 자료활용공간(2위), 개인 학습 공간(3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p.57)</p> <p>· 공공건축은 사용자에게 귀 기울이기보다 정해진 예산과 관리적인 측면이 많이 강조되는 비중</p>

	<p>② 과업 수행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업 계획을 수행하는 건립추진 조직 내 구성원으로 이용자가 2013년도까지는 포함되어 있었으나 2016년부터 모두 배제되며 현재는 전문가로만 구성되었다.</li> <li>· 공간계획 시 이용자의 의견보다는 공간과 인테리어의 총체적인 모습에만 치중하고 있다.</li> </ul>	<p>이 크며, 따라서 이용자의 수요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매우 큰 실정이다. (p.8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가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설문조사 등에서 제시된 내용을 최대한 반영한다. (p.81)</li> </ul>
	<p>③ 공간 배치 및 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간 배치는 오픈플랜으로 구성하며, 단독 개인학습실은 배제한다. 또한 내부 공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가능한 하나의 층에 공간을 모두 구성하며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한다.</li> <li>· 일률적으로 개방성을 강조하고 개인학습실 폐쇄를 강행하며 이용자들과 크고 작은 마찰과 새로운 문제점들이 발생하게 되었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서관의 입지는 전주시에서 기초사되어 입지가 가능한 지역을 대안으로 선정, 제시하여 이에 대한 실질적으로 이용계층인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가중치를 부여한다. (p.102)</li> <li>· 평가의 기준은 주민 의견과 항측도에서 제시된 내용을 근거로 상, 중, 하로 구분하여 평가. 공공도서관은 공공재로서 불특정 다수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편익, 쾌적 등의 정적인 시설로서 입지 검토” (p.102) 이를 통해 공공도서관 건립 과정 중 입지 선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중요시하는 것을 알 수 있음.</li> <li>· 타 지자체 도서관 건립추진 과정을 언급하며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도서관 건립을 위한 타당성 검토부터 완공 및 이용까지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함...”을 강조하고 있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분석을 위해 전문가 의견뿐만 아닌 시민 조사도 진행함. 12일간 전주시민 904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b>도서관 이용자와 비 이용자 모두 포함되어 있음.</b></li> <li>· 해당 설문조사의 시사점으로 도서관별 명확한 주제의 도서관별 특성화를 주력할 필요성 확인.</li> <li>· <b>비 이용자가 선호하는 공간으로 독서와 사색의 공간, 자료활용공간, 개인학습 공간도출.</b></li> <li>· 연령별, 계층별 특성에 기반한 예술, 여행, 청소년 등의 특화주제 설정. (p.50-59)</li> <li>· 전문가 의견을 위한 간담회에도 시민이 참가했으며, 전문가 자문 결과로 “수립된 과제와 결과에서 주민과 관계 기관 의견수렴”을 언급. (p.62)</li> </ul>
<p>지역 커뮤니티 및 도시와의 연계</p>	<p>① 공간구성과 기능</p> <p>· 공간 기능 중 전시 및 각종 집회 기능이 있으며 이는 공공도서관의 공간이 지역의 특화된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계획되며 융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가 자문 결과 “도서관의 발전을 위해 출판계와 상생해야 하며, 출판계 지원으로 <b>독서생태계의 순환구조를 마련한다</b>”라고 언급. (p.62)</li> <li>· 독서 공간이 있는 서점에 대해 “책을 읽으러 왔다가 구매하기도 하고, 서점이 문화공간으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부 소요 공간과 구성에서는 지역 커뮤니티나 도시와의 연계로 끌고 가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li> </ul>	<p>변화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독서인구가 늘어나...”라고 한국일보를 인용한다. (p.7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주시 내 시립도서관, 작은도서관, 동네서점, 카페, 출판사, 문화관 등 49개 시설을 파악하고 협력하여 공공도서관 내 독서동아리 공간을 마련을 언급하고 있다. (p.160)</li> </ul>
	<p>③ 공간 배치 및 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간적으로 지역공동체 또는 도시와 관계 맺는 부분이 부족하다. 특히 온전히 내부 공간에만 집중하고 있으며 외부공간에 대한 계획이 부재하다.</li> <li>· 2013년도까지는 조경계획이라는 항목에 일부 외부 공간에 관한 내용이 있었으나 2016년부터 해당 내용이 모두 사라지고 인테리어가 등장하며 현재는 도서관의 내부 계획만 명시되어 있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작은 도서관 혹은 공공도서관 내 북카페가 활성화되며 관내 소규모 서점의 경제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한다.</li> <li>· 도서관과 지역 서점과의 상생을 통한 생활권별 소멸하는 서점, 문방구 등이 생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한다. (p.171)</li> <li>· 도서관이 “...저자와의 만남, 책과 관련한 행사 요구 등의 다양한 방향...”에 공간을 제공하여 “사람과 사람의 만남의 광장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p.79)</li> </ul>
	<p>④ 통합이미지 개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6년에 등장하여 단순 사인(sign) 계획에서 도시 정체성을 반영하는 이미지 구축으로 발전했다. 궁극적으로 공공도서관이 하나의 랜드마크 역할을 하는 것을 지향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든 공공도서관과 작은 도서관은 걸어서 10분 이내 연결이 가능해야 한다며 시설 간의 연계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p.100)</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합이미지를 구축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현재 도서관의 슬로건 제작, 실별 네이밍, 심볼 이미지, 이를 기반으로 하는 도서관 내 사인 계획처럼 이미지 구축과 디자인에만 중점을 두고 있다.</li> <li>· 개별 도서관 조성을 넘어 다른 시설들과 연계하고 지역공동체의 생활권별에 접근하는 등 보다 확장될 필요성이 있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공공도서관과 도시의 연계로 발전할 수 있어야 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옥외 독서 공간의 마련-옥외 열람 공간을 준비해서, 날씨가 좋은 날에는 옥외에서 독서를 즐길 수 있는 계획을 조성하였다. (p.96) 이를 통해 다양한 외부공간 조성을 시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li> <li>· 도서관의 역할을 파악하기 위해 “도서관 주변의 도시 성격을 고려한 도서관의 역할을 구분하여 검토”하였다고 언급한다. (p.101) 이는 공공도서관이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주변 도시 맥락과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이해를 바탕으로 한다고 유추할 수 있다.</li> <li>· “도서관은 해당 도서관 및 다른 도서관 또는 다른 지식서비스 기관에 있는 여러 지식 집적체들과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해주는 역할...”(p.137)이라고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다.</li> </ul>
--	---	---

〈표 4-1〉 이용자 중심 요소에 따른 공공도서관 통합디자인의 반영 분석과 「책 중심 도시 조성 정책 수립 연구」의 대응 비교

### 1) 전주시 공공도서관의 이용자 중심 공간구성과 요소

전주시의 「책 중심 도시 조성 정책 수립 연구」에서는 도서관의 공간별 복합화와 구조적 변화에 따라 오늘날 도서관의 공간 구조가 관리자 우선에서 방문자로, 방문자에서 공용공간으로 이전되었다고 말한다. 따라서 공간구성 요소도 기존처럼 기능으로 분류하는 게 아닌 이용자 기준으로 분류할 필요가 있다고 여러 번 언급하고 있다. 공간 요소의 재구성을 통해 이상적인 공간구성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이에 대한 예시로 이용자 기준에 의해 분류된 공간구성 요소를 작성한 연구의 표를 직접적으로 인용하고 있다.

구분	기능 요소		
이용자	교육	개인학습	학습실, 어린이 열람실, 참고열람실
		개가열람	종합자료실, 참고자료실, 향토/지방행정 자료실, 연속정기간행물실, 논문실
	정보	디지털, 정보검색실, 멀티미디어실, 전자정보열람실, a/v실	
	문화	집회실, 강장, 시청각실, 세미나실, 전시실, 문화강좌실, 컴퓨터/어학실	
관리자	관리/업무	관장실, 사무실, 회의실, 직원휴게실, 숙직실, 작업실, 대출실, 이동서고, 폐가서고, 보존서고, 목록실, 기계실, 전기실	
공용	서비스	휴게실, 식당, 주방, 매점	
	통로	입구 현관홀, 복도, 계단, ELEV	
	기타	화장실, 주차장	

〈표 4-2〉 이용자 기준에 의하여 분류된 공간구성 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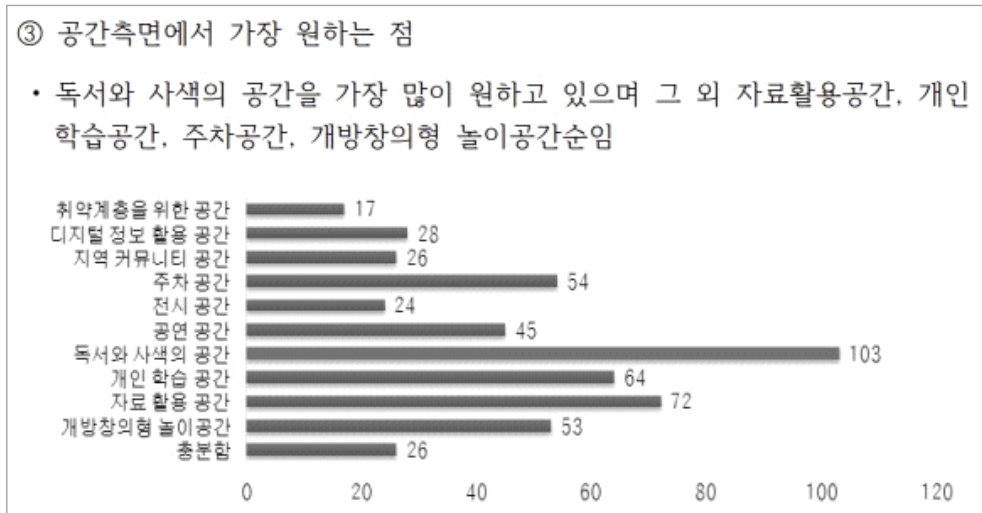
(출처: 송승언. 2011. 공공도서관 복합화에 따른 공간의 구조적 변화에 관한 연구.)



## 2) 전주시 공공도서관 이용자의 직·간접적인 참여

전주시는 공공건축이 이용자의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는 현실을 언급하며, 이와 다르게 전주시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할 것이라고 재차 명시하고 있다. 또한 도서관의 편익에 따라 소외되는 소규모에 대한 배려의 필요를 언급하며 학습실의 축소가 실질적인 이용계층에게 불만족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한다. 도서관 비 이용자들이 도서관에 원하는 공간이 사색하거나 개인학습이 가능한 프라이빗한 공간임을 확인하여 이를 공간의 변화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처럼 공공도서관 건립에 전문가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함을 밝힌다. 따라서 설문조사를 통한 시사점으로 도서관별 특성화의 필요성을 확인한 후 연령별, 계층별 특성에 기반한 예술, 여행, 청소년과 같은 특화주제를 설정하며 공공도서관의 방향성에 이용자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다.

또한 도서관 입지의 평가 기준을 실제 이용계층인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가중치를 부여하며 검토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에서 건립 추진과정부터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사례를 언급하는 등 전반적으로 적극적인 이용자 의견 반영을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림 4-1〉 전주시 도서관 비 이용자 설문조사 결과. (출처: 「책 중심 도시 조성 정책 수립 연구」 p. 57)

### 3) 전주시 공공도서관의 지역 커뮤니티 및 도시와의 연계

전주시 공공도서관은 한 개관 공공도서관의 활성화에만 주목하지 않고, 좀 더 지역공동체와 도시를 위해 공공도서관이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 심도 있게 고민하여 수행하고자 한다. 예를 들어 공공도서관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 출판계를 지원해야 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독서생태계의 순환구조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구체적인 예시로 광화문 교보문고 같은 경우 서점이 단순 상업시설이 아닌 하나의 문화공간으로 변화한다는 기사를 인용하며 간접적으로 이에 관한 시의 견해를 밝히고 있다. 특히 전주시는 2019년 기준으로 209개의 서점이 운영 중이며, 특히 그 중 동문길에 있는 몇몇 헌책방은 전주시 미래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활성화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전주시에서는 시내 공공도서관 외에도 이와 같은 동네 서점, 카페, 출판사, 문화관 등의 총 49개 시설을 파악하고 협력하여 이를 위해 공공도서관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고민한다. 이는 도서관이 활성화되며 소규모 서점의 경제성 제고도 논의할 필요가 생기기 때문이다. 전주시는 특히 지역 내 서점, 문방구와 같은 생활권별 상권들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도서관과 상생하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를 위해 공공도서관이 책과 관련된 행사를 진행하고,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생활권별 연계가 가능하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림 4-2〉 전주시에서 제공하는 동네 서점 지도. (출처: 김은정. 매일일보.)

### 4.3 전주시 이용자 중심 디자인 공공도서관 정책종합 비교분석

전주시의 「책 중심 도시 조성 정책 수립 연구」을 「2022 공공도서관 건립·운영 매뉴얼」 내 공공도서관 통합디자인 단계와 비교하며 정책적 대응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기능 중심 공간구성이 아닌 이용자 중심 공간구성 지향

공공도서관 통합디자인 같은 경우, 명시되어 있는 필요기능이 이용자 보다 는 자료를 중요시하는 방향이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하는 기능 중심 공간구성 도 자연스럽게 이용자를 위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웠다. 또한 이와 같은 공간구성이 2010년부터 12년간 변하지 않고 유지되고 있었다. 그 외에도 효율성과 인테리어와의 총체적 디자인을 추구하고 있었다.

이에 대응하여 전주시 정책은 공공도서관이 자료에서 이용자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을 짚으며 지역에 특성에 맞는 조사를 근거로 공간 요소를 재구성해 이상적인 공간구성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내부 공간을 자료, 이용자, 직원, 공유라는 유형으로 구분하는 방안에 대해 제시하기도 하며 새로운 공간구성의 필요성을 제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2) 전문가에 치중한 업무지침과 일률적인 오픈플랜 강행이 아닌 실제 이용, 비 이용계층의 의견을 반영한 공간

공공도서관 통합디자인은 공간계획에 관여하는 조직 구성원에 본래 2013년도까지 장래 이용자가 포함되어 있었으나, 2016년부터는 모두 배제되며 현재는 전문가로만 이루어진 조직이 되었다. 그러므로 각 전문가 간의 의견 협의를 통해 공간계획이 이루어지며, 이용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과정이 전무하다. 이러한 시스템을 기반으로 개인학습실 폐쇄를 강행하고 최대한 한 번의 시야에 상황 파악이 가능하게끔 하나의 층에 오픈플랜으로 구성하는 공간 배치와 계획이 진행되고 있었다.

그에 비해 전주시는 이용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공공도서관이 되는 것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 먼저 전주시는 공공건축이 예산과 관리적 측면

에 비중을 두며 이용자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적한다. 이에 대응하여 설문조사를 통해 간접적인 의견 반영과 건립과정 내 참여를 통한 직접적인 의견 반영 두 가지 모두를 진행한다. 먼저 설문조사는 표면적이고 형식적인 조사가 아닌 도서관 이용자에 비 이용자를 포함한 전주시민을 대상으로 진행하여 이들이 도서관 내에서 선호하는 공간을 파악하고, 공공도서관 특화주제를 설정을 위한 주요 키워드를 도출한다. 설문조사 결과 주민들은 독서, 사색과 개인학습이 가능한 공간을 원한다는 결과가 나와 개인 프라이버시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공간 방향을 설정하였으며 특화주제 키워드로는 예술, 여행, 청소년을 도출한다. 두 번째 과정 내 이용자의 적극적인 참여로는 공공도서관 입지 선정 단계를 구체적인 예시로 제시한다. 평가의 주요 기준에 주민의 의견이 해당하고, 이에 따라 가중치가 부과되며 지역주민의 역할이 증대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타 지자체를 예시로 들며 입지 선정뿐만 아니라 다른 건립과정에도 충분히 이러한 주민의 참여가 이뤄질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었다.

### 3) 개별 도서관 활성화와 내부 공간 조성을 넘어 지역공동체와 도시와의 연계로 확장

공공도서관 통합디자인은 2016년 인테리어와의 통합설계가 등장한 이후로 점차 내부 공간 구성에만 집중하고 외부공간은 배제하는 모습을 보인다. 또한 도서관 한 개관의 활성화와 랜드마크성을 지향하고 있어, 개별 도서관 이미지 구축에 머물러있다.

전주시는 이와 다르게 도시와 물리적으로도, 프로그램적으로도 연계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인다. 도서관의 옥외공간을 조성해 외부에서도 독서 행위가 일어날 수 있음을 언급하고, 또 주변 독서 관련 문화, 상업시설들을 조사해 독서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지역 내 소멸하고 있는 지역 서점, 문방구와 같은 생활권별 시설들과의 상생을 이뤄야 한다고 말하며, 도서관에서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거나 공간을 제공하여 소규모 상점들의 경제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한다.

이용자 중심 디자인 유형	공공도서관 통합디자인	전주시 「책 중심 도시 조성 정책 수립 연구」	
		대응 방안	지향점
이용자 중심의 공간구성과 요소	1) 필요기능: 자료 중심에 초점 2) 공간구성: 기능 중심의 구성 3) 공간 배치 주안점: 건축, 인테리어의 협업 지침과 내부 공간의 효율성	1) 역할(기능): 소통 공간, 공동체의 중심, 지역사회의 문화 콘텐츠 수용 2) 공간구성: 전주시에서 지역 특성 조사를 시행해 이를 근거로 재구성 3) 공간계획 주안점: 자료 중심에서 이용자 중심으로 변화	자료와 기능 중심의 공간구성이 아닌 이용자 중심 공간구성을 지향
이용자의 직·간접적 참여	1) 구성원: 전문가로만 구성 2) 전문가들의 협의로 공간 배치 및 계획 결정 3) 오픈플랜을 위한 개인학습실 폐쇄	1) 전문가와 일반 시민 의견 모두 수용 2) 전주시에서 실시한 설문조사를 통한 간접적인 반영이나 건립과정 내 직접적인 반영으로 공간, 주제, 입지 선정과 같은 과정에서 일반시민과의 협의를 진행 3) 비 이용자 조사 및 다양한 이용계층 의견을 수렴하여 개인 프라이버시 공간 확보	전문가에 치중한 업무지침 양상을 보이거나 일률적으로 오픈플랜을 강행하지 않고, 실제 이용/비 이용계층의 의견을 반영한 공간을 지향
지역 커뮤니티 및 도시와의 연계	1) 내부 공간 조성에만 집중 2) 개별 도서관 활성화에 치중	1) 내외부 공간 같이 고려 2) 지역 내 생활권별과의 상생, 다른 문화 시설과의 연계 추구	개별 도서관 활성화와 내부 공간 조성 뿐만 아닌, 지역공동체와 도시와의 연계로 확장하고 내외부 모두 고려하는 것을 지향

〈표 4-3〉 이용자 중심 디자인 공공도서관 정책의 종합 비교분석

## 제 5 장 전주시 공공도서관 사례 분석으로 보는 건축 대응

4장에서 살펴보았듯 전주시의 공공도서관은 이용자 중심 디자인의 공공도서관이 되기 위해 자체적으로 다양한 정책적 대응을 진행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실제로 이를 토대로 한 전주시 공공도서관은 어떤 모습일까? 5장에서는 정책을 반영한 실질적인 사례들을 분석하며 도서관 내 공간들이 어떻게 이용자 중심 디자인 요소에 맞춰 구현되었고 어떤 유형의 이용자가 건립과정에 참여하였는지 확인해 보았다.

### 5.1 분석 대상 및 현황

#### 5.1.1 분석 대상 선정

정책적 대응이 반영된 도서관을 확인하기 위해 우선 2019년도<sup>68)</sup> 이후 개관한 시 직영 도서관 중 분석 대상을 선정하였다. 현재 전주시에서는 도서관 여행이라는 관광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이용자가 도서관 투어를 진행하고 있으며, 도서관 여행은 총 23개<sup>69)</sup>의 시 직영 도서관 중 11개 관을 (2023년도 기준으로 시립 2개 관, 특화 9개 관) 소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세 가지 이용자 중심 디자인 유형에 따라 이를 가장 잘 구현하고 있는 도서관을 2개 관씩 총 6개 관을 선정하였다.<sup>70)</sup> 그중 지역 커뮤니티 및 도시와의 연계 같은 경우 외부공간과 연결하는 요소와 지역공동체 생활권별과 상생하는 요소를 나눠 1개씩 선정하였다.

68) 「책 중심 도시 조성 정책 수립 연구」 발간이 19년도 5월부터 진행되었으므로 그 이후에 개관한 도서관 위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69) 2023년도 기준, 시립도서관 12개 관, 특화 도서관(작은 도서관) 11개 관이다.

70) 작은도서관은 공공도서관보다 작은 규모의 도서관을 말하는 것으로 공공도서관과 역할은 동일하다. 또한 작은도서관은 〈도서관법 제2조〉에 따라 공립, 사립 작은도서관을 '공공도서관'의 범주에 포함되고 있으므로 본 연구의 대상으로 가능하다.

이용자 중심 디자인 유형에 따라 선정된 전주시 공공도서관 6개 관					
이용자 중심 공간구성과 요소		이용자의 직간접적인 참여		지역 커뮤니티 및 도시와 연계	
				외부공간과 연결	지역과 상생
금암도서관	다가여행자 도서관	우주로 1216	서학예술마을 도서관	학산 숲속 시집도서관	책 기둥 도서관

〈표 5-1〉 분석 대상 공공도서관

### 5.1.2 분석 대상 현황

사례 분석의 대상은 2019년도 이후에 신축된 다가여행자 도서관, 꽃심 시립 도서관 내 우주로 1216, 서학예술마을 도서관, 학산 숲속 시집도서관 4곳과 재개관된 금암도서관, 책 기둥 도서관이다.

기관명	공공도서관 6개 관					
	금암도서관	다가여행자 도서관	우주로 1216	서학예술 마을도서관	학산 숲속 시집 도서관	책 기둥 도서관
개관/ 재개관 년도	2022	2022	2019	2022	2021	2020
도서관 유형	시립도서관	작은도서관	시립도서관	작은도서관	작은도서관	작은도서관
도서관 면적(m <sup>2</sup> )	2536.6	140	596	263	70	361
도서관 층수 (지하)	지상 2층 (지하 1층)	지상 2층 (지하 1층)	꽃심 시립 도서관 내 3층	2층 2동	1개 층	2개 층
도서 수 (권)	120,630	2,094	-	1,125	2,583	9,592

〈표 5-2〉 분석 대상 공공도서관의 현황

## 1) 금암도서관



〈그림 5-1〉 금암도서관 모습 (출처: 직접 촬영)

금암도서관은 1980년 건립된 전주시 최초의 시립도서관으로 2개 층으로 계획되었다. 이후 시설의 노후화와 공간의 비효율성으로 2015년도, 2020년도 두 번에 재개관을 거쳐 현재는 총 지상 2층에 루프탑을 가진 도서관이 되었다. 특히 이 꼭대기 층은 높은 부지에 지어져 있다는 도서관의 특성을 살려 전망을 볼 수 있는 루프탑 형식으로 조성되었다. 해당 도서관의 변화 과정을 살펴보면 특히 층별로 나뉜 후, 층마다 기능에 따라 실로 분류되던 공간계획에서 방음과 프라이버시가 필요한 일부 공간을 제외하고는 모두 개방된 형태로 바뀌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옥상 외에도 1층의 카페와 같은 공용공간이 조성되어 있어 이용자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는 지하 1층, 지상 2층에 루프탑으로 계획되어 있다.



## 2) 다가여행자 도서관



〈그림 5-2〉 다가여행자 도서관 모습 (출처: 직접 촬영)

다가여행자 도서관은 2022년도에 개관한 여행이라는 주제를 테마로 조성된 특화 도서관이다. 본래 다가 치안센터라는 파출소가 자리하고 있었으나 시에서 이를 매입해 도서관으로 리모델링하여 개관하였다. 기존 건물 입구의 계단이나 일부 외벽, 계단실 등을 그대로 활용하여 옛 건물의 흔적을 유지하였다. 여행이라는 테마를 갖고 있어서 주제에 맞는 책을 큐레이션 해 제공하고 있으며, 여행자 유형에 따라 개인 혹은 단체를 위한 다양한 공간들을 층에 따라 조성하였다. 단순 독서 행위뿐만 아니라 여행자들의 커뮤니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작은 공간의 내외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현재는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되어 있으며 1층에 작은 외부공간을 두 곳 계획하였다.

### 3) 우주로 1216



〈그림 5-3〉 우주로 1216 모습 (출처: 직접 촬영)

우주로 1216은 2019년 개관한 전주시립도서관 꽃심 내 3층에 위치한 국내 최초의 트윈세대를 위한 공간이다. 트윈세대란 10대 (teenager)와 사이 (between)을 결합한 합성어로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학생 아이들을 일컫는 단어이다. 해당 공간도 12세부터 16세를 위한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처음 공간의 건립과정부터 현재 운영까지 모두 이용자인 아이들이 직접 참여하며 진행되었다. EUS+ 건축의 서민우, 지정우 소장이 설계하였으며, 책임는 사회문화재단과 씨 프로그램 등이 함께 협업하여 진행하였다. 해당 공간은 2020 대한민국 공간문화 대상 대통령상을 수상한 이력이 있다.

#### 4) 서학예술마을 도서관



〈그림 5-4〉 서학예술마을 도서관 모습 (출처: 직접 촬영)

서학예술마을 도서관은 전주시 한옥마을 아래에 있는 서학동 예술마을에 지어진 예술 특화 도서관이다. 마을 내 오래된 카페 겸 갤러리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2022년도에 개관하였다. 본래 1개 층이었던 두 동의 건물을 증축하고 연결하여 현재는 2개 층 2개 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도서관은 총 4개의 예술 공간으로 분류하여 각각 사진, 연극, 음악, 미술을 주제로 장서를 구분하고 있다. 한 개 동은 온전히 도서관으로 1, 2층을 활용하고 있으며, 야외 브릿지로 이어진 옆 동은 1층은 마을 예술인들을 위한 갤러리로, 2층은 미술 관련 도서관 및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한다. 해당 도서관은 특히 건립 당시 마을 촌장님이 건축 기획 단계부터 참여하여 독특한 공간들이 곳곳에 조성된 것이 특징이다.

## 5) 학산 숲속 시집도서관



〈그림 5-5〉 학산 숲속 시집도서관 모습 (출처: 직접 촬영)

학산 숲속 시집도서관은 평화 2동의 장천제라는 작은 저수지와 학산 초입 사이에 위치한다. 해당 도서관이 있는 평화 2동은 특히 장애인과 노인들과 관련된 복지시설이 많이 있다.<sup>71)</sup> 또한 2동 내 3가에는 전주교도소가 있으며 그 주변으로는 농촌이 많은 현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학산의 숲속 휴식 공간으로 공공도서관이 자리 잡고 있다. 현재 1개 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반 층 내려가고, 반 층 올라가는 공간 구조로 높은 층고를 갖고 있다. 또한, 한쪽 면마다 커다란 창이 뚫려있어 작은 규모임에도 공간의 답답함이 없도록 하였다. 또한 계단식 구조로 되어 있어 지역 작가와 가수들에게 소규모 공연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71) 전주문화재단. (2018). 전주시 마을조사 “동심찾기” 평화2동 마을조사서. p.159

## 6) 책 기둥 도서관



〈그림 5-6〉 책 기둥 도서관 모습 (출처: 직접 촬영)

책 기둥 도서관은 전주 시청 1층에 자리를 잡고 있다. 전주시는 시청의 로비 공간을 도서관으로 리모델링하여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해당 도서관은 높은 층고를 가진 로비의 기둥을 책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또한 한 쪽에 2층으로 올라가는 공간을 만들어 일부 좌석을 분리하였다. 본래 관료적이고 무거운 이미지를 가진 시청은 민원과 같은 특정 목적을 갖고 방문하는 장소였다. 그러나 공공도서관으로 바뀌고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편하게 방문할 수 있게 되며 기존의 이미지를 탈피하게 되었다 볼 수 있다.

## 5.2 분석 결과

### 5.2.1 전주시 공공도서관의 이용자 중심 공간구성과 요소

1.	〈금암도서관〉		
<p>평면 다이아그램</p>	<p>가족 독서, 어린이 독서, 화상실, 회의실, 강의실, 동선공간, 카페, 휴/전시, 안내/사무실, 일반자료, 로비/공연/독서, 전망/운동/독서</p>		
<p>이용자 중심 공간구성과 요소</p>	<p>정책적 대응</p> <p>공공도서관의 내부 공간은 자료 공간, 이용자 공간, 직원 공간, 공유공간으로 구분하여 계획한다.</p>	<p>실제 구현 방법</p> <p>독서 공간을 이용자 유형에 따라 나누어 구성하였다. 공간을 하나의 실로 만드는 게 아니라 영역만 구분하여 사실상 다양한 공간에서 독서 행위가 일어날 수 있게 조성하였다. 또한 공유 공간에서 다양한 공동체 활동이 일어날 수 있게 한다.</p>	<p>참여 이용자</p> <p>행정 및 운영 관계자 건축 관련 전문가</p>
<p>사진</p>			
<p>의의</p>	<p>이용자들이 자료 공간 혹은 열람 공간뿐만 아니라 공용공간에서도 자유롭게 독서를 진행할 수 있으며, 공유공간을 다양하게 활용해 많은 이용자와 지역공동체를 위한 공공도서관의 역할을 하고 있다.</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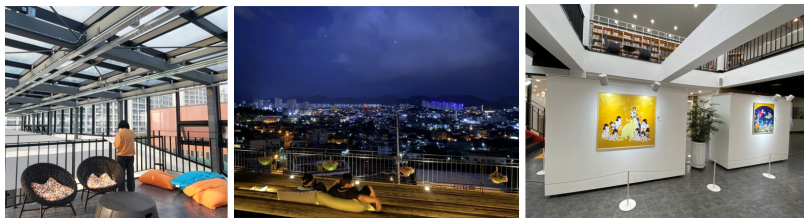
출처: 평면 다이어그램(연구자 작성), 사진-좌(직접촬영), 사진-우(전주시립도서관 홈페이지)

1) 금암도서관은 리모델링을 거치며 과거와 다른 공간구성 현황을 보인다. 임준범(2009)의 연구를 통해 본 리모델링 전 2008년도의 금암도서관은 수직적이며 공간을 단순히 계단과 복도와 같은 연결공간으로 구성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자유 열람실은 학생들의 공부방 역할이었고, 당시 어린이를 위한 독서공간이 별도로 마련되어있지 않던 것으로 확인했다.<sup>72)</sup> 또한 전시 공간도 따로 마련되지 않아 도서관 내 복도에 간이식으로 설치했었다.



〈그림 5-7〉 리모델링 이전 금암도서관 공간구성도. (출처: 임준범. (2009))

그러나 2020년도 리모델링 이후, 이용자 유형에 따라 영역을 구분하게 되었다. 1층 열람 공간은 어린이와 가족 단위로 구분하였고, 2층 자료 공간은 개인과 집단에 상관없는 공간으로 구성하였다. 자료는 로비 공간이나 루프탑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특히 루프탑은 전주시에서 해당 도서관의 위치가 전망에 용이하다는 점을 활용하며 새로 조성하였다. 그 외에도 건축가와 전주시 도서관 시설과의 협의를 통해 로비나 복도 같은 공유공간의 다양한 사용이 가능하도록 구성했으며, 조명, 가구, 소품은 시설과 직원들이 대부분 직접 구하였다.<sup>73)</sup>



〈그림 5-8〉 다양하게 조성된 공유공간 모습들 (출처: 전주시립도서관)

72) 해당 선행연구에서는 금암도서관을 포함한 총 6개의 공공도서관을 조사했으며, 해당 도서관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현황 파악을 위한 자료 정도였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평면이나 공간을 파악하기엔 한계가 있었다. 임준범 외 2인. (2009). 공공도서관 지역분관의 공간계획방향에 관한 연구 -전주시 도서관 이용자요구를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연합논문집, 11(4). p.77

73) 2022.05.28. 금암도서관 답사 중 확인한 전주시 도서관 부서 관계자의 설명이다.

2.	〈다가여행자 도서관〉		
<p>평면 다이어그램</p>			
<p>이용자 중심 공간구성과 요소</p>	<p>정책적 대응</p> <p>자료 중심에서 이용자 중심으로 공공도서관이 바뀌어야 한다. 이에 맞는 공간 요소의 재구성을 통해 이상적인 공간 구성을 구축한다.</p>	<p>실제 구현 방법</p> <p>업무 공간을 따로 하나의 실로 구분하지 않는 형태로 구성하였다. 또한 이용자를 개인과 그룹으로 나눠 각각의 유형에 맞는 공간을 조성하였다. 이때,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공간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p>	<p>참여 이용자</p> <p>일반 시민 행정 및 운영 관계자</p>
<p>사진</p>			
<p>의의</p>	<p>업무 공간이 사실상 자료 공간에 포함되어 있고, 작은 외부공간 조성부터 내부에 개인만을 위한 공간이 층별 분리가 되어있는 등 전반적으로 기능 중심 공간구성에서 벗어난 모습을 보인다.</p>		

출처: 평면 다이어그램(연구자 작성), 사진-좌,우(직접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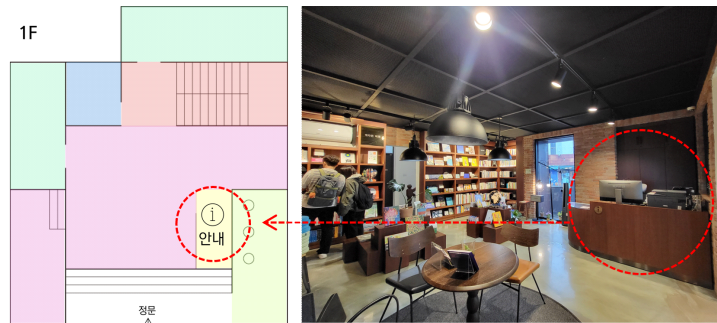


2) 다가여행자 도서관은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총 3개 층에 공간이 나누어져 있으며 그 중 지하는 다가독방이라는 명칭처럼 개인 혹은 2명만 사용할 수 있는 프라이빗한 공간이다. 그와 반대로 2층은 여러 사람이 사용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1층의 야외공간은 여러 명이 사용할 수 있지만, 옥상의 야외공간은 개인이 점유하는 공간들이 몇몇 존재한다. 이처럼 이용자의 사용 인원수에 따라 공간을 구성하고 있는 현황을 보인다. 이러한 공간은 기존에 전주시에서 도서관 비 이용자의 설문조사를 통해 개인공간을 지향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 후 반영한 것으로 일반 시민들의 간접적인 참여가 반영된 것이다.



〈그림 5-9〉 지하실과 옥상의 프라이빗 공간 (출처: 직접 촬영)

또한 업무 공간 같은 경우 도서관의 규모가 작아 많은 공간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영역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자료 공간과 합쳐져 있는 구성을 보인다. 이는 기존의 공간구성이 업무와 자료의 영역을 기능에 따라 분류하던 방식과는 다른 점으로 이처럼 도서관의 규모에 따라서는 관습화된 공간구성에서 벗어나 다양하게 조성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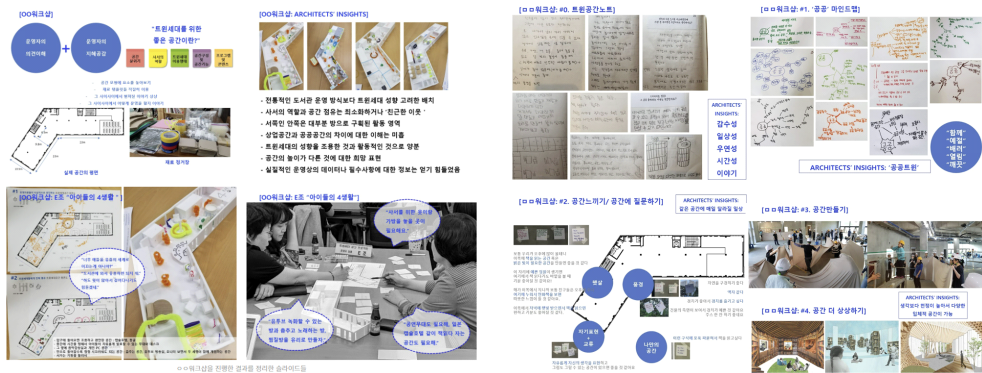
〈그림 5-10〉 자료 공간과 합쳐진 업무 공간 (출처: 직접 촬영)

### 5.2.2 전주시 공공도서관 내 이용자의 직·간접적인 참여

<p>3.</p> <p>평면 다이아그램</p>	<p style="text-align: center;">〈우주로 1216〉</p> <p><b>속속존</b> 손과 도구가 만나 상상을 실현하는 ○동영상을 보고 함께 만들어보아요 ○영상장비를 활용해, 카세트가 있는 속속디오 ○무엇이든 만들어보아요</p> <p><b>독독존</b> 트윈세대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공간 ○우주로1216에서 처음 만나게 되는 곳 ○자유로운 분위기 ○용과 정을 기쁘게, 서용할</p> <p><b>공공존</b> 함께 마음과 생각을 나누며 성장하는 공간 ○서로의 이야기를 공유할 수 있는 <b>공공탁대</b> ○관람하는 콘텐츠를 함께 관람할 수 있는 <b>공공계단</b> ○자유로운 수다와 휴식을 위한 <b>장가공간</b></p> <p><b>공공존</b> 나를 발견하고 세상을 탐색하는 ○혼자만의 시간을 만들 수 있는 <b>유식공간 <b>공책</b></b> ○도란도란 <b>부담없는 <b>공책</b></b> ○고즈넉한 <b>장가공간</b></p>		
<p>이용자의 직·간접적 참여</p>	<p>정책적 대응</p> <p>이용자의 수요를 적절하게 반영하기 위해 전문가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한다. 설문조사 결과 연령별 계층별 특성에 기반해 도출된 주제 중 하나로 '청소년'이 선정되었다.</p>	<p>실제 구현 방법</p> <p>공간을 기획하며 디자인 워크 샵을 진행했다. 하나는 도서관 전문가인 사서들과 진행하였 고, 또 하나는 공간의 이용자 인 트윈세대들과 진행하였다. 이들의 특성과 수요를 파악하 여 창작 공간부터 열람 공간까 지 다양하게 조성하고 스스로 운영하게 하였다.</p>	<p>참여 이용자</p> <p>일반 시민 행정 및 운영 관계자 건축 관련 전 문가</p>
<p>사진</p>			
<p>의의</p>	<p>건축가가 적극적으로 워크샵을 활용하여 사서들과 향후 공간을 운영 및 이용할 청소년들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공간에 반영하며 함께 건립과정을 진행했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는 도서관이다.</p>		

출처: 평면 다이어그램(전주시립도서관 홈페이지), 사진-좌,우(직접촬영)

3) 우주로 1216은 국내 최초 트윈세대를 위한 공간으로 제작, 전시, 공연과 같은 행위들이 아이들의 운영하에 진행된다. 이 공간의 목적은 독서 진흥이 아닌 청소년들 주도적인 공간 운영과 진행에 있다. 따라서 이를 직접 사용하고 운영할 청소년들의 의견이 해당 공간 구성에 주요점이 되었다. 이에 건축사무소에서 공간 기획 단계부터 디자인 워크숍을 진행해 공간에 반영하고자 하였다. 워크숍은 총 두 가지로 첫 번째는 운영하는 사서들과 먼저 워크숍을 진행하였고, 두 번째로는 사용하는 트윈세대들과 워크숍을 가졌다.



〈그림 5-11〉 사서들의 워크숍(좌) 트윈세대들의 워크숍(우)

(출처: 브런치 스토리, <https://brunch.co.kr/@gradation/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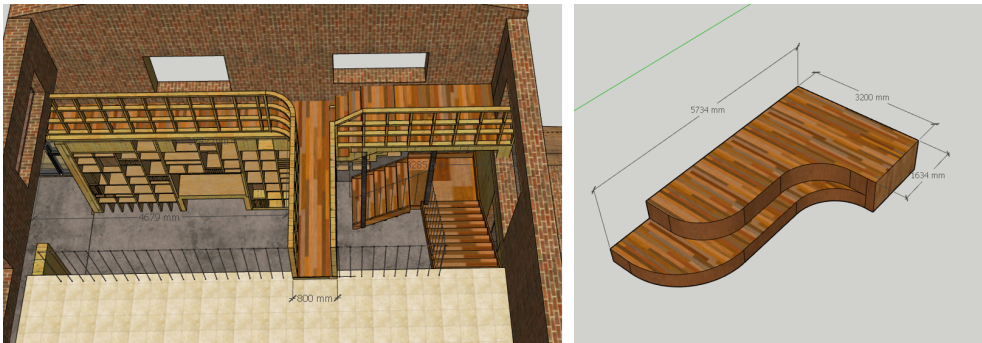
사서들과는 전문적인 의견을 나누며 함께 트윈세대에 대해 고민하고, 이를 위해 직접 공간 모형에 배치해보는 워크숍을 진행하였다. 이용자인 트윈세대들과는 좀 더 단계별로 진행하였는데, 먼저 이들의 일상 속 공간들에 대해 세밀한 질문을 하며 이해도를 높였다. 두 번째로 공공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며 이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앞으로 만들어질 트윈공간이 여러 사람을 위한 공간이며, 해당 워크숍이 ‘공공적인 활동’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한다. 세 번째로 마감 전인 도서관 공간을 방문해 직접 느껴보며, 공간이 완성되었을 때 어떤 느낌이고, 무엇이 보였으면 좋겠는지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마지막으로 실제 공간에 천과 테이프를 이용해 영역을 나눠 공간감을 느껴보며 앞으로 만들어질 공간에 대해 상상하고 의견을 나누었다고 한다.<sup>74)</sup> 이러한 워크숍을 토대로 총 4개의 영역을 나눠 구획하여 트윈 세대들의 다양한 에너지 레벨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였다.

74) 해당 과정들을 담은 칼럼을 내용에 참고했다. <https://brunch.co.kr/@gradation/4>

4.	〈서학예술마을 도서관〉		
<p>평면 다이아그램</p>			
<p>이용자의 직·간접적 참여</p>	<p>정책적 대응</p> <p>이용자의 수요를 적정하게 반영하기 위해 전문가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한다. 건립과정에 적극적으로 이용자가 참여하였다.</p>	<p>실제 구현 방법</p> <p>공간 디자인 과정에 예술마을 촌장과 마을 주민들이 직접 참여했다. 큰 공간계획부터 디테일한 가구와 건물 마감까지 참여했고, 그 결과 브릿지나 다락과 같은 다양한 공간들이 내부에 구성되었다.</p>	<p>참여 이용자</p> <p>일반 시민 기타 전문가</p>
<p>사진</p>			
<p>의의</p>	<p>이용자가 건립과정의 초기부터 완공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해 전반적인 틀을 끌고 갈 수 있었다. 또한 마을 주민들이 모두 예술 종사자라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 협업을 진행해 하나의 프로젝트를 완성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는 도서관이다.</p>		

출처: 평면 다이어그램(연구자 작성), 사진-좌(직접촬영),우(©곽승호)

4) 서학예술마을 도서관은 한옥마을 남쪽의 서학예술마을 초입에 있는 예술 특화 도서관이다. 본래 지역 내 카페와 갤러리로 이용하던 공간을 리모델링 하였으며, 해당 도서관 마을 거주민인 예술가들이 공간을 구성에 직접적으로 참여했다. 특히 당시 서학예술마을 촌장인 곽승호 작가는 해당 도서관의 건축 기획과 디자인 과정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해 공간을 구성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공간의 방향성에 대한 상의에서 시작해 결과적으로는 직접 3d 작업을 진행하며<sup>75)</sup> 시와 의논하고, 공간에 어울리는 가구를 직접 제작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고착화 된 디자인에서 벗어나 내부에 다양한 공간 요소들을 넣고자 했다. 크지 않은 규모임에도, 오르락내리락하는 공간, 눕는 공간, 숨는 공간, 다락, 마루, 내부 브릿지, 외부 브릿지 등등이 조성되어 있다.



〈그림 5-12〉 브릿지와 곡선 마루 작업 이미지. (출처: ©곽승호)

공간의 구성뿐만 아니라 가구와 기타 디테일 부분들도 모두 의견을 반영해 진행하였다. 공간에 어울리는 서가를 위해 MDF 목재가 아닌 직접 고재를 구해 주변 목수들과 함께 가구를 제작하고, 기존에 있던 방화문을 활용하며 딱딱하고 두꺼운 이미지를 깨기 위해 문에 창을 내고 조형물을 설치하였다. 또한 도서관 앞 조경에 지역 예술가들과 아이디어를 내 타일을 제작하는 등 마을 주민 예술가들이 각자의 전문 분야를 맡아 협업을 진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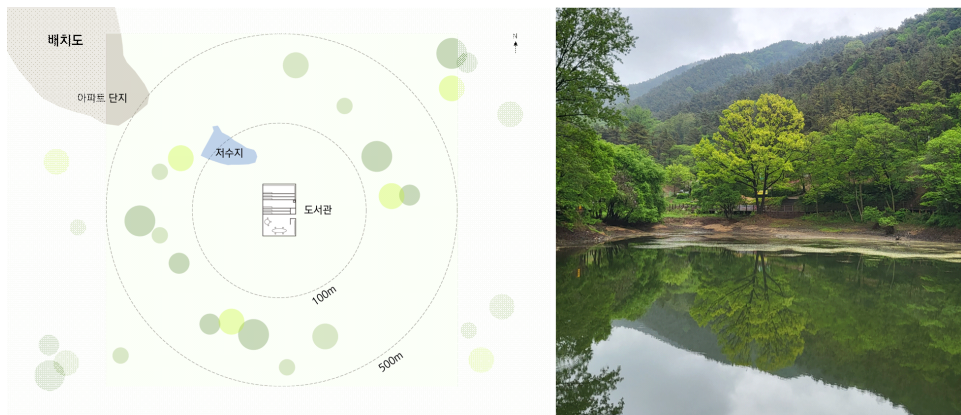
75) 마을의 촌장이던 곽승호 작가가 인테리어 사업자가 있었으며 기존에 초등학교 도서관 인테리어 작업을 한 경험이 있었다고 한다. 당시 전주시에서는 처음에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진행했으며 결과적으로 디자인, 인테리어, 가구, 마감 단계까지 촌장이 모두 참가하게 되었다. 230525 곽승호 작가 직접 인터뷰.

### 5.2.3 전주시 공공도서관의 지역 커뮤니티 및 도시와의 연계

5.	<b>〈학산 숲속 시집도서관〉</b>		
평면 다이아그램			
지역 커뮤니티 및 도시와의 연계	정책적 대응	실제 구현 방법	이용자 유형
	독서를 하며 옥외공간을 즐길 수 있는 계획을 조성하거나 내부에서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을 통해 도시와 물리적인 연계가 가능하게 한다.	도서관의 입지를 자연과 가까운 곳에 선정하였으며, 내부 재료도 전부 나무와 통유리로만 조성했다. 이 통 창을 통해 주변의 자연을 공간을 조망하며 시집을 볼 수 있는 환경이다.	행정 및 운영 관계자
사진			
의의	도서관의 내부 공간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 조건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보여주는 사례이다. 도심에서 접근성도 좋아서 많은 이용자가 부담없이 찾아와 휴식할 수 있는 도서관이다.		

출처: 평면 다이어그램(연구자 작성), 사진-좌,우(직접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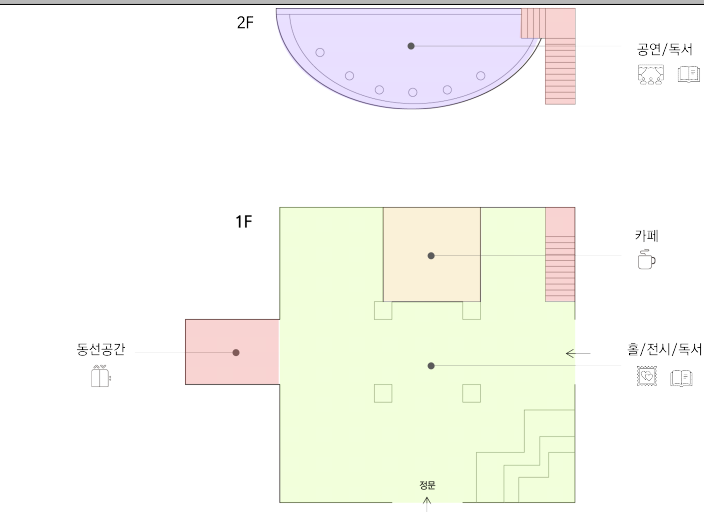

5) 학산 숲속 시집도서관은 그 이름처럼 숲으로 둘러싸여 있는 도서관이다. 공간은 하나의 방 형태이지만 위아래로 반 층씩 각각 단차를 주어 다양한 분위기와 기능을 제공하고, 높은 층고로 인해 공간이 상대적으로 비좁다고 느껴지지 않게 한다. 무엇보다 한쪽 면은 거의 모두 투명한 창으로 만들어 바깥을 조망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창을 통해 주변의 숲이 보이고, 반 층 올라간 다락에서는 멀리 저수지 일부가 보인다. 내외부에 모두 목재를 사용해 숲속이라는 주변 공간과 이질감이 들지 않게 조성한 노력이 보인다. 이는 전주시 정책과 기획팀에서 주변환경과 맥락을 해당 도서관 기획의 주안점으로 삼아, 가능한 자연 생태와 어울릴 수 있게 기획한 결과이다.



〈그림 5-13〉 도서관 주변 현황. (출처:좌(직접 작성), 우(직접 촬영))

주변 환경을 살펴보면, 이 도서관은 전주시 내 학산의 등산로 초입에 자리 잡고 있으며, 주변에 아파트 단지와 장천제라는 저수지가 있어, 산지인 것에 비해 접근성이 다른 곳보다 수월하다. 실제로 버스를 타고 도보 10분 정도 떨어진 위치에 있으며, 본격적인 오르막이 시작하기 전에 도서관이 있으므로 방문이 어렵지 않다. 이처럼 숲속에 위치해도, 인근 주민들과 등산객들이 편하게 방문하는 쉼터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성하였다.<sup>76)</sup>

76) 230626. 도서관 정책과 직원과의 통화를 통해 확인한 내용으로 전문은 부록에 첨부하였다.

6. <책 기둥 도서관>			
평면 다이아그램			
지역 커뮤니티 및 도시와의 연계	정책적 대응	실제 구현 방법	이용자 유형
	<p>도서관이 저자와의 만남과 같은 책과 관련한 행사에 공간을 제공해 사람과 사람의 만남의 광장 역할을 할 수 있다.</p>	<p>소멸해가는 지역 생활권별 동네서점들과 협업을 진행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공간을 대여해주었다.</p>	<p>일반 시민 행정 및 운영 관계자 기타 전문가</p>
사진			
의의	<p>공공도서관이 지역 내 다른 독서생태계 권의 시설들을 운영 프로그램적 차원을 넘어 물리적인 공간을 직접 제공하며 지원해준다는 데에 해당 사례의 의의가 있다.</p>		

출처: 평면 다이아그램(연구자 작성), 사진-좌(직접촬영), 우(이미숙. 2021. 한국강사신문)



6) 전주 시청 로비에 있는 책 기둥 도서관은 지역 생활권과의 연계를 이뤄 낸 사례라고 볼 수 있다. 당시 전주시에서 책 기둥 도서관의 컨셉을 독서생태계 선순환구조의 구축으로 설정했으며, 쇠퇴하던 동네 서점이 마침 코로나까지 겪으며 더욱 어려워진 상황에 이르자 활성화 지원을 시작하게 되었다. 당시 사업을 담당하던 전주시 도서관 정책과 내 기획 파트의 사업 담당자들이 기존의 협력 서점과 동아리 등에 자문도 진행하며 이와 같은 공간을 조성하게 되었다.



〈그림 5-14〉 전주책방 네트워크 발대식(좌), 책 기둥 도서관에서 강연하는 모습(우)  
(출처:좌-이휘빈, 2020. 전북도민일보, 우-천경석, 2022. 전북일보)

전주시에는 전주책방 네트워크라는 동네서점들의 연합이 구성되어 있다. 시에서는 이들을 위해 책 기둥 도서관의 2층 공간을 서점별로 1달씩 제공하며, 릴레이 동네 책방 기획 강연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동네 책방 혹은 서점들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아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시에서 해당 공간을 제공하며 서점 주인 격인 책방지기가 각자의 관심사에 맞는 북 큐레이션과 강연을 기획하고, 또 책방 홍보도 함께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 것이다.

책 기둥 도서관은 공공도서관이 소멸해가는 서점과 문방구와 같은 생활권별 독서 관련 상업시설들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주민들도 새로운 책 문화를 접할 기회를 얻게 된 사례이다. 나아가 동네 책방도 하나의 문화공간이 되며 지역의 독서생태계가 순환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공공도서관이 조성했다고 볼 수 있다.

### 5.3 소결: 전주시 공공도서관 사례 종합 분석

지금까지 2019년 이후부터 지어진 전주시 공공도서관 6곳 (금암도서관, 다가여행자 도서관, 우주로 1216, 서학예술마을 도서관, 학산 숲속 시집도서관, 책 기둥 도서관)의 현황을 이용자 중심 디자인의 관점에서 각각 유형별로 분석을 진행했다. 전주시 이용자 중심 디자인 공공도서관 정책에 대응한 실제 사례 분석의 소결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이용자 중심 디자인 유형에 따라 사례 분석을 진행한 결과, 전주시 공공도서관이 전반적으로 정책적으로 대응한 내용에 맞춰 실제 사례에서도 이를 구현하고자 노력했음을 알 수 있었다. 공간구성과 요소 같은 경우, 금암도서관은 확연하게 다른 리모델링 전과의 비교를 통해, 공간구성의 중요도가 기능에서 이용자와 공용공간으로 변한 것을 확인했다. 다가여행자 도서관도 기능에 따라 공간구성이 이뤄지기보다는 도서관 이용자의 목적이 혼자만의 공간을 지향하는지 혹은 여러 사람과 소통할 공간이 필요한지에 따라 선택할 수 있게 구성되어 있었다.

다음으로 이용자의 직간접적인 참여 같은 경우 사례를 통해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한 간접적인 참여는 충분히 반영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지만, 정책에서 언급한 입지 선정에 과정 내 주민의 참여도는 사례 분석만으로 파악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오히려 정책에서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2장의 이용자 중심 유형의 틀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언급된 구산동 도서관 마을처럼 실제 건축 기획과 디자인 과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부분이 잘 드러난 것으로 보였다. 정책에 기재된 것처럼 건립 배경 일부를 결정하는 정도를 넘어, 공간을 조성하는 건축 과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했다는 점이 사례 분석을 통해 드러났다. 즉, 이는 오히려 정책보다 사례를 통해 이용자의 참여를 통한 이용자 중심 디자인의 공공도서관 구현 방안을 확인할 수 있었던 점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앞의 두 유형과 달리 지역 커뮤니티 및 도시와의 연계에서는 실질적인 사례의 아쉬움도 일부 있었다. 학산 숲속 시집도서관을 통해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까지 고려하는 공간 조성 방안은 잘 반영된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지역 커뮤니티나 기타 시설과의 연계에서는 본래 정책 연구를 진행하며 파악한 49개의 여러 유형의 시설이 있었으나 실제로는 이 중 동네 책방 11곳과의 연계를 보여주는 사례만 있다는 아쉬움이 있었다. 그렇지만 일반적인 도서관 매뉴얼에서 단순히 운영계획 상 도서관 네트워크가 필요하다는 정도로 표면적인 제안만 하는 것과 비교해봤을 때, 해당 공간 기획을 도서관 부서 내 정책과에서 아이디어를 내고 시민들이 공간을 운영하는 형태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분석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본래 각 이용자 중심 디자인 요소 별로 가장 적합한 사례를 선정해 분석을 진행했으나 실제 결과로는 세 가지나 두 가지 유형이 섞여 있는 사례가 대부분임을 알 수 있었다. 예컨대 다가여행자 도서관 같은 경우, 공간구성 외에도 이용자 수요 조사에 따른 개인 프라이버시 공간도 잘 조성하면서 동시에 독서가 가능한 옥외공간도 제공해, 사실상 세 가지 유형 모두를 구현하고 있는 좋은 사례라고 판단할 수 있었다. 그러나 본 장의 분석 목적은 전주시 공공도서관을 평가하는 것이 아닌, 정책에서 언급한 사항들을 실제 공간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현해냈는지와 이용자가 어떻게 관여하고 있는지를 밝히는 데에 있다.

이용자 유형 전주시 도서관	직접적 이용자		간접적 이용자	
	일반 시민	행정 및 운영 관계자	건축 관련 전문가	기타 전문가
금압도서관		●	●	
다가여행자 도서관	●	●		
우주로 1216	●	●	●	
서학예술마을 도서관	●			●
학산 숲속 시집도서관		●		
책 기둥 도서관	●	●		●

〈표 5-3〉 전주시 공공도서관 사례별 관련 이용자 유형

각 도서관의 공간을 조성하는 데에 영향을 준 이용자의 유형을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직접적 이용자인 일반 시민과 행정 및 운영관계자가 간접적 이용자보다 많았으며, 간접적 이용자도 완벽히 배제하진 않고 있었다(표 5-3). 이는 3장의 분석 결과, 공공도서관 통합디자인이 건축 관련 전문가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던 것과는 확연히 다른 양상으로, 전주시가 더 다양한 이용자를 포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처럼 전주시는 사례를 통해 이용자 중심 디자인을 여러 방면에서 반영하여 구현하고 있었다.

본 장을 통해 확인한 중요한 사실은 공공도서관 통합디자인이 충분히 개선될 수 있다는 점이다. 정책과 사례를 통해 보여지는 전주시의 공간 디자인과 방향들은 결국 본래 지침인 매뉴얼의 한계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사실상 공공도서관 통합디자인의 보완점에 자체적으로 대응해 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전주시 공공도서관의 사례 분석을 토대로 발견한 이용자 중심 디자인 방안들을 활용하여 「공공도서관 건립·운영 매뉴얼」의 ‘공공도서관 통합디자인’을 개선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 제 6 장 결 론

### 6.1 연구의 요약과 결론

본 연구는 이용자 중심 디자인이 실제 공공도서관 건축 지침인 ‘공공도서관 통합디자인’에 반영되었는지 살펴보고 이에 대한 보완점을 전주시의 정책적 대응과 실제 공공도서관 사례를 통해 개선하는 것을 중심으로 다루었다.

이용자 중심 디자인은 오늘날 공공도서관의 주안점이 자료에서 이용자로 변화하며 자연스럽게 중요시되는 요소이다. 이용자 중심 디자인의 유형은 다수의 연구를 분석하고 종합하여 이용자 중심 공간구성과 요소 적용, 이용자의 직·간접적인 참여 반영, 지역 커뮤니티 및 도시와의 연계 고려로 분류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디자인을 건립과정에 반영하는 이용자의 유형을 일반시민, 행정 및 운영관계자, 건축 관련 전문가, 기타 전문가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분석의 틀을 토대로 실제 건축 지침에 해당하는 공공도서관 통합디자인에 이용자 중심 디자인 반영 여부를 확인해 본 결과, 전반적으로 잘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침의 내용도 대부분 전문가 집단에 맞춰져 있었으며, 특히 이용자 유형 중 간접적 이용자인 건축 관련 전문가에 많이 집중되어 있었다.

공공도서관 통합디자인에 대응한 전주시의 도서관 정책을 살펴보았을 때, 자료와 기능 중심의 공간구성이 아닌 이용자 중심 공간구성을 지향하고 있었다. 또한, 전문가에 치중한 업무지침 양상을 보이거나 일률적으로 오픈플랜을 강행하지 않고, 실제 이용 또는 비 이용계층의 의견을 반영한 공간을 조성하고자 했다. 마지막으로 개별 도서관 활성화와 내부 공간 조성뿐만 아니라 도서관의 내외부와 지역공동체, 도시와의 연계로 확장하여 고려하고 있었다.

구분 전주시 도서관	이용자 중심 디자인 반영 방법	참여 이용자
금암도서관	1) 기능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자료, 이용자(가족, 어린이, 개인), 공유로 공간을 구성. 2) 주변 환경을 고려한 새로운 루프탑과 중앙 아트리움 이용한 공유공간을 구성. 3) 영역 구분이 없는 공유공간에서 다양한 독서가 가능하도록 조성.	행정 및 운영관계자 건축 관련 전문가
다가여행자 도서관	1) 비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도출한 개인의 프라이빗한 공간 지향을 적용하여 층 별로 공간을 구성. 2) 도서관의 규모에 따라 공간구성의 영역을 구분하지 않고 업무 공간과 자료 공간을 합쳐서 조성.	일반 시민 행정 및 운영관계자
우주로 1216	1) 건축가가 적극적으로 도서관 사서, 청소년들과 각각 워크숍을 진행. 2) 워크숍 토대로 이용자의 특성과 수요를 파악하고,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의견을 공간에 반영.	일반 시민 행정 및 운영관계자 건축 관련 전문가
서학예술마 을 도서관	1) 마을 거주자인 예술인들이 적극적으로 공간계획, 인테리어, 건물 마감까지 참여해 다양한 공간을 조성. 2) 가구와 조경도 마을 내 각각의 담당 전문가들이 협업하여 완성.	일반 시민 기타 전문가
학산 숲속 시집도서관	1) 주변환경과 맥락을 공간 기획의 주요 고려 사항으로 설정. 2) 숲속이라는 특수한 주변 조건이 건물 내부와 이질적이지 않도록 내외부를 총체적으로 고려.	행정 및 운영관계자
책 기둥 도서관	1) 독서생태계 순환을 위해 소멸해가는 지역 생활권 내 동네서점들과 협업하는 기획을 진행 2) 도서관 내 특정 공간을 서점들에 일정 기간씩 대여하여 서점 주인들이 직접 기획과 운영하도록 지원	일반 시민 행정 및 운영관계자

〈표 6-1〉 전주시 공공도서관 사례 및 참여 이용자

이러한 정책을 토대로 구현된 전주시 내 공공도서관 6개 관을 사례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각각의 도서관들 내 이용자 중심 디자인 공간과 이에 참여한 이용자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6-1>과 같다.

전주시 공공도서관의 이러한 결과는 공공도서관 통합디자인과 비교했을 때, 통합디자인이 9가지 항목 중 한 가지만 이용자 중심 디자인을 반영하던 것과 달리 전주시는 모두 잘 반영하고 있었다. 또한 참여 이용자도 현재 통합디자인은 직접적 이용자는 배제한 채, 대부분 건축 관련 전문가를 중심으로 지침을 제안하며 일부 기타 전문가를 포함하고 있었다. 이에 비해 전주시는 모든 유형의 이용자를 포괄하고 있었으며 그중에서도 직접적 이용자인 일반 시민과 행정 및 운영관계자가 중심이 되어 공간을 조성하고 있었다. 따라서 전주시의 공공도서관이 이용자 중심 디자인을 더 잘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용자 유형		공공도서관 통합디자인	전주시 공공도서관
직접적	일반 시민	X	○
	행정 및 운영 관계자	X	○
간접적	건축 관련 전문가	○	△
	기타 전문가	△	△

\*○: 참여하고 있음 △: 일부 참여하고 있음 X: 참여하지 않고 있음

<표 6-2> 공공도서관 통합디자인과 전주시 공공도서관의 이용자 참여 비교

## 6.2 공공도서관 통합디자인의 개정 방향과 구체적인 개선안 제시

### 6.2.1 이용자와 공공도서관의 관계 정립

현재의 「공공도서관 건립·운영 매뉴얼」은 도서관을 건립하는 전문가들의 이해를 돕는 지침으로서 역할에는 적합하나, 전반적으로 그보다 먼저 공공의 이용자와 지역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이 공공도서관이라는 시설의 역할을 파악하는 데에는 아쉬움이 있다. 따라서 매뉴얼 개정을 위해 4, 5장에서 살펴본 전주시 공공도서관을 통해 오늘날 이용자와 공공도서관이 맺는 관계에 대해 먼저 정립하고 이해해야 하며, 이러한 관점에서 현재 매뉴얼이 다루지 못하는 부분들을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1) 전주시는 이용자의 유형을 분류하거나 도서관의 규모에 따라 실제 이용자의 행태를 공간구성에 반영하는 등, 공공도서관의 공간구성 조성에 있어 이용자의 영향을 확장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현재 매뉴얼은 공간구성의 기본계획과 영역별 세부 공간 항목을 제시하며 변화하는 이용자들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반영하지 않고 있다. 과거에 설정된 기능에 따른 공간구성을 견지하고 있어, 그로 인해 오늘날 이용자가 과거 소극적이었던 것에서 적극적이고 창의적으로 전환하는 상황들을 공간이 수용해주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2) 전주시는 건축가나 자문위원, 시공자와 같은 직접적인 건립 관계자 외에도, 전주시 내 도서관 이용자뿐만 아니라 비 이용자와 지역 상권과 직결된 주민들의 의견도 수용하여 공공도서관 건축에 반영하였다. 즉, 본 연구에서 정의한 이용자를 건립과정의 구성원으로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매뉴얼은 도서관의 건축공간 계획 항목의 결정권을 모두 간접적 이용자에게만 부여하며 특히 그 중 건축 전문가에 집중하고 있다. 따라서 매뉴얼 개정을 위해 공공도서관 건립 시 전문가의 역할에 대해 재고해, 이들이 이용자들의 행동과 경험을 전문적인 관점에서 단정 지어 버리는 게 아닌, 여러 사람의 의견을 종합한 최



선의 방안을 도출해 내는 것으로 설정해야 한다.

3) 전주시 공공도서관은 각 지역의 상권 또는 맥락을 파악해 도시 내 다른 시설이나 주민들과 연계하며 상생하는 효험이 나도록 건축에 반영하고 있다. 이를 위해 내부 공간의 일부를 조성해 대여해주기도 하고, 내부뿐만 아니라 도시와 직접적으로 닿아 있는 외부공간을 활용하기도 한다. 전주시는 공공도서관을 단순히 책을 읽는 공간에서 확장해 다양한 계층과 연령대 사람들의 시설로 자리 잡도록 역할을 일임하였다. 하지만 현재 매뉴얼은 공간구성이나 공간 배치 및 계획 시 지역공동체를 파악하거나 반영하는 절차가 없으며, 외부공간은 배제하고 내부 공간과 인테리어에 초점을 두고 있다. 통합이미지 개발 항목에서도 공공도서관과 주변 시설 혹은 주민들과의 상호관계를 헤아리는 관점이 아닌 해당 도서관 건물 하나의 랜드마크성과 정체성에만 집중하고 있다. 따라서 공공도서관과 도시의 관계를 고려하는 관점을 토대로 내외부 공간의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잡는 건립 방향이 설정되어야 한다.

민간 도서관의 궁극적인 목적이 개별 도서관 활성화를 통해 많은 방문자를 끌어들이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라면, 공공도서관은 더 큰 범위에서 도서관의 역할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이처럼 공공도서관과 이용자 그리고 도시에 대한 관계성에 대한 고려와 이해가 선행되어야, 건립을 위한 통합디자인의 개정 방향과 그에 따른 구체적인 개선안이 실질적으로 제안될 수 있다.

## 6.2.2 공공도서관 통합디자인의 개정 방향 제안

앞서 2장과 3장을 통해 「공공도서관 건립·운영 매뉴얼」의 ‘공공도서관 통합디자인’은 오늘날 이용자 중심 디자인 공공도서관이 되기 위해 보완할 점이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특히 이러한 결과는 도서관의 최상위계획이라 할 수 있는 「도서관발전종합계획」과 상응하지 않아 공공도서관의 궁극적인 비전과 실제 건립된 건축물 사이의 간극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차이가 누적된다면, 국내 도서관의 중장기 발전계획의 의의가 저하됨과 동시에 시대적 요구와 흐름에 맞지 않는 공공도서관이 건립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오늘날 공공도서관의 주요 개념인 이용자 중심 디자인을 도입하고 실질적인 구현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는 실제 건립 지침인 「공공도서관 건립·운영 매뉴얼」의 ‘공공도서관 통합디자인’ 개선이 필수적이다. 이에 이용자와 공공도서관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먼저 개정 방향을 제시한다.

### 1) 새로운 이용자 중심 공간구성 유형의 도입

공공도서관의 필수 기능과 이를 기반으로 하는 공간구성은 12년 동안 변화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와 다르게 사례 대상은 다양한 공간구성을 제시하며 모두 기능이 아닌 이용자에 따라 공간을 분류하는 모습을 보였다. 따라서 보다 적극적으로 이용자 개념을 연구하고 공간 방향에 도입하여 이를 공간구성으로 까지 끌고 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이용자를 분류할 기준에 대해 먼저 고민하고 여러 기준의 대안을 제시하여 상황에 맞는 것을 선택해야 한다.

### 2) 이용자의 다양한 참여를 수용하는 전문가 의견 필요

현재 공공도서관은 전문가로만 이루어진 구성원들을 토대로 과업과 계획이 수행되고 있다. 그러나 공공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특정 집단이 아닌 더 다양한 의견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전문가와 이용자 중에서 중요도를 가리거나, 각각의 의견을 반영하는 비율을 정한다는 게 아니라, 현재는 완전히 이용자를 배제한 채 전문가의 의견을 토대로만 진행되고 있다는 부분에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현재의 매뉴얼은 하나의 집단이 강

행한 학습실 폐쇄와 일률적인 오픈플랜 조성으로 이용자 및 운영자들과 시 사이의 마찰이 생기는 상황이다. 공공을 위한 계획이 공공과의 충돌로 이어진 것에 대해 반성적인 태도로 고민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

### 3) 지역 상생과 도시와의 연계를 위한 공간적 방향 제시

현재 공공도서관 매뉴얼은 도서관과 도시의 네트워크 측면에서 미비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건축 지침에서는 이 부분이 많이 결여되어 있으며, 일부 언급하고 있는 운영방안에서도 추상적으로만 제시하고 있다. 공공도서관의 역할이 점차 확장됨에 따라 개별 도서관 활성화를 넘어, 이제는 시민들의 일상 속 시설로서 도서관의 현 위치를 파악하고, 그에 맞춰 주어진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실질적인 공간적 방향이 같이 제안되어야 한다.

### 6.2.3 ‘공공도서관 통합디자인’의 구체적인 개선안 제시

4장과 5장의 전주시 분석을 토대로 연구자가 제시하는 이용자 중심 디자인 유형을 기반으로 한 ‘공공도서관 통합디자인’의 개선안은 다음과 같다(표 6-1).

#### 1) 이용자 중심의 공간구성과 요소

① 이용자 유형을 크게 개인과 공용으로 나눠 그에 따라 공간을 구성하도록 제안한다. 현재는 자료나 기능을 중심으로 공간이 구성되고 이용자의 공간은 모두 오픈플랜으로만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이용자는 공공도서관 이용 시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를 추구하는지, 커뮤니티가 이루어지는 공용공간을 추구하는지에 따라 도서관 내 이용하는 공간을 선택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용자에게 공간에 대한 다양한 선택지를 주기 위해 유형에 따른 공간구성을 통해 일률적인 개방 공간과는 다른 공간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 이 유형에 따라 원하는 공간의 분위기, 규모, 구성, 인테리어 또는 층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도서관 별로 이용자에게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토대로 기준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② 도서관 유형에 따라 공간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현재 공공도서관은 규모와 지위에 따라 유형이 다양하지만, 공간의 기능과 구성은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규모에서는 이를 다르게 제안할 필요가 있다. 가령, 규모가 큰 도서관은 업무와 사무공간이 별도 영역으로 필요하지만, 작은 도서관 같은 경우 열람공간 또는 자료공간에 합쳐져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정책상에서 먼저 공공도서관의 규모별로 오늘날의 흐름을 파악하고 그에 따라 공간을 재구성해야한다.

## 2) 이용자의 직·간접적인 참여

① 공공도서관 건립에 있어 행정에서 진행한 이용자에 대한 조사 단계의 과정이나 위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현재 공공도서관 매뉴얼에서는 따로 이용자에 대한 조사가 정확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이를 밝혀주는 게 필요하고, 만약 건축 이전 단계에서 진행했다면 건축가가 해당 단계를 확인해 설계에 내용을 참고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확인해 본 결과 진행되지 않았다면, 설계를 위해 건축가가 이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

② 건립과정 구성원에 이용자도 일부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방향에서 언급했듯이 공공도서관과 같은 공공시설은 하나의 특정 집단의 의견만 반영하며 일부를 완벽히 배제해서는 안 된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하겠으나 우선 다른 집단을 수용하는 태도가 선행되어야 한다.

## 3) 지역 커뮤니티 및 도시와의 연계

① 외부공간 조성에 대한 큰 틀이 필요하다. 현재는 북카페 관련 지침에서 일부 자연을 언급하는 정도이며, 그 외에 조성에 대한 언급 없이 내부 공간에만 치중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외부공간에 대한 필요성을 부각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② 지역 내 생활권별 조사를 실행하고 이에 맞는 공간적 제안 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현재는 개별 공공도서관이 하나의 랜드마크가 되도록 지역 정체성을 반영하며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 내 커뮤니티 공간의 역할을 하는 공공도서관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시설과의 연계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건립 시 지역 내 생활권별 조사를 통해 지역의 주안점 또는 문제점을 발견하고, 그에 맞는 공간적 방향을 제시하는 것에 대해 고려하도록 지침이 있어야 한다.

개정 방향 제안		기존안	개선안 제시	지침에 해당하는 이용자
새로운 이용자 중심 공간구성 유형의 도입	공간구성 기준	기능 중심으로 공간구성을 진행하며 전반적으로 오픈플랜을 계획한다.	공간구성의 기준을 이용자 유형에 따라 개인과 공용으로 나눠 공간에 대한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한다.	일반 시민 건축 관련 전문가
	도서관 유형에 따른 공간구성	도서관의 규모나 유형에 상관없이 하나의 지침을 모두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다.	규모에 따라 일부 공간이 합쳐지고 분리되는 현황들을 파악하여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행정 및 운영 관계자 건축 관련 전문가
이용자의 다양한 참여를 수용하는 전문가 의견 필요	이용자 조사 단계	이용자 조사에 대한 표기 및 단계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없다.	공공도서관 건립 시 이용자 조사 진행 여부를 정확하게 밝혀 해당 내용이 건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다.	일반 시민
	건립과정 구성원	현재 전문가 집단으로만 구성되어있다.	이용자를 건립과정 구성원으로 포함해야 한다.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는 더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지만, 일단 여러 의견을 수용한다는 태도가 필요하다.	행정 및 운영 관계자 건축 전문가
지역 상생과 도시와의 연계를 위한 공간적 방향 제시	외부공간	외부에 대한 언급은 없이 내부 공간 조성에만 치중해 있다.	외부공간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틀이 필요하다.	건축 관련 전문가
	지역 생활권별 조사	개별 도서관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지역을 생활권별로 조사하고, 건립할 도서관이 이에 대응하는 공간적 방향을 고민하도록 지침이 필요하다.	일반 시민 행정 및 운영 관계자

〈표 6-3〉 이용자 중심 디자인 공공도서관을 위한 ‘공공도서관 통합디자인’ 개선 방향과 개선안 제시

### 6.3 시사점 및 향후 연구

본 연구는 공공도서관을 더 이상 자료 이용과 기능의 중심으로 보지 않고 이용자를 중심으로 하는 관점에서 바라보는 시대적 흐름에 맞춰 실제 공공도서관 건립 지침을 파악하고 보완점을 도출했다는 점과, 이에 대응하는 정책적, 건축적 사례를 전주시에서 찾아 분석해보며 결과적으로 개선 방향과 개선안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개선을 제안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도시의 사례 분석을 토대로 했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사례인 전주시는 하위 지침임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상위 지침인 「공공도서관 건립·운영 매뉴얼」의 통합디자인에 대응하여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실질적인 공공도서관 건축을 수행했다는 데에 연구할 가치가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향과 개선안은 앞으로 다양한 도시의 사례를 참고할 수록 그 기준점이 더 명확한 하나의 방향으로 수렴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를 위해 전주시를 포함해 더 많은 도서관의 데이터를 모아 판단의 근거를 쌓기 위해 향후 연구가 지속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지자체별로 다른 상황을 대면했을 때, 이용자 중심 디자인 유형에 따라 더 세밀한 지침의 개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본 연구가 공공도서관 개선의 기초 자료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실질적인 공공도서관 시설의 개선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건립과 운영의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도서관계의 관계자나 문헌정보학과의 협동 연구가 향후 진행된다면, 더 견고한 공공도서관 건축의 기반을 다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REFERENCES

### 단행본

- 송승섭. (2019). *한국 도서관사: 고대, 근·현대시대*. 서울:한국도서관협회.
- 신남희. (2022). *다 함께 행복한 공공도서관*. 대구:한티재.
- 신승수·임상진·최재원. (2014). *슈퍼 라이브러리*. 서울:사람의 무늬:성균관대학교 출판부.
- 이경재, 임유경. (2020). *숫자로 보는 공공건축 2019*. 세종: 건축공간연구원.
- 이연옥. (2002). *한국 공공도서관 운동사 : 지식과 정보의 공공성 확보 문제와 관련하여*.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 최진욱. (2021). *공공도서관 임대점이 꿈꾼 지식나눔터*. 현복스.
- 한국도서관협회 도서관기준작성특별위원회. (2013). *(2013년판)한국도서관 기준*.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한국도서관기준특별위원회.
- Hill, J. (2003). *Actions of Architecture : Architects and Creative Users*. New York: Routledge.

### 학위논문

- 고재민. (2020). *공공도서관 리모델링 공간계획에 관한 실증적 연구*. 박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 김현오. (2019). *공공도서관 공간구성의 변화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 조우리. (2017). *도서관 기능변화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공간구성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 학술지논문

- 강재중. (2019). *공공도서관의 기능변화에 따른 건축공간구성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환경학회. 17(4).

-고재민·임호균. (2012). 공공도서관의 복합화 경향에 관한 연구. *디자인용 복합학회*. 11(5). 43-56.

-고흥권. (2017). 공공도서관 열람실 서가면적비율에 관한 연구:2000년 이후 국내 및 런던 공공도서관 일반자료열람실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문화공간건축학회논문집*. 통권 59호. 31-38

-김미선·이정교. (2019). 시민참여와 공공디자인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 도시 재생 사업을 중심으로. *한국공간디자인학회논문집*. 14(7).

-김세영. (2013). 사용자 중심의 공공성 실현을 위한 공공도서관의 공간계획 및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22(3).

-김세훈·심효정. (2009). 공공도서관 건립·운영 컨설팅 서비스 구축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문화정보학회지*. 43(1).

-김승연·임호균. (2023). 지역대표도서관의 공간구성 및 특성에 관한 연구 : 프랑스 BMVR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한국문화공간건축학회논문집*. 통권 81호.

-김주성·이윤희·반자연. (2022). 공공도서관의 새로운 역할에 따른 공간계획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문화공간건축학회논문집*. 통권 77호.

-김현오·김용승. (2020). 최근 국내공공도서관의 공간구성 변화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36(12).

-김혜련·이운용·이정형. (2018). 지역재생 관점의 공공건축 기획시스템 현황과 개선방향. *대한건축학회논문집*. 34(6).

-김홍렬. (2006). 공공도서관 상호협력망 구성에 관한 연구. *전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사회과학논총*. 21. 166-178.

-류태현·고재민·임채진. (2013). 공공도서관의 복합화 유형별 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9(11). 141-149.

-반자연·이승혜·Panarelli Lynette. (2020). 공공도서관의 사회적 인프라기능을 위한 공간계획 요소 연구 :국내외 주요 공공도서관 시설계획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한국실내디자인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2(1).

-배동식. (2022). 공공도서관의 사회적 역할 변화에 따른 공간구성에 관한

- 연구 :대구광역시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한국공간디자인학회논문집*, 17(3).
- 백선경·임유경. (2022). 이용자 관점에서 본 공공건축 기획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국민체육센터를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논문집*, 38(11).
- 변기동·하미경. (2021). 문헌고찰을 통한 공공공간디자인의 연구 경향 분석 :분석항목별 빈도 추이를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논문집*, 37(11).
- 서동진·임종훈. (2016). 장소 정체성을 위한 도시 공공공간 유형 연구. *한국공간디자인학회 논문집*, 11(1).
- 서동훈·임호균. (2014). 국내 공공도서관 복합화 경향에 대한 연구 :지역별 특성을 중심으로. *한국문화공간건축학회논문집*, 통권 47호, 112-119.
- 송승언·김석태. (2011). 공공도서관의 복합화에 따른 공간의 구조적 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20(6).
- 신승수·홍지학·김광현. (2009). 영국 공공 도서관 프로젝트의 커뮤니티 기반 공공성 구현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5(12).
- 이경연·하미경·변기동. (2022). 도시 공공공간의 공공성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계획요인에 관한 연구 :세대 간 인식조사를 바탕으로.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38(11).
- 이승채. (2010). 미국 RCPL과 전주시립도서관의 비교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1(2), 5-25.
- 이영한. (2010). 공공디자인과 통합디자인. *대한건축학회특집*, 1005, 18-19.
- 이철재·윤지원·이민. (2017). 공공도서관의 지위별 규모와 지역적 특성에 따른 공간 면적 기준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26(2), 92-100.
- 이화성·김용승. (2022).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공공도서관 공간특성에 따른 이용자행태에 관한 연구. *한국문화공간건축학회논문집*, 통권 78호.
- 임은영·황연숙. (2022). 이용자 관점에서의 공공도서관 디지털자료실 실내 디자인에 대한 선호도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31(2).
- 임준범. (2009). 공공도서관 지역분관의 공간계획방향에 관한 연구:전주시 도서관 이용자요구를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연합논문집*, 11(4), 75-82.
- 임준범·정사회. (2009). 지역공공도서관 이용자 요구에 따른 공간구성방향에 관한 연구 :전주시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한국문화공간건축학회논문집*.

통권 28호.

-임호균·고흥권. (2012). 공공도서관 세부소요공간 규모기준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21(5), 390-398.

-장엄규·최흥식. 소규모 지역공공도서관의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전주대학교 사회과학종합연구소. 사회과학논총*. 28(1). 87-110.

-정구현. (2021). 건축이 지닌 공공성에 대한 연구 :뉴욕의 베슬 사례를 통한 민간 소유의 건축을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논문집*. 37(4).

-정대권·서현. (2022). 공공도서관 내 열람공간의 개방성 연구 :서울특별시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논문집*. 38(12).

-최은희·최윤정·임호균. (2022). 공공도서관의 시대별 공간구성변화와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문화공간건축학회논문집*. 통권 77호.

-최흥식. (2005). 도시개발변화에 따른 공공도서관 신축부지선정에 관한 연구: 전주시를 중심으로. *정보관리학회지*. 22(1). 145-166..

-최흥식. (2006). 유사지역공공도서관 비교분석을 통한 전주시립도서관 발전 방안 모색. *전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사회과학논총*. 21. 166-178.

-최혜조·백진. (2023). 「공공도서관 건립·운영 매뉴얼」 내 ‘공공도서관 통합 디자인’의 이용자 중심 디자인 반영 분석 연구. *한국문화공간건축학회*. 통권 82호. 50-59.

### 연구보고서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 (2010). *2010 공공도서관 건립·운영 매뉴얼*. 서울: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 (2013). *2013 공공도서관 건립·운영 매뉴얼*. 세종: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 (2016). *2016 공공도서관 건립·운영 매뉴얼*. 세종: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 (2019). *2019 공공도서관 건립·운영 매뉴얼*. 세종: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 (2022). *2022 공공도서관 건립·운영 매뉴얼*. 세종: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2008). *제1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 서울: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2013). *제2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 서울: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2019).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 서울: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임유경 외 4인. (2021). *이용자 관점에서 본 공공건축 연구 : 국민체육센터*. 세종: 건축공간연구원.

-전주문화재단. (2018). *전주시 마을조사 “동심찾기”평화2동 마을조사서*. 전주: 전주문화재단.

-한국도서관협회. (1963). *도서관법좌담회회의록*.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 보도자료

-김기원. (2016년 11월 10일). ‘말 많은’ 군포 중앙도서관 재개관...시의회 ‘불통 도서관’. *뉴시스*.

-김낙현. (2022년 04월 18일). “전주 다가여행자도서관 만족도 높아”. *전북중앙*.

-김낙현. (2022년 10월 30일). ‘책의 도시’ 전주에 가면 ‘특별한 도서관’이 있다. *전북중앙*.

-김은정. (2020, 12월 28일). 전주, 서점지도 제자...지역 서점계에 ‘활력’을. *매일일보*.

-김송이. (2022년 11월 27일). ‘책, 사람, 세상과 연결되는 곳’...마포 작은도서관을 지키는 이유. *경향신문*.

-김장천. (2022년 06월 07일). “개방형 창의도서관 변신”...전주 금암·송천·인후 도서관 “만족”. *전라일보*.

-도정일. (2006년 01월 20일). 보르헤스의 ‘천국’과 도서관. *한겨레*.

-백도인. (2021년 10월 25일). ‘여기 도서관 맞아요?’...놀이터로 변신하는 전주도서관. *연합뉴스*.

-신심범. (2022년 02월 13일). 열람실 없는 도서관 대세...“공부는 어디서 하  
나요”. *국제신문*.

-이성희. (2023년 01월 20일). ‘작은도서관’ 예산 전액 삭감 논란 거세지  
자...서울시 “계속 추진”. *경향신문*.

-이휘빈. (2020년 05월 01일). 전주 동네책방 10곳 손모아 ‘전주책방네트워  
크’ 발대식 1일 개최. *전북도민일보*.

-임인택. (2022년 11월 08일). 책 읽지 말고 공부해라?...마포구, 작은도서관  
9곳 없앤다. *한겨레*.

-천경석. (2022년 09월 14일). 전주 책기둥도서관서 ‘속 보이는 클래식’ 강  
연. *전북일보*.

#### 웹페이지

-이소림. (2019년 07월 09일). ‘워크샵을 디자인하다’. *브런치 스토리*.  
<https://brunch.co.kr/@gradation/4>.

# APPENDICES

## Appendix A. 관계자 인터뷰

### 1. 221222. 전주시 도서관 시설과 직원 A와 전화

Q: 전주시 공공도서관 건축이 진행되는 전반적인 프로세스가 궁금한데, 특히 처음 기획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나요?

A: 예를 들어, 전주시 동문 현책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현재 도서관이 자리 잡은 곳의 위치가 예전에 책방, 서점 거리였어요. 6-80년대까지 학생들이 많이 찾는 서점 거리여서 자연스럽게 이곳으로 위치를 선정했어요. 이런 위치 선정 같은 기획과정 부분은 도서관 정책과에서 대부분 진행해요. 내외부의 기본적인 설계는 건축사무소에서 진행하시는데, 디자인 과정에서 전주시 총괄 건축가도 참여하시고, 저희(도서관 시설과)도 참여하고 해요.

Q: 설계사무소, 총괄 건축가, 전주시 도서관 시설과 각각 어떤 역할을 하셨나요?

A: 우선 총괄 건축가님은 전반적인 거리에서 모습이나 외관을 위주로 자문과 현장 답사를 같이 진행하셨어요. 동네 자체가 구도심지인 경우, 건축 외장 재도 그렇고 좀 낡고 노후화된 건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공공도서관의 전반적인 톤이나 컨셉을 밝은 색상으로 하거나 아니면 거리에서 내부가 많이 보이게끔 커튼 홀로 구성해서 전반적으로 입지를 확실하게 구축할 수 있도록 의견을 주셨어요. 그래서 주변에 한옥마을 같은 관광지가 있으면, 그 관광객들도 자연스럽게 거리로 유입되고 둘러보며 전반적으로 거리가 활성화될 수 있게끔 하고자 했습니다.

설계사무소는 말 그대로 건물의 기본적인 설계를 맡아 진행했어요. 건축사가 설계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건축설계와 내부 인테리어를 진행했고, 그중 벽면서거나 가구 같은 인테리어는 저희 도서관 시설과 직원들과 회의를 거쳐 선택한 것들이 많습니다. 이 모든 관계자가 프로젝트 처음 진행해서 철거하기 전에 전 건물을 매입만 한 상태에서부터 현장 방문도 하고 다 같이 참여해서 진행하게 돼요.

Q: 전주시에는 도서관 관련 과들이 다양한 것 같은데, 말씀하신 도서관 시설과 분들은 그럼 건축을 전공하신 분들인가요?

A: 네, 그렇죠. 전주시 건축직 직원들로 가구뿐만 아니라 전기 조명이나 내부 마감 같은 것들은 직원들이 많이 같이 회의해서 진행했죠.

Q: 그럼 전주시 내 다른 직영 도서관들도 다 비슷한 과정을 겪는 건가요?

A: 그렇죠. 아마 전반적인 프로세스는 비슷해요. 다만 다른 분들이 또 기획이나 시설 조성과정에 참여하는 때도 있고, 내부 인테리어도 일반 사서 분들이 도서 선정하는 과정에서 참여하시기도 하고 그래요.

Q: 아까 내부 공간 설계 시 건축사무소와 도서관 시설과 직원분들이 같이 협의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걸 하는 걸까요? 따로 회의록이나 자료를 기록하시기도 하나요?

A: 설계자와 도서관 시설과 직원들이 당초에 기본 설계를 잡을 때부터 같이 진행해요. 그래서 같이 도면을 놓고 보면서 한두 번이 아니라 굉장히 오랜 시간 자주 회의를 진행하는데, 공간에 대해서 행정이 보는 시선, 이용자가 보는 시선, 설계자가 보는 시선이 모두 다르다 보니 큰 것부터, 굉장히 세밀한 것까지 여러 의견 차이도 있고 했었어요. 그 과정에서 공간의 위치가 바뀌기도 하고, 규모가 줄어들기도 하고, 부분적으로 오픈되기도 하면서 수시로 수정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그 과정이 따로 기록되어 있거나 회의록이 있진 않아요.

## 2. 230626 전주시 도서관 정책과 직원 B와 전화

Q: 전주시가 2019년도에 당시 핵심 시설로서 다른 미술관이나, 문화시설이 아닌 도서관을 선정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A: 아무래도 미술관이나 박물관과 같은 다른 문화시설들은 특정 연령층과 관심이 있는 계층들이 주로 찾는 전문적인 시설이잖아요. 그런데 도서관 같은 경우는 남녀노소 누구나 방문해서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고, 정보를 받기도 하는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당시 전주 시장님은 전주시민이 다양하게, 형평성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 도서관이라고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근 3-4년간 도서관 콘텐츠와 스토리 구축을 토대로 이러한 공간 혁신이 가능하게 된거예요.

Q: 그렇다면 도서관별로 주제나 컨셉을 설정하는 건 어떻게, 누가 주체가 되어 진행이 되나요?

A: 도서관 유형에 따라 다른데요, 우선 조성할 때 아무래도 도서관은 시민 중심인 시설이고, 지역주민을 위한 공간이니까 그 도서관 주변의 환경 여건에 맞춰 설정되었어요. 시립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공청회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하는 편이지만, 특성화 도서관들 같은 경우에는 주변의 공공을 거점으로 해서 주변환경과 어울리는 주제를 전주시 정책과에서 선정해요.

Q: 그렇게 진행된 도서관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겠어요?

A: 예를 들어 학산 숲속 시집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숲속에 위치하지만, 그 일대의 주민들, 등산객들이 편하게 방문할 수 있는 쉽터가 되면서, 와서 책을 볼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자연 생태와 어울릴 수 있게 기획하는 등 주변 환경의 영향을 많이 고려했어요.

또 첫마중길 여행자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공간 여건이 전주역에서 내리자



마자 바로 처음 대면하는 곳이라는 주제 컨셉에 맞게 진행하고자 했어요.

동문 헌책도서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재생의 관점에서 진행된 건데, 책방이 많아서 책방 길이었던 동문 예술 거리에 맞춰 기획된 프로젝트예요. 그 주변에 이제 유일하게 남은 헌책방 두 곳이 있어서 그분들과 협업을 진행하며 홍보도 해드리고 있어요. 이처럼 주변 여건에 따라 협력 사업을 진행하며 어우러지는 도서관이 하나씩 되도록 조성했어요.

Q: 아, 공간뿐만 아니라 프로그램도 비슷하게 결정되는 건가요?

A: 주변에 아파트가 많거나 어린이 비율이 높은 곳은 아동이나 부모 교육과 연관된 특성화 주제의 도서들과 프로그램이 이루어져요. 시립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특성화 주제의 도서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장서를 입수하고, 관련 특화 활동과 강연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Q: 그렇군요, 책 기동 도서관의 2층에 있는 동네 책방 공간도 비슷한 기획 과정이었나요?

A: 우선 책 기동 도서관 같은 경우 컨셉이 전주시의 선순환적인 독서생태계 구축이었어요. 공공도서관, 서점, 시민 그리고 출판사가 순환하는 구조 내에서 코로나 19까지 겹치며 더욱 쇠퇴하게 되던 동네 책방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기획이 시작되었어요. 이를 위해 당시 사업을 담당하던 전주시 도서관 정책과 내 기획 파트의 사업 담당자분들이 자료 수집도 많이 하시고, 기존의 협력 서점과 동아리들에 지속적인 자문도 진행하셨어요. 이를 토대로 이후에 시설과에서 조성을 진행했습니다.

Q: 일반 시민들의 의견도 기획에 반영되기도 하나요?

A: 대부분 이용하실 분들의 의견도 많이 들어요. 현재 거점 시립도서관뿐만 아니라 동마다 집 근처에 작은 도서관이 있어서 그 이용하시는 분들을 상대로

의견을 들곤 해요. 공식적으로 설문조사까지 하는 건 아니지만 그분들과 소통하며 어떤 도서관이 있었으면 좋겠는지, 어떤 주제가 있었으면 좋겠는지 듣고 소통하고 있어요. 결국 이용자는 어떤 도서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을 때, 내가 원하는 도서관이 있으면 오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견들을 많이 수렴했어요. 또 특성화 도서관은 일반 시민뿐만 아니라 관련 전문가들과 자문 회의도 많이 했어요. 이분들과도 어떤 도서관이 있으면 좋을지, 독서생태계를 고려한 도서관이 있으면 좋겠다든지, 이런 얘기들에 대해 릴레이식으로 만나서 자문회의를 진행했어요. 이러한 것들을 모두 근거로 해서 도서관 기획 조성하거나 정책 기획에도 많이 반영을 했어요.

Q: 말씀 들어보니 전주시 직원분들이 다양한 계층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기획을 진행하신 것 같네요. 기획 외에도 적극적으로 직원분들이 참여하신 부분이 있을까요?

A: 도서관의 인테리어, 콘텐츠, 장소 등등 디테일한 면들과 소품까지 다 직원들이 참여해서 조성하고 있습니다.

Q: 그런 부분들은 전문가와 협의를 통해 진행하신 건가요?

A: 사업의 건축가분들은 주로 설계와 건축만 진행하시고, 대부분 전주시 도서관 부서 내 사업 담당자가 직접 찾아보고, 어울리는 물품을 하나하나 발품해서 구매하고, 그런 가구나 소품들로 조성해서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식으로 진행했어요. 예를 들어 연화정 도서관의 서가와 같은 가구들도 전주시에 있는 목수 장인 분께 직접 의뢰해서 제작하곤 했어요.

Q: 이런 과정들을 통해 실제로 공공도서관 관련 이용률이나 위상이 확실히 많이 높아졌나요?

A: 네, 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 만족도가 평균적으로 92%인 걸로 집계되었어요. 이처럼 지속적으로 콘텐츠 개발도 하고 말씀드린 것과 같은 노력을 계속

하다 보니 전국에서 정말 벤치마킹도 많이 오세요. 도서관 사업 초반에 담당자 분들이 조성하고 참여하는 과정에 망설임도 있었지만, 지금은 좋은 결과물들이 나오고 그에 따라 이용률이나 벤치마킹도 많이 해주셔서 자부심도 많이 느끼고 역량도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또, 이런 결과들을 토대로 도서관 여행 프로그램도 만들어졌어요. 처음에는 전주시민분들이 호기심에 많이 하시다가 지금은 전국적으로 알려져서 오히려 타 도시의 시민분들이 더 많이 찾아주고 계세요. 21년도 7월에 5%였던 참여자가 작년 11월에 68%까지 대폭 증가했어요. 이렇게 전주시 도서관을 여행이나 벤치마킹으로 많이 찾아오고 계신다고 자부할 수 있을 거 같아요.

### 3. 230222. 「공공도서관 건립·운영 매뉴얼」 관련 전문가 C 대면 인터뷰

Q: 과거에서 변화한 오늘날 공공도서관의 중요한 점 중에 하나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A: 오늘날에는 많은 좋은 공간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만 해도 시끄러운 도서관이라는 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어요. 제가 파주의 지혜의 숲에서 도서관계 사람들과 회의했을 때, 사람들의 생각이 많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 공간은 하나로 개방된 공간인데 가운데 카페가 있고, 음악이 나와요. 마침 회의하는 날 한쪽에서 라이브 공연도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때 사람들이 많이 충격받고, 공공도서관 이미지 변화에 대해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지금은 공공도서관에서 음악이 많이 나오지만, 그때만 해도 도서관은 조용한 공간이어야 했어요. 당시 건축 교재에 기재되어 있던 공공도서관의 소음도가 30dB이었어요. 숨을 조금만 크게 쉬거나 속삭여도 40dB인 것을 고려하면 볼펜 소리도 크게 들리는 정도였죠.

Q: 그러한 점을 어떻게 개선해서 시끄러운 도서관을 조성할 수 있었나요?

A: 먼저 공간의 턱을 많이 없었어요. 공간이 좁을수록 소음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우선 공간을 넓게 만드는 것에 집중했고, 두 번째는 스타벅스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에서 많은 힌트를 얻었어요. 카페는 보통 약 70dB까지 소음도가 측정되는데, 그럼에도 사람들은 이 공간에서 공부하고, 현대인들은 이러한 소음에 익숙해져 있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절충해서 턱과 벽을 없애는 오픈플랜이라는 단어를 2016년부터 쓰기 시작했어요. 그 이전에는 다 동일하게 공부만 하는 학습실이었다면 이때부터 바뀌었어요. 공공이기 때문에 공부하는 사람들만을 위한 도서관이 아니라 정말 모든 사람을 위한 도서관이어야 한다는 생각이었어요. 또 벽이나 칸막이로 인해 데드 스페이스와 같은 손실도 줄어들었죠.

Q: 공공도서관 건축의 문제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A: 2016년도 이전에는 일본의 데이터를 기본으로 한 자료를 토대로 공공도서관을 만들었어요. 거기에 여러 지침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공용공간은(로비, 홀, 복도) 35%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와 같은 말이 기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를 토대로 면적을 산정하곤 했어요. 그래서 저는 로비와 벽을 없애는 방안을 제안했어요. 문만 열면 바로 도서관이고, 벽이 없는 오픈 공간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복도도 안 생겨서 모두 평등한 공간이 되게 했어요.

또 하나는 학습실의 존재였어요. 당시 학습실은 독서실처럼 개인이 한 자리를 계속 짐을 두고 다니며 쓰곤 했어요. 그리고 대부분 학습실을 쓰는 사람들은 소음에 민감해 많은 사람이 도서관에 오는 걸 꺼렸죠. 공공공간을 한 명의 개인이 점유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다보니 2017년부터는 학습실을 없애라고 공문을 전국에 보내기 시작했어요. 이 일로 시민들과 마찰도 자주 있었고 소송까지 가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정말 공공을 위한 공간을 위해 학습실 폐쇄는 필요한 수순이라고 생각해요.

Q: 「공공도서관 건립·운영 매뉴얼」의 발간 배경이 어떻게 되나요?

A: 우리나라 공공시설에서 도서관이 가장 법 개정과 정책이 부족한 편이에요. 경제 발전을 이루는 과정에서 속도는 빨랐지만, 여기에 공공의 역할이 크다기보다는 개인의 능력이 밀바탕에 있기 때문이에요. 선진국은 공공이 국가의 발전에 많은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 좋은 도서관들도 많이 등장하게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독재 정권도 겪고 하면서 사람들이 지식을 깨우치는 것 보다는 페스티벌, 프로야구와 같은 유희를 더 발전시켰어요. 그래서 2000년 전에는 사실상 도서관 정책이 전혀 없는 정도였어요. 2000년대 이후가 되어서야 1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이 등장했는데, 실질적으로 큰 역할을 하진 못하고 공공도서관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역할 정도를 했어요. 그러다 2차가 등장할 무렵 공공도서관의 양적 증가가 급증하고 관심도도 더 높아지면서 좀 더 제대로 된 종합발전계획이 필요해졌죠. 그리고 ‘도서관 건축’을 위해 도서관에 대한 이해도와 건축에 대한 이해도가 모두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도서관의 건축, 운영, 준공 이후까지 모두 다루는 매뉴얼도 발간하게 된 거예요.

Q: 현재 「공공도서관 건립·운영 매뉴얼」의 위상은 어느 정도인가요?

A: 기존에는 이 매뉴얼이 단순 참고 자료였다면 오늘날에는 사전평가 제도라는 게 생기면서 점차 정책적으로 중요해지고 있어요. 공공도서관은 사전평가라는 제도를 통해서 건축에 대한 기준의 지침을 따랐는지 평가받게 되는데 최근에 이게 법제화되었어요. 이를 통과한 공공도서관은 건립의 40%를 국비로 지원해주고 있어요. 해당 내용이 건립·운영 매뉴얼에 들어가게 되면서 이 매뉴얼의 위상도 사실상 높아지게 된 거죠.

Q: 「공공도서관 건립·운영 매뉴얼」의 공간 계획을 수행하는 총괄계획가 제도는 어떻게 도입하게 된 건가요?

A: 현재 우리나라는 2년에 한 번씩 공무원들이 순환보직을 진행하고 있어요. 보통 도서관은 기획부터 준공까지 5년 정도가 걸리는데, 중간에 담당자가 바뀌면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 차질이 생기게 되니까 이러한 문제를 막기 위해 전체 과정을 끌고 갈 수 있는 코디네이터 역할의 외부 전문가가 필요시 되었죠. 그래서 2016년부터 총괄계획가를 선임하도록 만들었어요. 이건 공공 건축가와는 전혀 다른 개념으로 도서관 건립을 위한 도서관 건축 전문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Q: 총괄계획가가 그럼 실질적으로 공공도서관 건립의 어떤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해 주는 건가요?

A: 도서관의 공간을 면적 기준에 맞춰 유지하면서 그 안에서 해결하려고만 하는 문제가 있어요. 사실 도서관을 설계한다고 하면 먼저 지역 조사를 진행해야죠. 설문조사나 지역 조사를 통해 이용자의 유형과 특징을 파악하고 그들의

선호도를 조사해서 그들에게 맞는 공간을 만들어주어야 해요. 예를 들어 교육한다면 주변 조사를 통해 어떤 교육을 할 건지 프로그램이 먼저 나오고 그에 맞는 공간을 제시해주어야 하는 데 이런 과정이 결여된 채로 면적을 맞추는데에 집중된 것 같아요. 해당 과정을 행정에서 하는지 건축 과정에서 하던지 그 순서가 중요하다기보단 그 과정 자체가 중요해요. 그래서 건축공간 하나를 바꾼다기보다는 본질적인 것부터, 처음 시작부터 바뀌야 사실상 실질적인 변화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 공공도서관 건립도 단계별로 하나씩 진행되는 건데, 설계 단계에 와서 갑자기 앞의 모든 단계를 무시하고 설계자 마음대로 한다는 것은 앞에서 진행한 여러 영역이 무의미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 선을 지키며 설계자가 보완하는 방안을 또 파악하는 게 좋겠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러한 과정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총괄계획가가 등장하고부터는 첫 과정부터 같이 진행하며 이런 부분들에 관한 조절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Q: 최근에 2022년도 매뉴얼이 발간되었는데, 2019와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주안점이 어떤 것일까요?

A: 2022년 매뉴얼에서 가장 크게 바뀐 점은 도서관 공사비에 관한 내용에요. 2016년에 지자체 공공도서관마다 조사를 진행한 결과 공사비가 너무 상이해서 규모와 관계없이 제곱미터당 거의 두 배 가까이도 차이가 난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공사비가 모자란 만큼 공기는 늘어나고, 그 사이에 담당자가 바뀌거나 하는 일이 생기면 프로젝트 자체가 포맷되고 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다시 새로운 예산이 필요시 되고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건립비를 현실화 시키고자 했어요. 전국의 도서관들의 데이터를 토대로 건립비의 평균을 확인하고, 그 금액에 다시 건립 시 필요한 항목들을 조사하며 누락된 것을 더해 기존에 나왔던 금액들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건립비 기준을 만들었어요. 올해는 여기에 규모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곱해주던 공사비 지수를 유형을 분류하고 그에 따라 금액을 다르게 조정했어요.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

한 물가 상승률 등을 감안해서 적용하는 거죠.

Q: 예산확보 말고도 관련해서 공공도서관 발전을 위해 더 고려해야 할 게 있을까요?

A: 2021년 이후로 공공건축의 제로에너지가 법제화가 됐어요. 공공도서관은 전국의 공공시설 중에 가장 많은 관리비가 나오는 시설이에요. 제로에너지로 지어지며 전기세가 절약되고 그 예산으로 오히려 사서 인력 부족을 채워야 한다고 생각해요.

Q: 공공도서관 발전을 위해 건축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부분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A: 우리나라는 건축과 인테리어를 별개로 생각하는 경향이 커요. 건축을 먼저 진행하고 인테리어를 나중에 하는 방식으로요. 그런데 그렇게 사고하는 방식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공공도서관을 만들 때 아까 이용자의 선호도와 관심사를 먼저 조사한다고 했는데, 그럼 그에 따른 장서 종류가 정해지고, 그에 맞는 가구가 들어오고, 어울리는 조명, 벽과 바닥 디자인이 생성되면서 공간이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안에서부터 채워나가는 것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등장한 게 통합설계 공모예요. 일반적으로 공공시설은 건축설계 공모로 건축물을 만드는 설계를 진행하는데 통합설계는 건축 설계 사무소와 인테리어의 컨소시엄으로 진행하며 인테리어와 공간을 같이 고려하며 진행하는 거예요. 이런 인테리어에 대한 소양을 가지고 건축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Q: 혹시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을 잘 구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건축가가 있으신가요?

A: 개인적으로 안다 타다오가 이런 건축을 하는 건축가라고 생각해요. 내부



에 빛을 들여오고 외부공간을 연출해서 이용자들에게 자연을 상기시키는 건축이라고 생각해요. 건물의 외관이나 전지적 시점으로 평면만 보는 게 아니라 내부 공간에 대해 고민했기 때문에 이런 건축을 하게 되었다고 생각해요. 사람이 건축을 사용한다는 게 외부로 보는 게 아니라 내부를 사용하는 거잖아요. 사람의 신체가 직접적으로 닿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테리어가 훨씬 더 이용자에 가깝다고 생각해요.

Q: 말씀해주신 것처럼 국내 공공도서관은 많은 변화를 거쳐온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날 도서관 건축에 영향을 준 것 중 하나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A: 국내 도서관 변화의 큰 영향을 준 것 중 하나가 현대카드 라이브러리에요. 처음에는 공공도서관보다 사립이 먼저 바뀌기 시작했어요. 현대카드 라이브러리가 도서관 생태계를 많이 바꿨어요. 현재는 사라졌지만 트래블 라이브러리가 먼저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이후 디자인 라이브러리, 뮤직 라이브러리, 쿠킹 라이브러리 등등 다양한 주제의 도서관들이 등장했어요. 그렇지만 그 때만 해도 공공도서관에서 이를 실현하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았어요. 이걸 비단 어느 한 개인, 또는 집단이 원인이라기보다는 우리 사회가 원래 기존에 가지고 있는 방식에서 벗어나 이해하거나 받아들이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에요.

Q: 마지막으로 건축적 관점으로 앞으로 고려해야 할 공공도서관 관련 이슈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A: 아직 국내에는 도서관 건축을 위한 원칙이 부족한 실정이에요. 예를 들어 도서관에서 다루는 단위는 몇 권, 몇 명, 몇 좌석, 몇 개의 교육 또는 프로그램 이런 식으로 형성되어요. 그런데 건축은 mm와 같은 길이, 면적, 규모에 따른 %가 주로 단위예요. 아까 말했듯이 도서관에서 중요한 것은 면적 단위의 규모나 실이 아닌데 아직은 그런 것에 집중하는 현실이에요. 그래서 도서관의 데이터를 메타 데이터로 만들어서 도서관계와 건축계를 호환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즉, 운영 데이터를 건축데이터로 바꾸고 또 역으로

도 가능하게 하는 공식이 필요해요. 이를 토대로 서가나 좌석을 미리 공간에 대입하고 시뮬레이션할 수 있다면 앞으로 공공도서관 발전에 더 기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하나의 이슈는 리모델링이에요. 공공도서관 수는 매년 늘어나고 있어요. 너무 많이 지어지다 보니 어떤 공공도서관들은 이용자의 편함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기도 하고 지리적 접근이 어렵기도 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신축 도서관 보다는 리모델링이 더 많이 진행될 거로 생각해요. 우후죽순으로 지어진 도서관 중에 기능적 문제를 가진 도서관들을 어떻게 리모델링 할 수 있을까가 앞으로 도서관 건축에서 다루게 될 이슈 중 하나일 것 같아요.

#### 4. 230525. 서학예술마을 도서관 전 촌장, 곽승호 작가와의 전화 인터뷰

Q: 서학예술마을 도서관 같은 경우 비전공자이신 마을의 촌장님이 건축 기획에 직접 참가하셨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촌장님께서 어떻게 프로젝트에 참가하시게 되신 건가요?

A: 원래 저는 서양화 전공이고 이렇게 미술을 전공하는 분 중에 인테리어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도 그중 한 명으로 인테리어 작업을 몇 번 진행한 경험이 있어요. 특히 전주시 내에서는 공공미술을 전담하며 마을의 다른 예술인들과 함께 시내버스 승강장 조성 프로젝트를 한 경험이 있어요. 당시 시장님이시던 김승수 시장님께서 두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함께 승강장 작업을 진행해보지 않겠냐 제안을 주셔서 지붕 없는 미술관이라는 타이틀로 공공 조형 예술을 진행했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서학예술마을 도서관을 조성할 때도 의견을 나누고 했죠.

도서관 조성 시기에도 제가 서학동 예술마을 촌장을 하고 있었는데, 촌장이란 사실상 서학동 예술마을 협의회 회장을 담당하는 직책이에요. 그래서 마을 내 새로운 사업이 진행될 때 전주시와 상의를 자주 해요. 그 때 예술마을 도서관 프로젝트 자문을 담당하시던 분이 예술 도서관을 지을 예정이니 마을과 적극적으로 상의를 진행했으면 한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처음 디자인 단계부터 참여하게 되었어요.

Q: 전에 인테리어 작업을 하신 적이 있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작업들을 하셨었나요?

A: 제가 인테리어 사업자를 가지고 있어서 인테리어를 작업을 꾸준히 해왔고, 특히 개인적으로 학교 도서관 공사를 많이 진행했었어요. 도서관 공사를 하게 되면 보통의 도서관들은 내부에 책장들로 꽉 차 있잖아요. 너무 그러지 않아도 충분히 책을 수납할 수 있는데, 왜 공간에다가 책장들을 뿔뿔이 놔서 공간이 답답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 저는 내부에 있는 책장들을 우선 다 벽 쪽으로 빼서 공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작업했었어요. 또 초등학교

교니까 다락이나 복층도 조성해서 아이들이 그냥 책만 보고 공부만 하는 도서관이 아니라 좀 재밌게 오르락 내리락 하기도 하고, 숨어 있기도 한 공간들을 학교 측하고 상의해서 만드는 작업들을 했었어요.

Q: 그럼 서학동 예술마을 도서관 같은 경우도 작가님이 처음부터 인테리어를 진행하신 건가요?

A: 처음 도서관 디자인을 진행할 때 입찰을 통해 건축사를 선정하고 디자인이 진행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엔 공간이 조금 단조롭거나 고리타분한 부분들이 있어서 거기에 아이디어를 보태고자 직접 3d 작업을 해서 건축사분과 공무원분들께 드리고 전주시 실무기관에도 디자인한 것을 제출했는데 선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후에는 전적으로 제가 담당해서 진행했어요.

Q: 그때 공간을 위해 특별히 신경 쓰신 부분이 어떤 게 있었나요?

A: 당시 전주 김승수 시장님의 건축 철학이 있었는데, 될 수 있으면 전에 모습을 너무 훼손하지 말고 유지하며 흔적을 남기는 것이었어요. 완전히 바뀌 버리는 게 아니라 기존의 것에서 약간 변화된 것을 지향하는 그런 철학이 있었는데 저 또한 그런 걸 좋아하거든요. 그런 생각이 잘 맞아서 배려하며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Q: 그런 부분들이 공간 어디에 잘 나타나고 있나요?

A: 공간적인 부분에서는 1층에 벽체를 그대로 남기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천장의 뼈대와도 보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1층에서 2층까지 이어지고 있는걸 볼 수 있어요. 가구에서도 그러한 부분이 나타나는데, 아무래도 도서관이다 보니까 책장이 많잖아요. 근데 대부분 책장은 MDF에다가 필름지를 입히는 형식이예요. 그게 식상하기도 하고 도서관의 방향과 잘 맞지 않다고 느껴져서 고재를 사용하기로 했어요. 고재는 말 그대로 예전에 사용

했던 나무인데, 아주 오래된 창고에서 사용했거나 절을 해체하면 나온 나무들이에요. 소나무, 홍송, 잣나무 등등 그런 고재를 파는 곳이 전국에 많이 없는데 전주에 한군데 있어요. 이 재료를 구해서 주변 목수분들이나 전공자분들과 함께 가구 작업을 진행했어요.

Q: 가구까지 굉장히 세심하게 신경 쓰셨군요. 또 더 디테일한 작업까지 진행하신 게 있을까요?

A: 난간도 철근으로 만들면서 투명 코팅만 칠해 그 본래의 느낌을 살리고자 했고, 도서관과 갤러리로 연결되는 공간들도 신경을 썼어요. 도서관에서 갤러리로 연결되는 부분이 방화문이거든요. 원래 방화문이 너무 딱딱한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부를 뚫어서 창을 내고 조형물을 뒤서 공간 이동 시 창을 통해 사람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또 건물 외관이 벽돌로 마감되었는데, 일자 벽돌은 코너 부분에서 끊기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직접 ‘ㄱ’자로 꺾인 코너 벽돌을 공수해서 작업을 진행했어요.

Q: 혹시 좀 아쉬운 부분들도 있으신가요?

A: 원래 기존 건물은 카페로 1층과 옥상으로 되어 있는 것이었는데 이걸 2층으로 증축했거든요. 그래서 철거하는 과정에서 건설업체에 아까 말씀드린 남겨져 있는 뼈대와 함께 옥상의 절단하는 일부분들을 같이 남겨달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들을 깔끔하게 다 철거해버려서 제가 부득이하게 좀 다시 만들었어요. 사실 더 자연스럽게 잘린 모습으로 연출하고 싶었는데, 이미 깔끔하게 절단되어 버려서 그 부분이 아쉬운 거 같아요.

또 일부 유리창 부분도 마을 내 유리 예술 작업하시는 작가분이 있으셔서 그분 작품으로 진행하는 제안도 했었는데, 예산과 같은 다양한 조건들이랑 부딪히며 무산되어 아쉬움이 있어요.

Q: 혹시 그럼 도서관에 다른 작가분들의 협업이 드러나는 부분이 있나요?

A: 바깥 정원에 보면 돌 사이에 타일이 있는데 마을 작가분들이 아이디어 내셔서 작업을 진행한 것이고, 정원 조성할 때도 많은 분이 동원되어 다 같이 조성했어요. 또 도서관 내부에 마을 작가분들의 작품이 많이 있어요.

Q: 어떻게 보면 도서관의 이용자이신데, 단순히 이용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게 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 우선 우리 마을이 또 예술인 마을이고 저는 그곳의 촌장이기 때문에 식상하고 일반적인 것과 다른 눈높이에서 보는 도서관이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예술인이기 때문에 함께 참여한 마을의 예술인들도 금전적인 부분을 떠나서 마치 정성스럽게 자기 작품 하나 만드는 마음으로 참여한 것 같아요.

Q: 마지막으로 도서관 조성에 참여하며 드신 생각이 있으실까요?

A: 도서관 안에 다양한 공간들을 조성하는 작업들은 제가 계속해왔던 것인데, 다행히 전주시도 이런 공간들에 공감을 해주셔서 실행할 수 있었어요. 관료적인 디자인들은 딱딱하기도 하고, 기존에 늘 해오던 것과 차별점이 없는데 당시 전주시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 유연하게 수용해줘서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할 수가 있었어요. 전주시 내 다른 도서관들도 대부분 비슷한 방식이라 더 제가 디자인하는 데 무리가 없었죠. 오늘날 보면 요즘 도서관들은 전주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하고 있어서 참 좋고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 Appendix B. 「2022 공공도서관 건립·운영 매뉴얼」 목차

2022 공공도서관  
건립·운영 매뉴얼  
A Manual on Construction and  
Management for Public Library

## CONTENTS

<p><b>1장 공공도서관 건립 기준</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공공도서관 지위 및 역할 기준 ..... 3</li> <li>2. 규모별·지역별 면적 규모 기준 ..... 6</li> <li>3. 규모별·지역별 소요공간 면적 기준 ..... 9</li> <li>4. 공공도서관 사업비 기준 ..... 24</li> </ol>	<p><b>3장 공공도서관 운영계획</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공공도서관 운영계획 ..... 77</li> <li>2. 조직 및 인력 ..... 80</li> <li>3. 장소 ..... 89</li> <li>4. 이용자 서비스 ..... 94</li> <li>5. 운영 예산 ..... 108</li> <li>6. 통합적인 정보화 전략계획 (ISP) ..... 113</li> </ol>
<p><b>2장 공공도서관 건립 체계</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준비 및 기획단계 ..... 35</li> <li>2. 기본계획단계 ..... 54</li> <li>3. 공모 및 통합심계단계 ..... 58</li> <li>4. 건설 및 구축단계 ..... 70</li> <li>5. 개관준비단계 ..... 72</li> </ol>	<p><b>4장 공공도서관 통합디자인</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공공도서관 공간구성 계획 ..... 147</li> <li>2. 도서관의 건축 및 인터리어 공간계획 ..... 156</li> <li>3. 공공도서관 채계관 사업 ..... 202</li> </ol>

## Appendix C. 연도별 공공도서관 통합디자인 비교

\*시기별로 각 지침의 내용이 유지, 변경, 추가, 삭제되었는지 표기하였다.

유지  변경  추가  삭제

(2010년도는 2022를 기준으로 없어진 내용들만 기재하였다)

공공도서관 통합디자인 연도별 상세 변화					
번호	2010	2013	2016	2019	2022
1	-	-	[공간구성의 기본방향] 공공도서관의 공간 및 시설이 나오기 전 공간구성의 기본방향이 추가됨.	공간구성의 방향성 동일	
2	공공도서관의 일반 사항 항목에 공간과 시설에 대한 설명으로 9가지 항목을 설명하고 있음	해당 되는 내용들이 일반 사항에서 시설계획 내로 들어옴. 종합자료실이 일반자료실로 명칭 변경됨.	[공공도서관의 공간 및 시설] 일반자료실, 어린이자료실과 같은 '실'이 '공간'이라는 단어로 모두 바뀜.	내용은 동일하나 해당 내용들이 모두 [공간구성의 필요기능]의 항목으로 변경	[공간구성의 필요기능] 1. 자료이용 및 학습, 연구 기능 2. 자료보관 기능 3. 전시 및 각종 집회 기능 4. 대출 및 반납기능 5. 참고 및 정보서비스를 위한 기능 6. 이용자 편의 기능 7. 장애인, 노인, 임산부
3			[자료이용 및 학습, 연구에 필요한 시설] 대출 및 반납공간이 제일 앞에 나오는 것에서 자료이용이 제일 먼저		



			나오는 순서로 변경. 또한 이용에서 '자료'이용으로 변경.		
4	-	-	[전시 및 각종 집회시설] 도서관에 대한 관심과 이용률을 제고하기 위한 중심시설로 자리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지역의 특화된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운영계획을 세워야 하고 융합적으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등의 편의를 위한 기능 8. 유아 및 어린이를 위한 기능 9. 직원의 업무 및 기타 기능
5	[기본방향 설정단계] 준비단계와 기본계획 단계 사이. 기본계획연구에 필요한 개념설정작업과 기준을 만드는 과정으로써 기획프로그램, 입지프로그램, 건축프로그램, 운영프로그램, 정보자원프로그램이 동시에 수행되며, 결정사안들의 성격과 방향이 결정된다.	내용 모두 동일	1) 공공도서관 건립체계가 간단히 명시되던 것과 다르게 6개의 단계 각각 자세히 다루고 있음. 2) 2번째가 기본계획수립 및 사전절차 이행단계, 3번째가 기본계획 및 평가단계로 바뀜. 3) 타당성 조사와 같은 사전절차들이 해당 단계에 같이 들어가 있음.	1) 건립체계가 5개의 단계로 변경. 2) 기존의 기본계획 수립 및 사전절차 이행단계와 기본계획 및 평가단계가 합쳐져 기본계획단계로 변경.	1) 건립체계 동일  2) 기본계획 단계 내 입지 프로그램과 운영프로그램 삭제
6					

7	[건립기획단계] 추진조직의 구성 '장래의 이용자'를 포함한 총 13명의 유형으로 구성된 조직	순서가 '당국의 요원' 및 공무원들이 먼저 나오는 것에서 제일 먼저 '건축가' 다음 '사서'로 변경.	단순 추진조직 구성에서 구체적으로 도서관 건립팀, 도서관건립컨설턴트, 도서관 건립 자문위원회, 입지 선정위원회, 자료 선정위원회로 구성. 모두 전문가들로 건립 자문위원회에 시민대표 포함하고 입지 선정위원회가 공청회 설명회 개최를 통해 지역주민 의견을 듣는 다고 명시됨.	건립 자문위원회에 도서관장, 의회의원, 시민대표는 삭제되며 '전문가'자문위원회가 됨.	-
8			추진 조직 구성원 중 장래 이용자 삭제됨		-
9	[공간계획] 공간 조닝 시 고려하는 세가지 측면으로 1)직원을 고려한 공간의 조닝, 2) 이용자에 따른 공간의 조닝, 3) 이용시간대에 따른 공간의 조닝으로 명시함	해당 내용 모두 동일함	'건축개념설정', '기능계획', 조닝에 대한 얘기가 있는 '공간계획' 모두 삭제.		-
10	[기술계획] 평면계획에 있어 모듈러 플래닝을		[건축시공계획_기술계획] 으로 분류됨. 2013년	시공 관련 계획 모두 삭제	-

	<p>통해 계획하는 것으로 명시. 이에 따라 기둥의 간격 설정을 중시하는 면을 보임.</p>		<p>건축 프로그램 단계의 '기술계획'만 남아 뒷 쪽 '건축시공 계획'에만 포함.</p>		
11	<p>기술계획 내 의장계획과 조경계획이 있으며 조경은 계획의 접근 방법이 명시됨.</p>		<p>조경계획 삭제됨</p>	-	
12	<p>[공공도서관 공간구성_도서관 공간의 종류와 체계] 독립된 실 필요없음이 '자료열람부분'에만 해당함</p>	<p>'[공공도서관 공간구성_공공도서관의 공간 및 시설과 도서관 공간의 종류와 체계 위치 바뀜] '도서관'에 필요 없으므로 확장</p>	<p>[도서관 공간의 종류와 체계] 도서관이라는 주체 없이 바로 '반드시 독립된 실을 가질 필요 없으며~로 시작됨.</p>	<p>공간배치 계획 내용으로 유지</p>	
13	-	-	<p>[도서관 공간의 종류와 체계]  1) 도서관 공간구성이 연구, 교육, 보존, 확산의 중요 기능을 바탕으로 한다.  2) 오픈플랜으로 구성한다는 말과 단독 개인학습실은 배제하고, 학습공간을 자료열람공간에 포함시켜 구성한다.</p>	<p>추가된 내용 동일하게 유지</p>	

			3) 다양한 열람형태 권장하는 가구계획		
14	도서관 공간의 종류와 체계에 대해 설명함.	'열람'이라는 단어가 모두 '이용'으로 바뀜	자료 부분과 이용좌석부분에서 '자료서가와 열람좌석'으로 변경.	해당 내용이 공간 배치 계획 내 항목으로 변경	내용과 위치 유지
15	[소요공간 및 공간계획 표]소음 없는 독립된 실인 디지털자료실이 자료열람부문에 있음. 또한 공용부문에 어린이 열람 경우 대규모 이동을 대비한 전용 출입구 별도 설치 명시.	[소요공간 및 공간계획 표] 기계실, 전기실, 창고, 주차장이 업무관리공간에서 독립해 기타부분으로 변경	[공공도서관의 소요공간 분류 기준표] 1) 자료이용영역_청소년 자료실, 참고 자료실, 고문서 자료실, 주제별 자료실 삭제. 2) 디지털자료실 삭제	-	-
			문화교육부분_공간구성요소 재배치 및 학습실, 연구실이 "학습공간 또는 자유학습공간"으로 변경	학습공간은 모두 삭제	-
			업무관리부문에 안내데스크 공간계획 추가.	인포메이션으로 용어 변경	동일 내용 유지
16	각 부문의 단위별 공간 면적을 제시함.	크게 일반자료실과 어린이자료실을 비교한다.	정확한 면적 비율 또는 규모를 제시하는 애용 삭제	각 공간별 공간의 특징을 제시하는 것으로 변경	동일 내용 유지

			특정 실들끼리 비교하는 것은 삭제.		
			더 세부적으로 조닝과 공간을 나눠 제시함.		
17	천정을 높게 하여 동적인 공간구성	동일 내용 유지	동적인 공간에서 개방감있는 공간으로 변경	동일내용 유지	
18			자료이용공간은 이용자의 행태와 점유면적에 의한 분류로써 일반자료공간 어린이자료공간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며, 일반자료공간, 어린이자료공간, 멀티미디어공간을 하나의 공간안에 영역을 구분하여 오픈플랜형식으로 구성한다.	동일 내용 유지	
			문화교육공간은 문화교육을 위한 실과 다목적실 전시공간으로 구분되며 개인학습을 위한 학습실은 배제하고 자료이용공간의 일부영역	강당과 시청각실이 추가된다.	동일 내용 유지

		안에서 계획한다.			
		<p>업무관리공간은 관장실, 사무실, 문서보관실 등이 사무실공간과 회의실, 탕비 및 휴게실, 자원봉사자실, 서버 및 통신실 등의 사무지원을 위한 공간들로 구분되며 자료반입 및 정리실과 보존서고가 포함된다.</p>	동일 내용 유지		
		<p>공용공간은 전체 도서관 면적 중 최대한 최소화 시켜서 계획하여 오픈플랜의 형식을 구성하도록 지원한다 공용공간은 홀, 계단, 화장실 등의 공용공간과 식당, 휴게실 등의 휴게공용공간으로 분류되며, 주차장 및 기계, 전기실 등은 건축물 입지지역의 법규 및 제반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도서관 순수 면적에서 제외하며 기타면적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p>	로비와 현관출입구가 추가된다.	동일 내용 유지	

19	회의실과 휴게실이 합쳐져 있음.	동일내용 유지	동일내용 유지	회의실과 휴게실이 분리된다.	동일 내용 유지
20		입구 및 현관로비, 식당 및 휴게실, 물품보관소가 공용 부분에 추가	공간구성에 북카페 추가	동일내용 유지	
21			통합이미지 LI개발 내용 새로 등장	동일내용 유지	
22	마감재 색채 및 사인계획에서 바닥, 벽, 천장 등의 마감재를 다룸	동일 내용 유지	마감재 관련 내용은 삭제	-	-
			기능적 측면은 동일	동일 내용 유지	
23	공공도서관의 시설계획과 공공도서관의 일반계획으로 나누어짐.	동일 내용 유지	건축계획적 측면을 공공도서관 통합공간디자인으로 변경	공공도서관 통합디자인으로 변경	동일 내용 유지
			환경, 시공, 설비를 공공도서관 시설계획에 분류함	동일 내용 유지	시설계획 삭제

Abstract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Integrated Design’ in the 「Manual  
for Construction and Management  
of Public Libraries」 for  
User-Oriented Design  
- A Focus on Policy and Case  
Studies of Public Libraries in  
Jeonju City-

Choi, Hyejo

Department of Architecture and

Architectural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Public libraries have experienced substantial transformations over time, evolving from institutions primarily focused on providing materials and information to becoming versatile entities catering to the diverse needs of residents and urban users. This evolution has expanded the role of public libraries beyond their traditional functions, incorporating various cultural programs, such as exhibitions, performances, educational activities, and lectures, as well as support for local community programs, including clubs and hobby development. Consequently, public libraries have emerged as vital foundations and communal spaces for cities, facilitating connections among individuals and communities. This paradigm shift underscores the prioritization of diverse user experiences and interactions, transcending a singular emphasis on materials. Seung-Soo Shin emphasizes that contemporary public libraries serve as essential infrastructure, bridging individuals, communities, and cities.

To address changing trends and demands, South Korea's 'Comprehensive Library Development Plan' has shifted its focus from an information-centric approach to a user-centric vision since its third iteration in 2019. This shift highlights the centrality of users in shaping the library experience. However, it remains imperative to assess whether this user-centric approach is adequately manifested in the actual establishment of public library architecture in South Korea. To address this research gap,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Public Library Integrated Design' presented in the '2022 Public Library Construction and Operation Manual' published by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The objective is to investigate the extent to which user-centric design principles are incorporated in these guidelines. Additionally, the study examines the public library in Jeonju City as a case example, elucidating aspects that require improvement and

exploring policy cases and architectural implementations in the region.

Jeonju City's public library serves as a benchmark for other libraries nationwide, boasting high satisfaction among its citizens. The city stands apart by engaging in diverse surveys involving experts and residents, actively incorporating their input. This approach contrasts with conventional public architecture, which often adheres to predetermined budgets and management guidelines. Consequently, understanding Jeonju City's libraries and related guidelines from the user's perspective is pivotal in promoting the development of public libraries. Despite its achievements, Jeonju City's public libraries have not been subjected to sufficient academic research compared to their accomplishments. Hence, this research analyzes the 'Policy Study on Establishing a Book-Centered City' by Jeonju City and the six public libraries within the city.

Chapter 2 of this study examines the historical progression of public library development in South Korea, emphasizing the significance of user-centric design in present-day domestic public libraries. It reviews various interpretations of user-centric design by researchers and classifies them into three types for the analytical framework: 1) user-centric spatial configuration and element application, 2) direct and indirect user participation, and 3) consideration of the local community and urban connections.

In Chapter 3, the study investigates the status of the 'Public Library Integrated Design' aligned with architectural guidelines in the '2022 Public Library Construction and Operation Manual.' The analysis aims to determine the extent to which the user-centric design direction is being

implemented in the actual construction process. The analysis employs the three user-centric design types identified in Chapter 2 to examine their respective reflections. The results indicate that out of the nine design items proposed by researchers, three are not adequately reflected, five are partially incorporated, and only one is fully integrated. Furthermore, the overall guidelines tend to prioritize expert input, suggesting an incomplete alignment between the vision of public libraries and the actual construction guidelines. Hence, this highlights the necessity to address and reduce this discrepancy through improvements.

Chapter 4 draws on Jeonju City as a precedent to examine how the city has responded to the three user-centric design types in its policies. The results reveal that Jeonju City 1) prioritizes user-centric spatial configuration over function-centric spatial arrangements, establishing space configuration criteria based on user types, 2) emphasizes collaboration with experts while considering the opinions of actual users or non-users to shape spaces, and 3) strives to utilize both internal and external spaces of public libraries, aiming to expand their role beyond individual users to engage the community and foster regional collective spaces.

Chapter 5 delves into the six public libraries in Jeonju City, exploring how they implemented user-centric design elements based on various users' perspectives, including architectural experts, ordinary citizens, administrative and operational staff, and other professionals.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se libraries effectively incorporated diverse opinions from various stakeholders into the design process. Through this thorough analysis of policies and cases, the study identifies areas for

improvement in the 'Public Library Integrated Design' from a user-centric design perspective.

In conclusion, the study proposes three directions for revising the 'Public Library Integrated Design': 1) adopting new user-centric spatial configurations that transcend function-centric approaches to provide visitors with spaces aligned with contemporary trends, 2) enabling experts to consider various stakeholders' input and opinions, thereby facilitating active participation of non-experts in public library spaces, and 3) setting spatial directions that consider regional cooperation and urban connections, thus transforming public libraries into essential everyday facilities. Additionally, the study provides concrete suggestions for improvements to address the discrepancies between public libraries' current vision and construction guidelines.

In summary, this research critically examines the 'Public Library Integrated Design' in the '2022 Public Library Construction and Operation Manual' from a user-centric design perspective and identifies areas for improvement. Furthermore, it compares these findings with specific policy cases and architectural implementations in Jeonju City. Ultimately, it proposes directions for developing the 'Public Library Integrated Design,' serving as foundational material for refining the 'Public Library Construction and Operation Manual.'

**keywords : Public Library, Integrated Design, User-Oriented Design, Manual for Construction and Management of Public Libraries, Libraries of Jeonju-city, Improvement**

**Student Number : 2021-28188**